NH투자증권



지속가능한 금융, 함께하는 성장

2026 지속가능통합보고서

ABOUT THIS REPORT

NH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기존의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한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통합보고서에는 NH투자증권의 주요 활동과 성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부합(in accordance with)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산업 특성에 따른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자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투자은행 및 중개업(Investment Banking & Brokerage), 증권업(Securities) 공시 주제 및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에 따라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의 IR Framework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본 보고서는 작성 프로세스 및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기관인 DNV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에 관한 세부사항과 검증 의견은 130-13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기간 및 보고 범위

본 보고서의 보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성과에 한해 2026년 1분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NH투자증권의 본사 및 영업점 등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기업인 NH선물과 NH헤지자산운용의 데이터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환경 성과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한정하여 기재하였으나, 필요시 영업점과 해외 사업장의 활동 및 성과를 포함했습니다.

Forward-looking Statements

본 보고서는 현재 또는 과거 시점뿐 아니라 미래의 상황과 관련된 예측 진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실제 결과가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에서 명시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은 법적 또는 규제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보의 발생, 향후 사건이나 기타 상황 변화로 인해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COVER STORY

투명한 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유리 질감의 'N2' 타이포그래피는 정보의 명확성, 책임, 신뢰를 상징하며 ESG의 투명성과 신뢰를 시각화합니다. 블루 기반 라이트 블루 그라데이션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성과 청정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절제된 화이트 배경과 간결한 레이아웃으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신뢰감과 보고서의 품격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INTERACTIVE 사용자 가이드

본 보고서는 보고서 내 관련 페이지로의 이동 기능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PDF로 발간되었습니다.

☰ 목차로 이동

2026 NH투자증권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행처	NH투자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 2)
발행인	신재욱·배광수
발행일	2026년 6월
문의처	NH투자증권 ESG추진부
홈페이지	www.nhsec.com
이메일	nhis.esg@nhsec.com

CONTENTS

N2 SUSTAINABILITY MAGAZINE

ABOUT THIS REPORT 02
CONTENTS 03
CEO Message 04

PART 1
Design the Green, Finance the Future
온실가스 감축과
넷제로 전략으로 책임을 실행하다 06

PART 2
Bring Growth Together
농업인의 곁에서,
변화를 함께 만들다 08

PART 3
AI&Digital-Driven Investment Intelligence
AI · 디지털로 투자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다 10

INTRODUCTION

회사소개 13
AT A GLANCE 16
사업소개 17
Value Creation Process 20

VISION & STRATEGY

비전&핵심 가치 22
지속가능경영 체계 23
지속가능경영 전략 24
지속가능성장 25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26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29
사회적 가치 측정 32
Sustainability Milestone 33
Sustainable Highlights 34

FACTS & FIGURES

Planet

Green Transition Action 37
기후변화 대응 38
탄소금융 58
환경책임경영 59

People

Customer&Society Action 63
고객중심경영 64
금융소비자 보호 68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72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75
인재경영 79
사회책임경영 85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88
동반성장 90

Principle

Board Accountability Action 93
이사회 책임경영 94
윤리·준법경영 99
리스크 관리 103

APPENDIX

중대성 평가 107
재무성과표 114
GRI CONTENT INDEX 122
SASB INDEX 125
UNGC 127
UN SDGs 128
제3자 검증의견서 13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32
주요 수상 및 협회 가입 현황 133

CEO Message

NH투자증권은
리테일, IB, 홀세일, 운용, OCIO 등
핵심 사업 전반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2025년 영업이익 1조 4,206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1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NH투자증권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NH투자증권은 리테일, IB, 홀세일, 운용, OCIO 등 핵심 사업 전반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단일 부문에 의존하지 않고 전 사업 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리 조직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였음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기업이란 재무적 성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환경,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이 실현됩니다.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신재욱 **배광수**

고객 중심의 금융 혁신을 가속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입니다. AI 혁신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투자정보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고객 개개인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 전반의 질을 높이고, 2028년까지 '지속 달성 가능한 ROE 12%' 달성을 통해 자본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농업과 함께하는 NH투자증권만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넘어 농업의 가치를 별도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업계에서 유일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농업·농촌과의 진정한 상생을 수치로 증명하려는 노력입니다.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애그테크 청년창업 지원,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 실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실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 인수·투자, 녹색여신 관리,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 솔루션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더 많이 성장할수록 더 넓게 기여하는 것,
>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지배구조는 기업 신뢰의 근간입니다. 이사회 중심의 견고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변화를 비롯한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CDP·UNGC 등에서 인정받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책임경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금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금융의 혜택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가가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둔 이 자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많이 성장할수록 더 넓게 기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art 1.

DESIGN THE GREEN, **FINANCE THE FUTURE**

온실가스 감축과 넷제로 전략으로 책임을 실행하다

2050 Net Zero 로드맵[1)]

2022-2024

Net Zero Phase 1

2022
탄소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 성과 관리체계 구축

2023
K-RE100 가입 및 이행

2024
금융배출량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2025-2030

Net Zero Phase 2

2025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설정
(내부배출량, 금융배출량)
녹색여신 관리프로세스 도입

2026
전환금융 관리체계 및 운영 프로세스 도입

2030-2040

Net Zero Phase 3

2030
Scope 1·2
- 내부배출량 42% 감축(2022년 대비)
- K-RE100 이행률 35% 달성

Scope 3
- 금융배출량 31.1% 감축(2023년 대비)

2040
Scope 1·2
- 내부배출량 Net Zero(2022년 대비)
- K-RE100 이행률 100% 달성

2040-2050

Net Zero

2050
Scope3
- 금융배출량 Net Zero(2023년 대비)

1) 국가 탄소중립계획 및 당사·NH농협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략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금융의 본질로

금융의 영향력으로 실물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이끄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2050 Net Zero를 향한 여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단순한 환경 경영이 아닌 투자와 자산운용의 본질에 내재화하여,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부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포트폴리오 전반의 탄소 영향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전환, 탄소중립을 이어가다

탄소중립은 끝까지 이어가야 할 책임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며, 금융 포트폴리오 전반의 탄소 영향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실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고민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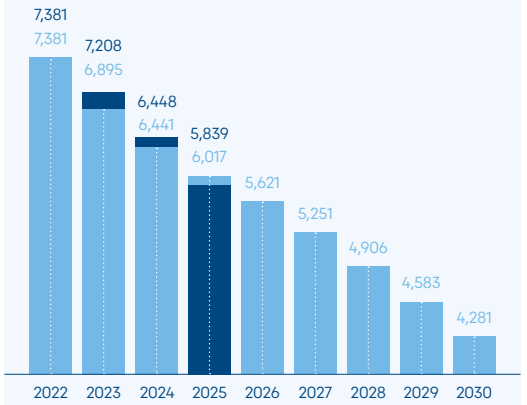
내부 배출량 목표 및 지표 (Scope 1·2)[1)]

단위: tCO_2eq

목표 지표

2025년 목표 6,017tCO_2eq 대비

178 tCO_2eq 추가 감축



1) 시장기반 배출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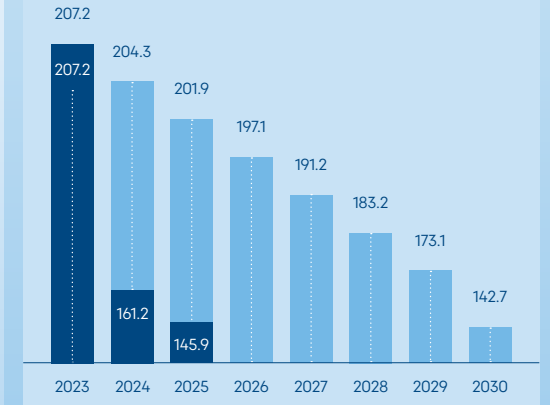
금융배출량 목표 및 지표 (Scope 3)

단위: 만 tCO_2eq

목표 지표

2025년 목표 201.9만tCO_2eq 대비

56 만tCO_2eq 추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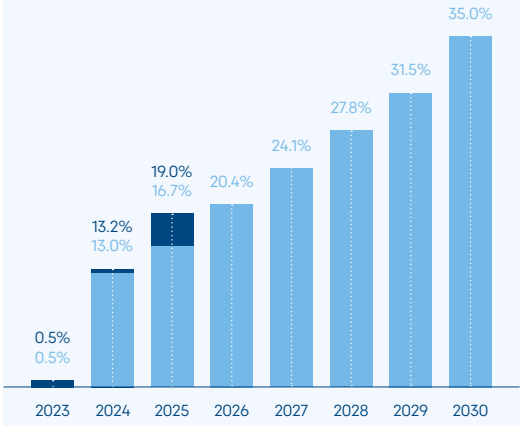


K-RE100 이행률 목표 및 지표

목표 지표

2025년 목표 16.7% 대비

2.3%p 초과 달성







Part 2.

BRING GROWTH **TOGETHER**

농업인의 곁에서, 변화를 함께 만들다

N2,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나눕니다

농업인의 전 생애주기를 함께하며, 삶의 흐름에 맞닿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첫 도전부터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까지, 금융이 닿아야 할 곳에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기술 기반 혁신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가며,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농촌 지원 추진 계획(2026~2030)

Plan 1 — 세대별 맞춤형 지원

- 2026 아동 물품기부, 희망나무 장학금, 마을공동체 냉장고 지원
- 2027~2028 상생협력기금 활용 신규 사업 발굴·추진
- 2029~2030 상생협력기금 추가 출연 검토 및 신규 사업 발굴

Plan 2 — 미래농업인 육성

- 2026 청년농업인 디지털 판로 개척사업 지원 확대
- 2027~2028 영농정착 우수 사례 발굴·공유 강화
- 2029~2030 청년농업인 지원 신규 사업 추진 검토

Plan 3 — 농업분야 신생기업 육성·발굴

- 2026 AFPRO 박람회 주관,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지원
- 2027~2028 AI 활용 농식품 생태계 발전사업 지원 검토
- 2029~2030 첨단 기술 활용 농식품 생태계 발전사업 발굴 및 지원

Plan 4 — 과학적 농업기술 현장 보급

- 2026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지원
- 2027~2028 신규 농업기술 보급사업 검토
- 2029~2030 농업혁신 기술 보급사업 발굴 및 협의체 구성·운영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3개년 누적)

스타트업 발굴(팀)

27

농협 계열사 실증 사업 연계(팀)

13

농산업분야 사업 확대(팀)

3

애그테크
기업 투자펀드 조성

2024년 희망농업혁신펀드(억 원)

511

2022년 범농협 애그테크 상생혁신펀드(억 원)

530





참여기업(개 사)

705

평균 만족도(%)

89.7

AFPRO 박람회
(3개년 누적)

참관객(명)

26,706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열고, 현장에서 함께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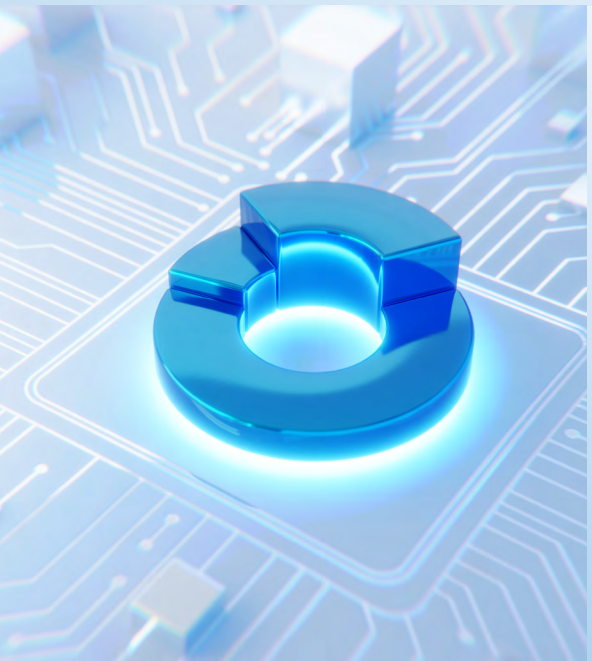
농업의 미래는 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업·투자·기술 보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AFPRO 박람회를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장을 열고,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증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범농협 애그테크 상생혁신펀드와 희망농업혁신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며,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첨단기술이 농업현장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Part 3.

AI&DIGITAL-DRIVEN INVESTMENT **INTELLIGENCE**

AI · 디지털로 투자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다





N2, 정보를 넘어서 투자에 확신을 더하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단순한 정보를 넘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핵심만을 정제해 전달하며, 투자자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읽고, 투자자의 판단을 돕다

종목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를 실시간으로 번역·요약하며, 해외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직접 연결합니다.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핵심을 꿰뚫는 인사이트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격차를 좁히고, 누구나 확신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고객 수
571 만 명

MTS 평균 이용자 수(MAU)
271 만 명

AI기반 대고객 서비스 사용 건수
802 만 건

AI 기반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 사용 건수
62,498 건



INTRODUCTION



회사소개 13
AT A GLANCE 16
사업소개 17
Value Creation Process 20

회사소개

Company Profile

1969년 창립 이후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NH투자증권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하며, 전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재무 지표

2025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
83조 3,854억 원

세전이익	자기자본
1조 3,477억 원	9조 4,381억 원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1조 315억 원	1조 4,20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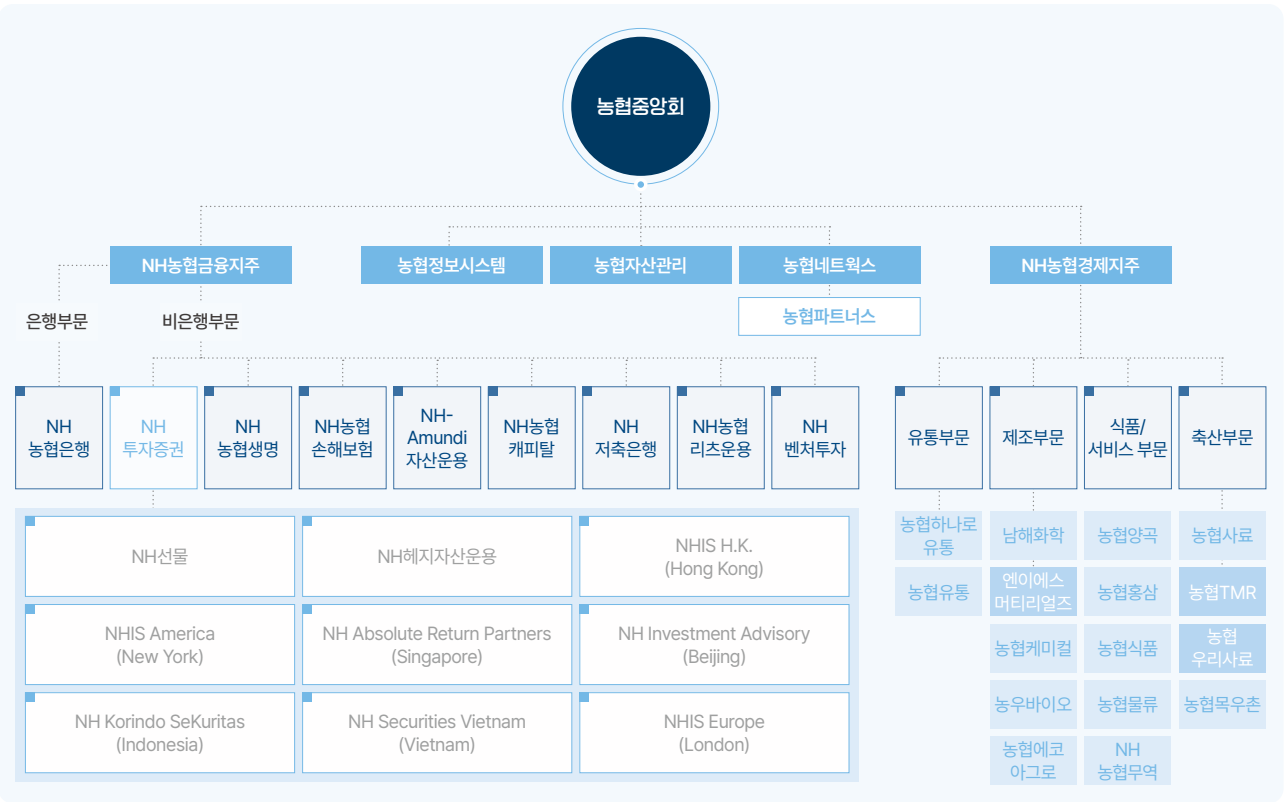
주주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NH농협그룹 개요 및 조직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대표 협동조합 농협은 조직과 사업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2012년 3월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경제지주 체제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NH농협경제지주는 생산·유통·가공·소비 전반의 경제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금융지주는 자금 조달과 수익 창출 기능과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연혁

1969-2000

- 1969.01 • 한보증권주식회사 설립
- 1975.07 • 생보증권 흡수합병, '대보증권'으로 사명 변경
- 1983.11 • 대보증권과 럭키증권 합병, '럭키증권'으로 사명 변경
- 1995.03 • 'LG증권'으로 사명 변경
- 1999.10 • LG종금과 합병, 'LG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2001-2019

- 2004.12 • 최대주주 변경 (LG그룹 → 우리금융지주)
- 2005.04 • 우리증권과 합병, '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
- 2014.06 • 최대주주 변경 (우리금융지주 → NH농협금융지주)
- 2014.12 • NH농협증권과 합병, 'NH투자증권' 출범
- 2015.01 • NH투자증권 신주 교부
- 2015.04 • NH투자증권 비전 선포식 개최
- 2015.05 •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IT통합 완료
- 2015.12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 2016.01 • 입체적 자산관리 서비스 'QV(큐브)' 출시
- 2016.04 • 인사제도 및 노동조합 통합 완료
- 2016.07 •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지분 취득(지분율 10%)
- 2016.08 • 업계 최초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 (NH앱솔루트리턴 제1호 출시)
- 2017.08 • 소비자가 뽑은 좋은 증권사 선정 (금융소비자연맹)
  • 업계 최초 모바일 증권 '나무(NAMUH)' 평생 무료수수료 이벤트 실시
- 2017.11 • 초대형 투자은행 선정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 2018.01 • 베트남 현지법인 100% 자회사 편입
- 2018.06 •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
- 2018.07 • 발행어음 판매 개시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 2019.05 • 브랜드비전(Investment Culture Creator) 선포
- 2019.11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 증권부문 1위
- 2019.12 • 헤지펀드 전문 운용자회사 'NH헤지자산운용' 설립

2020-2026

- 2020.02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혁신 및 AI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0.04 • KAIST와 UX디자인 연구센터 설립
- 2020.05 • 브랜드 비전을 담은 복합 문화공간 '문화다방' 오픈
- 2020.07 •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마이데이터(MyData)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MOU 체결
- 2020.08 • 카카오페이 인증 도입
- 2020.10 • 3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PB 서비스' 론칭
- 2020.12 • 오픈뱅킹 서비스 오픈
- 2021.03 • MZ세대 고객을 위한 팝업스토어 'NH슈퍼스톡마켓' 오픈
- 2021.11 • 베트남 최대 인터넷은행 플랫폼 'Timo'와 MOU 체결
- 2021.12 •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21년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달성
- 2022.04 • 런던 현지법인 'NHIS Europe' 출범
- 2022.05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기 전담운용기관 재선정
- 2022.08 • 'Tax센터' 출범
- 2022.10 • 펀드수탁업무 개시
- 2022.12 •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NH올원 어카운트' 출시
- 2023.02 •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
  • 업계 최초 '24시간 미국주식 매매 서비스' 제공
  • 업계 최초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출시
- 2023.04 • 업계 최초 앱테크 서비스 '시드(seed)' 오픈
- 2023.08 • 조각투자 사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계약 증권 All-in-One 서비스' 출시
- 2023.09 • 글로벌 주식 중개 서비스사 '인스티넷 유럽'과 MOU 체결 /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 2023.11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오픈 / 업계 최초 'TAX 플랫폼' 서비스 오픈
- 2023.12 • 배당기준일 변경(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 2024.02 • 베트남 현지법인 신규 MTS 'NHSV Pro' 출시
- 2024.04 • 브랜드 팝업스토어 'N2, Night' 개최
- 2024.06 • '큰손PICK' 서비스 출시
- 2024.07 • 유튜브 채널 '투자로그인' 2024 소셜아이어워드 금융 혁신대상 수상
- 2024.09 • 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활용 차트 분석 서비스 '차분이' 출시
- 2024.10 • 업계 최초 동남아 최대 대체거래소(Alta Exchange) 회원 자격 획득
- 2024.12 • 업계 최초 'AI 산학협력센터' 설립 MOU 체결
- 2025.02 • AI 기업 'Perplexity'와 투자 정보 서비스 도입 MOU 체결
- 2025.03 • 업계 최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출시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2025.09 • 트레이딩시스템 브랜드 'QV(큐브)'를 'N2(엔투)'로 리뉴얼
- 2025.10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MOU 체결
- 2025.11 • 업계 최초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시스템 출시
- 2026.01 • 업계 최초 한국형 산업분류체계 'NHICS' 개발
- 2026.03 •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 지정

회사소개

글로벌 네트워크

1992년 뉴욕 진출을 시작으로 2025년 말 기준 8개 해외거점을 운영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초기 주식 중개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본사 사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IB, 해외채권, 글로벌 상품 소싱, 해외주식 중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인은 2024년 7월 아시아 최초로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의 펀드 설립 및 운용기관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Top-tier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파일

단위: 억 원/명[1]

구분			2023	2024	2025
뉴욕(미국)	1992	현지법인	484/16	753/18	1,179/21
홍콩	1994	현지법인	7,934/30	9,679/30	9,884/30
상하이(중국)	1996	사무소	-/2	-/2	-/1
싱가포르	2008	운용사(법인)	43/5	51/7	49/8
자카르타(인도네시아)	2009	현지법인	416/176	470/162	425/197
하노이(베트남)	2009	현지법인	717/109	784/117	1,464/112
베이징(중국)	2011	현지법인	88/7	94/7	90/7
런던(영국)	2022	현지법인	367/7	403/6	401/6

1) 연도별 값은 자기자본(억 원)/인원현황(명)

New York, USA
- Equity Sales
- GET(해외 주식거래 플랫폼)
- 해외상품 소싱
- IB딜 소싱

London, UK
- IB/PI
- 해외상품소싱

Hanoi, Vietnam
- 로컬 Brokerage
- IB/PI

Singapore
- 헤지펀드 소싱/운용
- 대체투자 상품소싱/운용

Jakarta, Indonesia
- 로컬 Brokerage
- IB/PI

Beijing, China
- IB딜 소싱/자문

Seoul, Korea
- Headquarter

Shanghai, China
- 현지 리서치/IB딜 지원

Hong Kong
- IB/PI
- 채권 S&T
- GET(해외 주식거래 플랫폼)
- Equity Sales
- 해외상품소싱



AT A GLANCE

Financial Review

NH투자증권은 탄탄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 거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임직원, 주주, 채권자, 정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설립일자
1969. 01



임직원 수
3,133명



국내 영업점 수
56개
(영업소 2개 포함)

해외 거점 수
8개
(사무소 1개 포함)



신용등급
Moody's A3
S&P A-
국내신용등급 AA+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평가정보



세금 납부 현황

조세정책 살펴보기

단위: 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세전손익	7,207.3	9,248.6	13,477.4
현금으로 납부하는 법인소득세	1,539.3	1,037.5	4,370.4
당기손익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1,676.8	2,382.2	3,162.4

경제성과 창출 및 분배

단위: 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직접적 경제적 가치 창출	영업이익	7,257.6	9,010.7	14,205.8
	분배되는 경제적 가치[1]	운영비	1,637.7	1,915.2	2,010.3
		임직원 급여[2]	6,071.8	7,238.2	8,456.4
		주주 배당	2,789.5	3,283.4	3,789.5
		채권자 이자 지급[3]	5,234.8	5,693.4	6,362.2
		정부 납부 세금[4]	1,676.8	2,382.2	3,162.4
		지역사회투자	67.0	65.8	295.1

1) 분배되는 경제적 가치에 운영비 추가 및 산정 기준 변경으로 2023~2024년 데이터 변경
2) 급여,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복리후생비
3) 자금 조달에 따른 실제 현금성 이자(차입금 이자, 사채이자, 발행어음이자). 회계상 비용 및 고객 자산에 대한 보상 제외
4) 법인세

사업소개

WM사업부

사업소개

WM사업부는 리테일 HNW[1]·UHNW[2] 고객을 대상으로 PB의 인적서비스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본부와 UHNW 특화 점포인 Premier Blue본부를 포함해 총 5개 본부, 54개 영업점 및 2개 Branch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기반과 지역 특성에 따라 대형·금융센터와 지역거점센터로 채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형·금융센터는 HNW·UHNW 고객 중심의 특화된 자산관리를 수행합니다. 대표 서비스인 패밀리 오피스는 전통적 자산관리에 IB 연계 자문, 가업 승계·절세 등 비재무적 니즈를 결합한 초개인화 서비스로, 2025년 기준 누적 이용 가문 수가 224가문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177가문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거점센터는 Affluent· Mass 고객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세시대 아카데미-명사특강' 등 생애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HNW·UHNW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확대와 VIP 고객 행사 운영을 비롯하여 사내 Retail Advisory·IB·Wholesale ·OCIO[3]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팀 기반 자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MA, 국고채·발행어음·RP 등 특판상품을 포함한 상품 제공 경쟁력을 확보하고, 높은 PB 역량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인 부문에서는 단기상품 중심 영업에서 종합 재무솔루션 제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영업지원팀을 신설하여 기업금융 컨설팅 및 법인 마케팅 지원 체계를 갖추었으며, 기업과 기업 오너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 AI를 활용하여 PB의 활동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의 초개인화된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패밀리오피스서비스 누적
224 가문
2022년 대비 177가문 증가

총 고객자산[4]
235.5 조 원

1억 원 이상 고객 수
101,512 명

1) 고액순자산보유자(HNW: High Net Worth)란 금융서비스 업계에서 특정 기준 이상으로 유동 자산을 유지하는 개인을 의미
2) 초고액 자산가(UHNW: Ultra High Net Worth)란 투자가능한 금융자산이 30억 원 이상인 개인을 의미
3)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란 투자운용에 수반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운용 서비스
4) 위탁자산 및 금융상품자산 포함

디지털사업부

사업소개

디지털사업부는 디지털 채널 중심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프로덕트본부와 디지털자산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프로덕트본부는 플랫폼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획, UI·UX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며, 스쿼드(Squad) 조직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Product 생산과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관리본부는 자산관리 니즈 고객 발굴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고객 맞춤형 투자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획부를 통해 고객·가격전략을 수립·운영하며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포트폴리오 진단 및 해외 리포트를 제공하는 'Seeking Alpha',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Terminal X', 월가 전문가의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월가라이브', 디지털 Advisor의 투자 전략을 공유하는 '투자챔피언스리그',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투자 경험과 금융 생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디지털사업부는 시장과 고객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Squad Year 1'으로서 스쿼드 형태의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상용 AI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즉각적 AI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AI One Product 요소에 대한 기술검증 및 구현을 진행하는 2-Track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AI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매체와 디지털 Advisor 간 상호 보완을 실현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Cross Platform 전략을 추진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고객 수[1]
5,718,994 명

나무 MTS 20~30대 고객 비율
45.6 %

1) 나무/N2 비대면 고객 누적수

사업소개

IB사업부/부동산인프라사업부

사업소개

IB사업부는 자금 조달, 인수금융, 기업 상장, 인수·합병 자문 등 다양한 기업금융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CM(Debt Capital Market)과 ECM(Equity Capital Market) 리그테이블에서 최상위권(Top-tier) 지위를 유지하며,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두터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신뢰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인프라사업부는 대체자산 소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체자산 시장에서 리딩 플레이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거·비주거시설 전반에 걸친 폭넓은 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부동산 금융 전 영역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미국 텍사스 태양광 개발사 브릿지론, 당진 솔라팜 태양광발전 대출, 호주 분산형 전원 사업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GP 운용에서는 1호 펀드 소진을 완료하고 2호 및 3호 모집을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IB사업부는 전통적 강점인 DCM 부문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 재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ECM 경쟁력 회복 및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AI·반도체·딥테크 등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ECM·DCM·인수금융·M&A를 아우르는 종합 IB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인프라사업부는 우량 딜 선점을 위한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재순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대체자산 투자 전 단계에 걸친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체투자 Market Dominator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여전채 FB 대표주관 순위
30.9%(점유율) 1위

일반회사채 SB 대표주관 순위
18.1%(점유율) 2위
* ABS, FB 제외

유상증자 대표주관 순위
38.4%(점유율) 1위
2024년 2위에서 1위 달성

IPO 대표주관 순위
14.1%(점유율) 3위
2024년 4위에서 3위 달성

운용사업부

사업소개

운용사업부는 안정적인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며, GlobalFI본부, Client솔루션본부, 전략운용본부, IMA운용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lobalFI본부는 채권 운용 및 중개 등 채권 관련 비즈니스를 담당하며, 대고객북과 Prop북 전담 부서로 재편하여 자금 성격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Client솔루션본부는 ELS·DLS 등 파생결합상품과 Swap[1] 등 장외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구조 설계부터 가격 결정, 고객 공급 및 Pay-Off 운용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운용본부는 발행어음·퇴직연금ELB 자금 운용과 함께 고유계정을 활용한 주식·메자닌(Mezzanine)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담당하며,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 투자자산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회수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IMA운용본부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설계 및 운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운용사업부는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운용 성과를 달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중장기 자산운용 수익성을 개선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체계적 운용역량을 확보하고, 투자 원칙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퇴직연금 ELB·IMA 등 상품 공급 및 최적화된 운용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구조의 파생결합상품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 공급하여 업계 선도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 신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사 FX[2] 통합 창구로서 환전 서비스 등 FX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실거래 기반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야간 환전 등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기존의 Sales&Trading 사업과 더불어, 최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한 투자 수익 극대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운용 역량을 고객에게 확장하는 원년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채권운용규모
19.5조 원

외국인 채권 투자자 원화채권 중개 규모
21.7조 원
2024년 대비 약 73% 이상 증가

FX/CRS[3]/IRS[4] 거래 잔고
12.9조 원
2024년 대비 226%증가

1) Swap이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의미
2) FX란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상품을 의미
3) CRS란 Currency Rate Swap의 약자로 계약상대방이 서로 다른 통화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4) IRS란 Interest Rate Swap의 약자로 계약상대방이 동일통화의 명목원금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

사업소개

Wholesale사업부

사업소개

Wholesale사업부는 주요 공모·사모 자산운용사, 연기금·공제회, 보험사·은행 등 국내의 다양한 기관 고객을 비롯하여 해외 Long Fund, Hedge Fund, 글로벌 IB까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Total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 기관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기관 Coverage본부는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 DMA 거래,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등 다양한 브로커리지 서비스와 금융상품 영업을 담당하며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업계 내 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Passive솔루션본부는 주식 시장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ETF LP, 차익 거래, KRX 시장조성업무 등 주식시장의 거래 기능 활성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rime Brokerage본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PBS 전담 계약체결 및 위탁영업, 신용공여 서비스와 함께 Swap 거래, 대차·대여 중개, 펀드 수탁 등 사모펀드 및 전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Wholesale사업부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안정적 운영 인프라, 다년간 축적된 전문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견조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변화하는 시장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수익 기반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핵심 고객 중심의 성장 체계 확립입니다.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심화해 장기적·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기관 투자자별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PBS·대차·수탁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주요 AUM의 지속 성장을 도모합니다.

ETF 영역에서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 개선과 함께 기존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플랫폼 내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AX)를 핵심 실행 과제로 삼아 주요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수탁잔고
25.8조 원
2024년 대비 72% 성장

PBS 헤지펀드 AUM[3] 순위
30.4조 원
2024년 대비 51% 성장

1위

OCIO사업부

사업소개

OCIO사업부는 고객의 자산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며,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운용부문과 신규 고객 발굴 및 대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마케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운용 역량과 상품군에 대한 풍부한 투자경험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정부 주요 대형기금, 공공기관, 공제회, 일반법인, Family Office 등의 OCIO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신탁본부를 사업부에 편입하여 고객자산 통합 솔루션 제공을 확장하였으며, 대형기금은 물론 중소형 법인, Family Office, 거액 자산가 등 폭넓은 고객층의 투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자본시장 내 '1st Tier Platform Player'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OCIO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마케팅 및 운용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자산운용사 중심의 기존 OCIO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5건의 공개경쟁 입찰 중 3건을 수주하였으며, 금융투자협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자산운용사와의 경쟁에서 단독 선정되어 OCIO 운용 역량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AUM 확대, 운용 역량 강화, 사내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미래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OCIO 마케팅을 강화하고 일반형 OCIO 고객 유치를 확대하여 AUM 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공공기관과는 차별화된 투자 수요를 가진 일반법인 및 HNW 고객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OCIO뿐만 아니라 신탁본부의 자산통합 솔루션으로 최적의 자산배분을 통해 초과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산운용사 대비 우수한 운용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신탁 운용규모
41.5조 원

OCIO 운용규모
10.3조 원

1) PBS란 Prime Brokerage Service의 약자로 증권사가 고객사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
2) 대여자에게 주식, 채권을 빌려 대차 수요자에게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3) AUM이란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의 약자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모든 금융 자산의 가치를 의미

Value Creation Process

NH투자증권은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을 추진하며,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자본

- 총자산 83조 3,854억 원
- 자기자본 9조 4,381억 원
- 지배주주지분 9조 4,333억 원

인적 자본

- 임직원 수 3,133명
- 신규채용 158명

지적 자본

- AI 산학협력 3개 과제
- 외부 디지털 역량 확보(산학협력, MOU) 5개사 / 199억 원

사회적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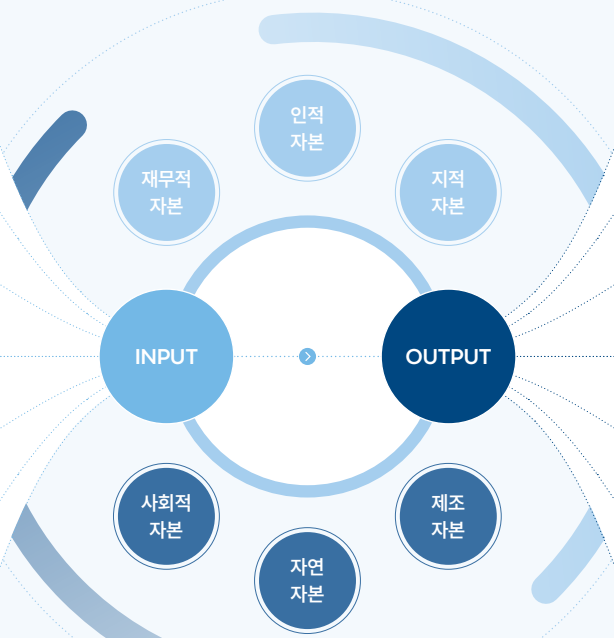
- 사회공헌 참여인원 수 5,980명
- 청년 농업인 육성 크라우드펀딩 지원 농가 24개
- 청년 농업인 육성 라이브커머스 지원 농가 16개

자연 자본

- TNFD 가입(2026.03)
- K-RE100 2040년 달성 목표

제조 자본

- 국내 영업점 56개(영업소 2개)
- 해외 현지법인 8개(사무소 1개)



재무적 자본

- 당기순이익 1조 315억 원
- 지배주주순이익 1조 316억 원
- 주주배당금 4,878억 원
- 이자비용 1조 154억 원
- 정부법인세 3,162억 원

인적 자본

-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71시간
- 여성임직원 비율 43.0%
- 여성관리자 비율 35.4%

지적 자본

- Terminal X: AI 기반 금융·투자 리서치 플랫폼 오픈 202,654명
- 디지털 고객 수 571.9만 명
- AI 기반 대고객 서비스 사용 802.3만 건
- 디지털 신규 서비스 론칭 7개

사회적 자본

- 사회공헌 금액 253억 원
- 청년 농업인 육성 크라우드펀딩 금액 1억 2,581만 원
- 청년 농업인 육성 라이브커머스 금액 2,802만 원

자연 자본

- GCF 기후기술 펀드 운용 아시아 최초 선정
- K-ETS 위탁매매 시스템 공식 오픈

제조 자본

- 자본 확대 2024년 8.1조 원 → 2025년 9.4조 원
- 금융센터 신설 NH금융PLUS 세종 WM센터 신설 1건

VISION&STRATEGY



비전&핵심 가치 22
지속가능경영 체계 23
지속가능경영 전략 24
지속가능성장 25
Focus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26
Focus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29
사회적 가치 측정 32
Sustainability Milestone 33
Sustainable Highlights 34

비전 & 핵심 가치

2015년 4월 통합 출범 이듬해, NH투자증권은 'Beyond the First, New History, We are NHIS'라는 비전과 함께 핵심가치 'ORIGIN'을 선포하였습니다. 고객지향(Orientation), 책임감(Responsibility), 혁신(Innovation), 글로벌(Global), 전문성(Intelligence), 네트워크(Networks)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이 가치체계는 구성원 각자가 업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자본시장의 기준점이 되겠다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경영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고, 창의적 혁신과 깊은 금융 전문성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 더 큰 가치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비전

Beyond the First

최고를 넘어

New History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We are NHIS

대표 금융투자회사, NH투자증권

핵심가치

O R I G I N



Orientation	Responsibility	Innovation	Global	Intelligence	Networks
고객지향	책임감	혁신	글로벌	전문성	네트워크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아간다	창의적 사고로 혁신을 주도한다	글로벌 관점에서 기회를 창조한다	독보적 전문성으로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Our clients' interests always come first	We build trust through strong responsibility	We innovate through creative thinking	We create opportunities through global perspective	We provide financial solutions based on superior expertise	We work together to generate synergy

지속가능경영 체계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체계는 이사회 감독부터 실무 이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3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가 전사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협의회가 실행 계획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며, ESG본부·ESG추진부가 개별 과제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각 단계가 긴밀하게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실질적 내재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 2026년 3월 말 기준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의 전략 방향 설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합니다. 지속가능협의회로부터 주요 활동과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어 경영 전반에 반영됩니다.

2025년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 비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연간 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100%였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기후 리스크 분석, 녹색금융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 이행을 감독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사외이사 3인으로 위원회 구성을 재편하였습니다.

2025년 ESG위원회 운영현황

개최일자	의안내용
2025.04.24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설정(案) 승인의 건 • 2025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2025.08.28	• 기후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고 • 2025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보고 • 정보보호 공시 결과 보고
2025.11.27	• 탄소금융 비즈니스 현황 보고 •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결과 보고

지속가능협의회

지속가능협의회는 경영진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로, 주요 과제의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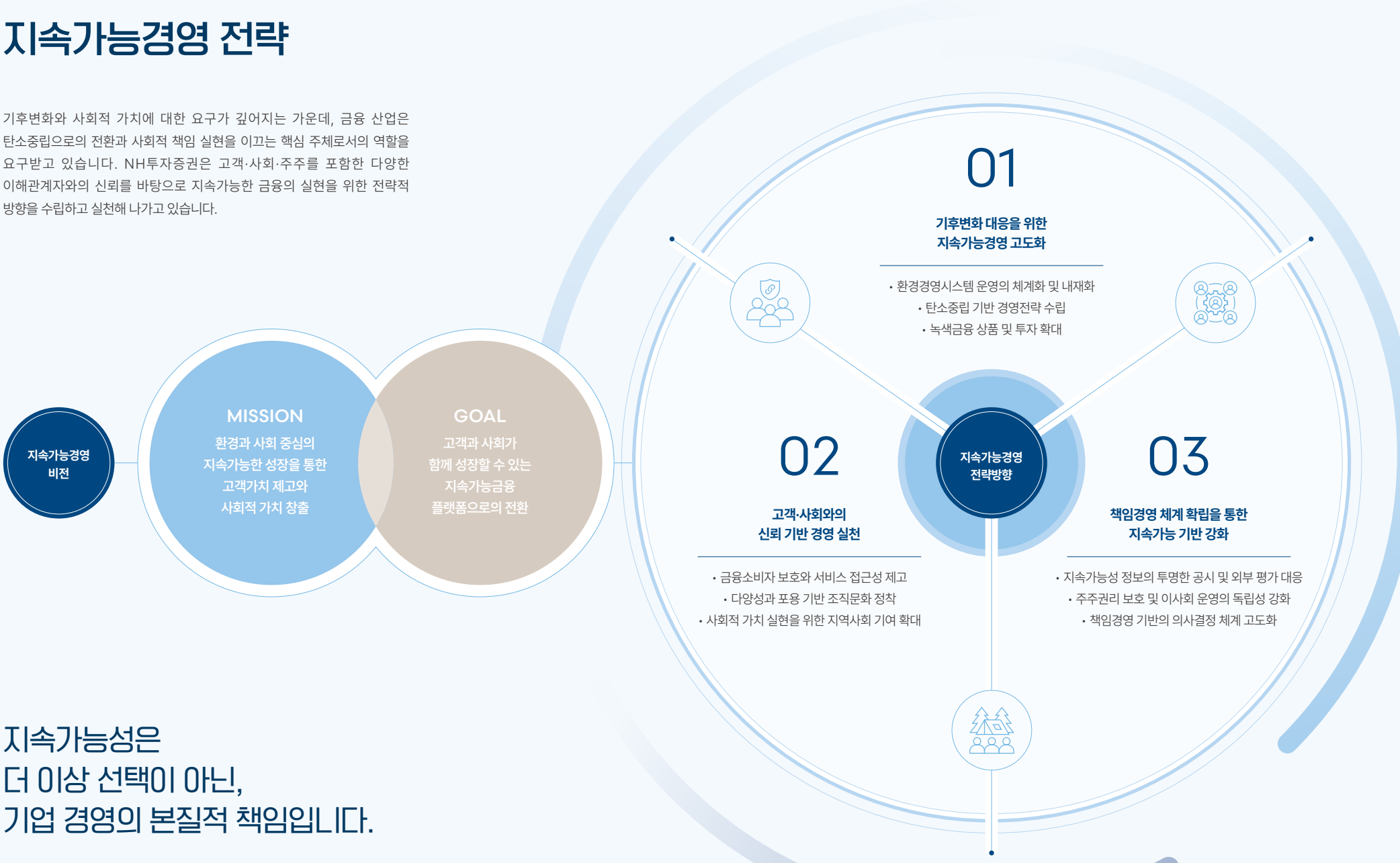
2025년에는 총 3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와 기후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및 정보보호 공시 등 대외 공시 과제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탄소금융 비즈니스와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등 녹색금융 관련 실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이행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ESG본부

2024년 지속가능경영 추진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경영지원부문 내에 ESG본부를 신설하고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ESG추진부와 홍보실을 ESG본부 산하로 편제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회공헌단을 ESG추진부 산하로 재편하여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실무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을 독립된 의제가 아닌, 경영 전반과 긴밀히 연계된 핵심 기능으로 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기후변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 산업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사회·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본질적 책임입니다.

지속가능성장

Sustainable Growth

ROE 12% 달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수익 구조 구축에 집중

경영 목표

ROE 12%의 지속달성이 가능한 사업구조 개편

전략 방향

STRATEGY 1. 핵심사업부문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각 사업영역의 핵심 성장축을 명확히 정의하고,
고성장 모멘텀을 전사 ROE 제고로 직접 연결



01 **Retail**
- 채널별 핵심고객 지속 확장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

02 **IB**
- 인수금융 등 북 기반 Biz. 확장, 기업 구조조정·산업 재편·전략적 M&A 확대에 선제 대응

03 **운용**
- 대고객 Flow Biz. 강화로 시장 변동성 대비 안정적 운용수익 기반 확보, 상품·고객 다변화

04 **홀세일**
- 대기관 AUM·솔루션 Biz. 확장, 핵심기관 중심 리소스 집중 배분으로 세일즈 효율 극대화

STRATEGY 2. 고객자금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가속화

고객자금 기반의 '운용'과 '교차판매'
이중 선순환 구조 확립



01 **운용·투자수익의 선순환**
- 고객자금 기반 레버리지 운용 → 이익규모 확대
- 운용성과 → 고객자금 재유입
- 재유입 자금으로 운용규모 재확대

02 **교차판매의 선순환**
- 고객자금 유입 → 핵심고객 기반 확보
- 고객기반 강화 → 교차판매 활성화
- 교차판매 → 판매수익·고객유입 확대

STRATEGY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기술 변화에 대응한 AI 기반 경영·Biz. 혁신
가속화, 규제 변화에 따른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01 **AI Transformation**
- 전사 운영·영업·리스크 전반의 AI 기반 전환
- 글로벌·국내 금융권의 AI 활용 가속화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 대응
- 경영 및 Biz 전반에 AI 내재화 체계 정립

02 **내부통제 고도화**
- 기술 기반의 상시 및 예방 중심 대응 체계로 고도화
-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신뢰도 및 준법문화 강화

03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 감독당국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부합한 거버넌스 정비
- 평가 체계 및 CCO 권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중심 체계 확립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거버넌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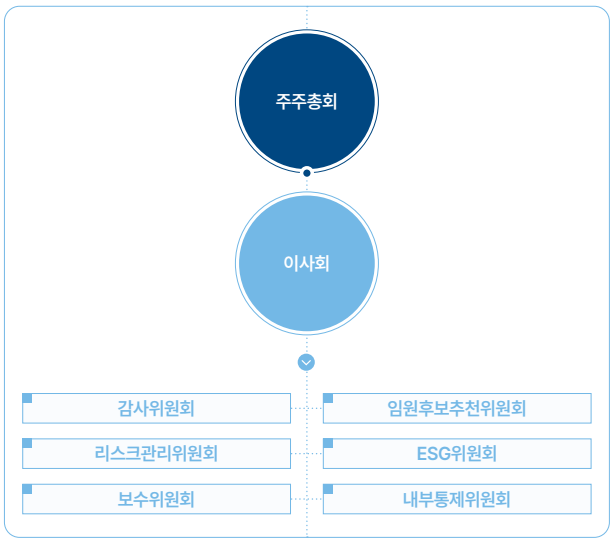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이사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전반을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를 통해 리스크 관리, 보수 적정성, 지속가능경영 등 주요 의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방향

기업가치 제고 살펴보기

전략적 자본 배분을 통한 주주가치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인 IB·WM·운용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B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WM·운용 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하고, 2028년까지 ROE 12% 확보와 PBR 1배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전략의 이행을 감독하며, 재무 목표와 주주환원 방향이 경영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거버넌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신용등급
AA+
국내 신용평가 3社

사외이사 비율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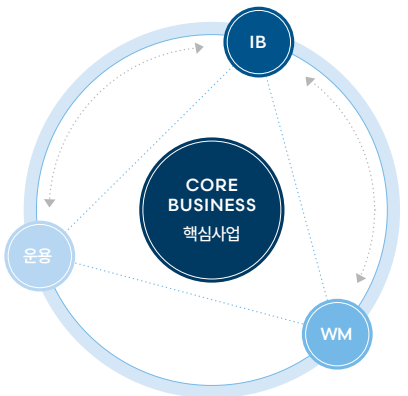
사외이사 교육
연 10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사업 포트폴리오 제고

IB
- 전통 기업금융 Biz 시장 지배력 유지, 고부가가치 Advisory Service 시장 개척
- 부동산 생애주기 전반 아우르는 서비스 공급자 역할 강화



운용
- WM성장에 기반한 운용자산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 Sales채널 협업으로 대고객 상품 경쟁력 강화

WM
- IB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UHNW 고객 기반 확대
- 디지털 플랫폼 통한 신규고객 확장 지속, 성장사업 (해외주식, 금융상품) 경쟁력 강화

신사업, WS, OCIO 등
- 회사 및 시장 성장에 비례하는 수익성 확보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전략

전자투표제

주주가 주주총회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참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에 소집 목적과 안건을 전자적 방식으로 사전 공고하여 주주가 경영 현황과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공시를 넘어 주주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체계입니다.

의결권 행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권리 보호와 참여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시 이행체계 구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에 따라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정보의 중앙 관리와 체계적인 공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응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공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시 이행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공시통제제도는 대표이사가 총괄하며, 공시책임자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는 구조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시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시 의무사항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공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투자자와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주친화적 배당

투자자가 배당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배당기준일을 먼저 설정한 후 배당액을 확정하는 구조로,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설정'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3월 11일 배당액을 확정하고 3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여 해당 제도를 실제 적용하였습니다. 배당액을 먼저 공개한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함으로써 투자자가 배당수익률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주주환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주친화적 배당 프로세스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지표 및 목표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업계 상위 수준의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당 최소 500원의 배당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추가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주환원 계획



STEP 01
기본배당 500원을 보장·지급하여, 실적 하락시에도 최소 배당수익 보장



STEP 02
사업성과를 고려한 추가배당을 통해, 업계 최고의 주주환원 지속



STEP 03
필요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주주들로 하여금 Capital gain(자본 이익) 추구 기회를 제공

2025년 결산 배당 기준



시가배당률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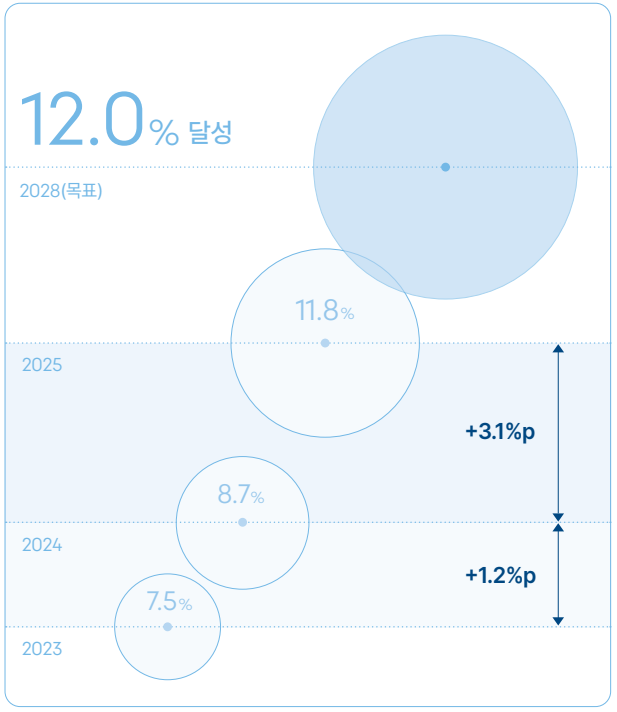


배당금총액
4,878.3억 원

지속가능한 ROE 확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12% 달성을 목표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B·WM·운용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본수익률(COE, Cost of Equity) 10% 수준을 충족하고, 신사업 및 기존사업(Wholesale·OCIO·자회사 등)의 수익을 더해 2028년까지 목표 ROE 12%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ROE 현황 및 목표



N2, FOCUS ON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 1조원 시대' 개막

NH투자증권이 리테일, IB, 운용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2025년 영업이익 1조 4,206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15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57.7%, 당기순이익은 50.2% 증가하여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의 수익 창출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ROE 12%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AI 혁신을 전 사업 영역에 적용하여 고객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고도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실행력 중심의 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업이익
1.42조 원 (전년 대비 +57.7%)

당기순이익
1.03조 원 (전년 대비 +50.2%)

2025년 사상 최고 실적 달성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책임투자 원칙

환경사회 투자 정책 살펴보기

투자 및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 실행 전 환경오염, 인권침해 등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UN SDGs를 기준으로 투자 건의 환경·사회적 기여도를 검토하며 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가치 창출 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건강, 생태계 보전, 인권 및 윤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 수준과 사회적 민감도에 따라 투자 배제와 점진적 축소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인도적 무기, 신규 석탄 발전,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 도박, 동물실험, 인권침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과 사업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

구분	내용	위험관리
무기	• EU 수출 금지 품목 규정상 사형·고문·비인도적 처벌에 활용되는 장비를 생산·판매·구입하는 기업	즉시 배제
석탄	•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관련 프로젝트	
생태계 훼손 위험	• 불법 벌목, 야생동물 밀거래,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개발 등 육상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다이너마이트, 화학약품을 사용한 어업활동이나 유해물질 불법 방류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담배·도박	• 담배·도박·주류·성인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 및 사업	점진적 배제
동물실험	• 동물실험 및 살아있는 동물 수출 관련 투자 및 사업	
인권침해 위험	• 현대판 노예제도 또는 아동노동의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 및 사업	

책임투자 심사 체계

투자 심사는 사업부서, 심사부서, ESG추진부가 단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환경사회투자정책에 따라 사업부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을 식별하고, UN SDGs 기반 지속가능성 목표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ESG 체크사항을 작성한 후 심사부서에 제출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관련 프로젝트는 투자 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사부서는 환경오염·인권침해·지배구조 리스크 등 중대이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합니다. 필요시 ESG추진부가 심화 평가에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등급을 산출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2025년부터는 외부 기관의 ESG 등급을 신규로 참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심사의 깊이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297건의 투자에 대해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55건은 UN SDGs에 부합하는 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컨트로버셜 이슈가 식별된 26건에 대해서는 심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네거티브 스크리닝 해당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책임투자 심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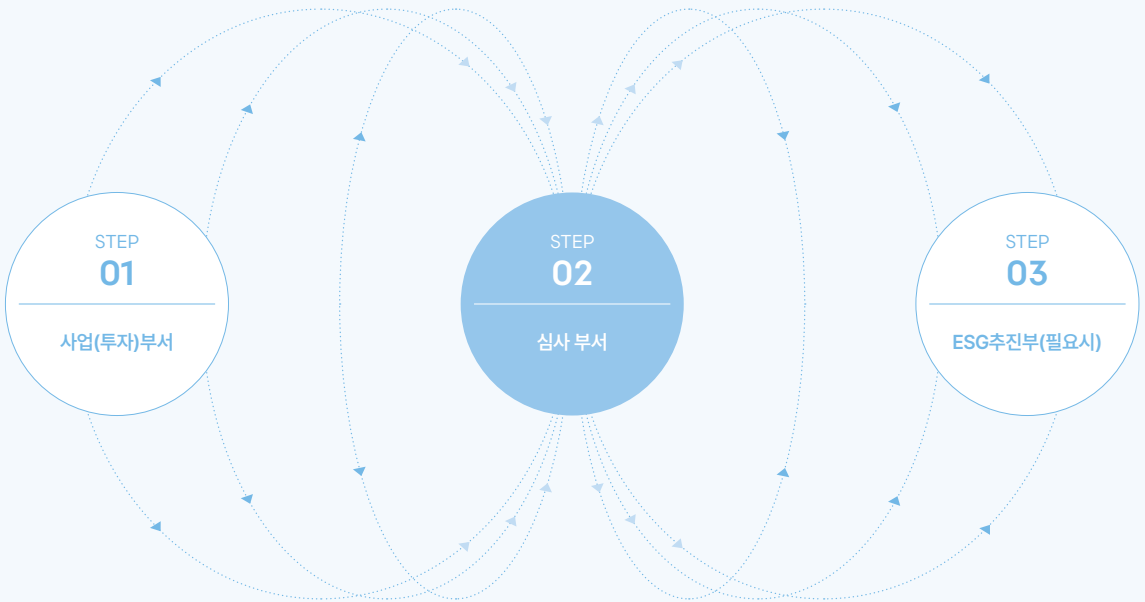


투자심사	UN SDGs 부합	심화평가
297건	55건	26건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책임투자 심사 체계

지속가능성 투자 심사 프로세스



STEP 01

- 탈석탄 정책 등 ESG 투자배제 기준에 따른 네거티브 스크리닝 수행
- UN SDGs,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ESG 투자목표 부합 여부를 점검
- 검토 결과를 ESG 체크사항으로 작성하여 심사부서에 제출

STEP 02

- 현업부서가 제출한 ESG 체크사항 점검
- 환경오염·인권침해·지배구조 리스크 등 중대이슈 해당 여부 확인
- 투자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사전 대응 필요성 검토

STEP 03

-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배제 및 적격성 판단
- 포지티브 스크리닝: 투자목표 부합 여부 확인
- ESG 수준점검: 평가 결과 정량화 및 내부 기준에 따른 등급 산출
- 종합의견 전달: 부서 간 ESG 요소 공유 및 투자 반영

녹색여신 적합성 관리

NH농협금융그룹의 표준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시스템 구축에 맞추어 그룹 공통 평가 Tool을 도입하고, 고객상담, 적합성판단, 여신실행, 사후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업무절차를 표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Taxonomy 경제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 투자 건에 대한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PF대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통해 녹색여신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200억 원 규모의 녹색여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SG 지수 개발

책임투자 원칙은 투자 심사에 그치지 않고 ESG 지수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서치 역량을 활용하여 자산관리와 트레이딩 분야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통합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국내 주요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성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서스틴베스트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ESG 우량기업 100개로 구성된 'iSelect 서스틴베스트 ESG100대 기업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산업 발전을 추종하는 산업 지수를 개발하여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등 3개 상품을 상장하였으며, 2025년 말 기준 합산 규모 약 4,22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 상장 원자력 ETF 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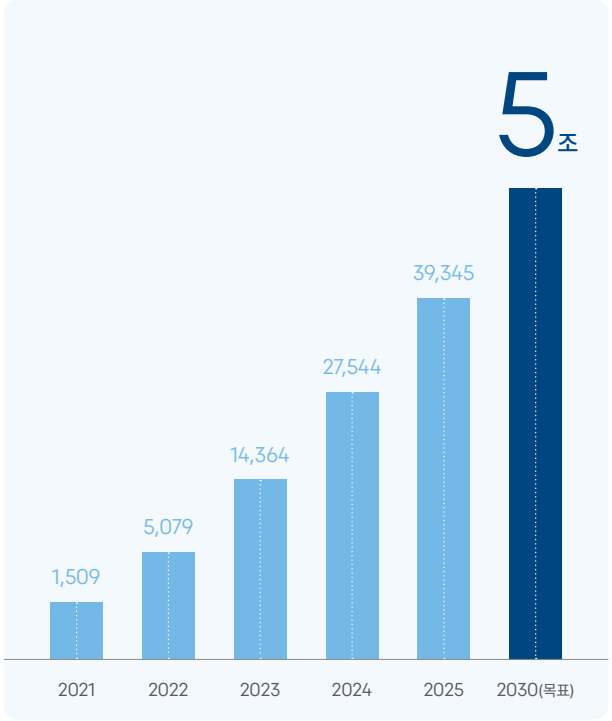
항목	상장일	금액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2025.08.19	2,680
KODEX K원자력SMR ETF	2025.09.16	901
KODEX 미국원자력SMR ETF	2025.11.25	648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녹색금융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Taxonomy를 녹색금융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여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녹색 프로젝트의 인수·주선 및 PF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 실행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누적 실행 규모는 3조 9,34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녹색금융 누적 실적 및 목표 단위: 억 원



ESG채권 인수 및 투자

2021년 증권사 최초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계기로 ESG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발행 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물, 일자리 창출 등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재투자되었으며, 이후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전 영역으로 인수·투자 활동을 넓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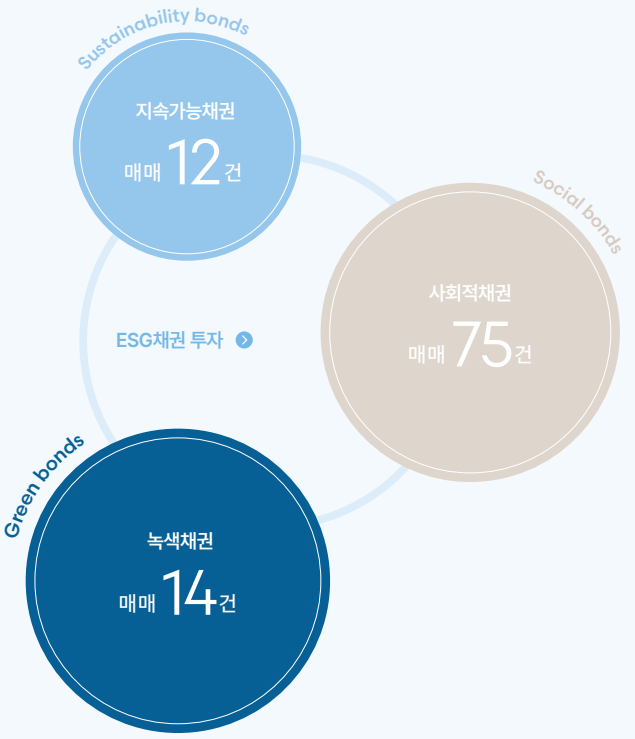
ESG채권 인수를 통해 발행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 실적은 전년 대비 약 57% 성장하며 ESG채권 시장에서의 역할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내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의 흐름을 이끌며, ESG채권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ESG채권 인수내역 단위: 억 원

구분	인수 금액
녹색채권	1,290
사회적채권	2,500
합계	3,790

2025년 ESG 채권 투자내역 단위: 건, 억 원

구분	매매 건수	매매 금액
녹색채권	14	1,900
사회적채권	75	11,875
지속가능채권	12	1,700
합계	101	15,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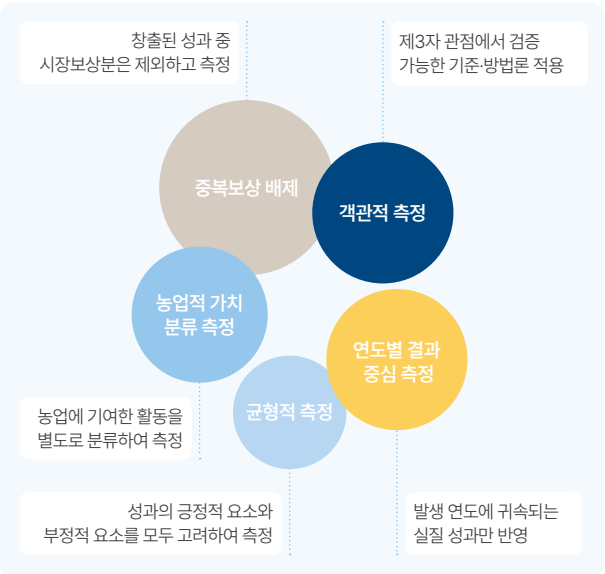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적 가치 측정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단순 공시에 그치지 않고,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의 5대 원칙



사회적 가치 측정 영역

환경(E)	• 자연환경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사회(S)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농업(A)	• 농업인과 농촌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G)	• 기업 활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가치 측정 종합 결과

2024년 총 3,78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지속가능금융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 신규 사회공헌 활동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영역별로는 지배구조 부문이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1,401억 원을 창출하며 전체 사회적 가치 창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농업 부문은 농업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농민 지원 활동과 농촌지역 활성화 활동을 통해 1,206억 원을 창출하였습니다. 사회 부문은 임직원 복지와 성장 금융, 정보보안,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728억 원을, 환경 부문은 친환경 신기술 투자와 친환경 활동을 통해 447억 원의 가치를 각각 창출하였습니다.

창출된 총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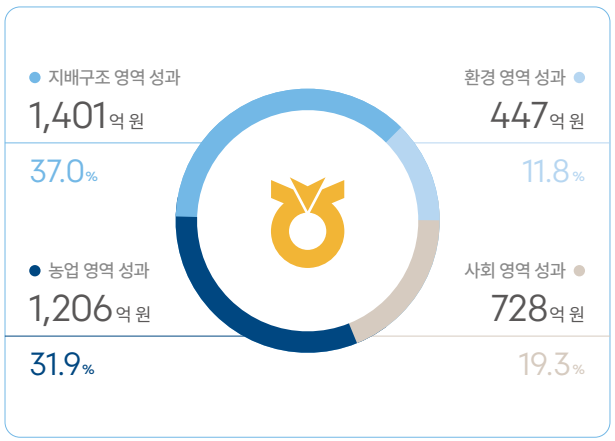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창출된 총 사회적 가치

3,782억 원

부문별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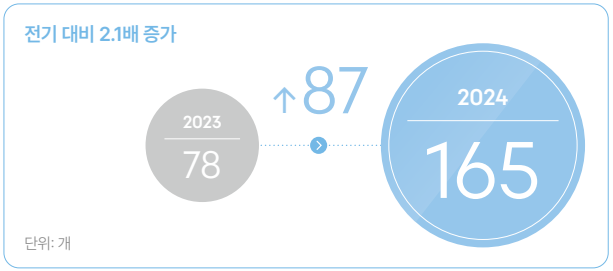
측정 결과 활용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는 단순 공시를 넘어, 미래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로 사회적 가치를 산출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측정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지표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활용 프로세스

① ESG 데이터와 SV 성과의 통합 관리로 업무 효율 제고 및 이중 보고 부담 최소화
② 투자·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사전 검토 체계 도입
③ 중요 ESG 이슈 판단 시 정량적 기준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 객관성 강화
④ 측정 결과 기반 중점 투자 영역 선별로 기업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실현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수 변화



Sustainability Milestone

~2021

- ESG추진팀 신설
-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 지속가능통합보고서 발간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 국내 증권사 최초 ESG 원화 채권 발행
-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개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2022

- ESG추진부 승격
- ESG위원회 출범
- TCFD 지지 선언
-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취득
-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IEC 27001' 인증 취득
- 범농협 애그테크상생혁신 펀드 출자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선정
- 'iSelect-WG 그린에너지 ESG 지수', 'iSelect-WG 탄소중립 ESG 지수' 개발

2023

- 주요 ESG정책 제정
- 탄소금융부 신설
- 업계 최초 바이오차(Biochar)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4EN)
- SK임업과 글로벌 온실가스감축사업(동티모르 고효율 쿡스토브) 공동 추진 MOU 체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취득
-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27701' 인증 취득
- K-RE100 가입
-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최초 구매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선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경기, 브라보비버인천 지분투자

2024

- ESG본부 신설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가입
- 환경부 '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참여자' 단독 선정
- 증권업계 최초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 'APEC CBPR' 취득
-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아시아 최초 UN 기후기금(GCF) 운용기관 선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품 취약계층 기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고등학교 문화예술 교육 후원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리드(LEAD) 그룹 선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부산 지분투자
- REC·녹색프리미엄 혼합 방식 도입을 통한 조달 규모 확대
- 'iSelect AI 전력설비투자 지수', 'iSelect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지수' 개발
- 'N2 전력인프라 Top5 ETN' 상장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Autism Friendly Award' 기업 선정
- '2024년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 농촌진흥청장상 수상
- '2024 THE ESG AWARDS' 환경 부문 대상 수상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금융부문 우수상 수상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자기주식 소각
- 희망농업혁신펀드 출자

2025

- 탄소중립 로드맵 및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공개
- NGFS 기반 기후시나리오 분석 시행
- CDP 평가 리더십 A(최고등급) 달성
- 상생형 RE100 이행 –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 REC 조달
- K-ETS 기반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NHIS K-ETS' 출시
- K-Taxonomy 기반 녹색여신 관리체계 구축
- 네팔 저탄소 벽돌 생산기업 'InnoCSR' 전략적 지분투자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MOU 체결
- 장애인 표준사업장 하트하트아트앤컬쳐, 브라보비버 대구 지분투자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2년 연속 리드(LEAD) 그룹 선정
- UN SDGs 협회 SDGBI 1위 그룹 선정
- 2025 WIN 어워드 다양성 우수기업 선정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책무구조도 도입
- 자기주식 소각
- iSelect 서스틴베스트 ESG100대 기업 지수 개발
-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선정(한국인터넷진흥원)
-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지속가능보고서 부문 대상 수상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Sustainable Highlights



2030년 녹색금융
투자 5조 원 목표 대비

79%

2025년 달성률

ESG 관련 지수 추종 상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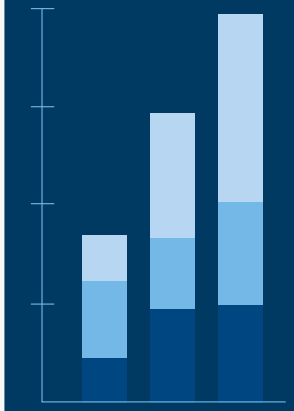
GROWTH +530%

국내 증권사 최초 K-ETS 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NHIS
K-ETS HTS 출시

2021~2025년
녹색금융 누적 투자

3.9조 원



MSCI

A 등급

금융배출량 집약도
전년 대비

35%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량
전년 대비

41% 확대

CDP
A
(Leadership 등급)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사 최초 4년 연속
NO.1



UN Global Compact
리드그룹

2년 연속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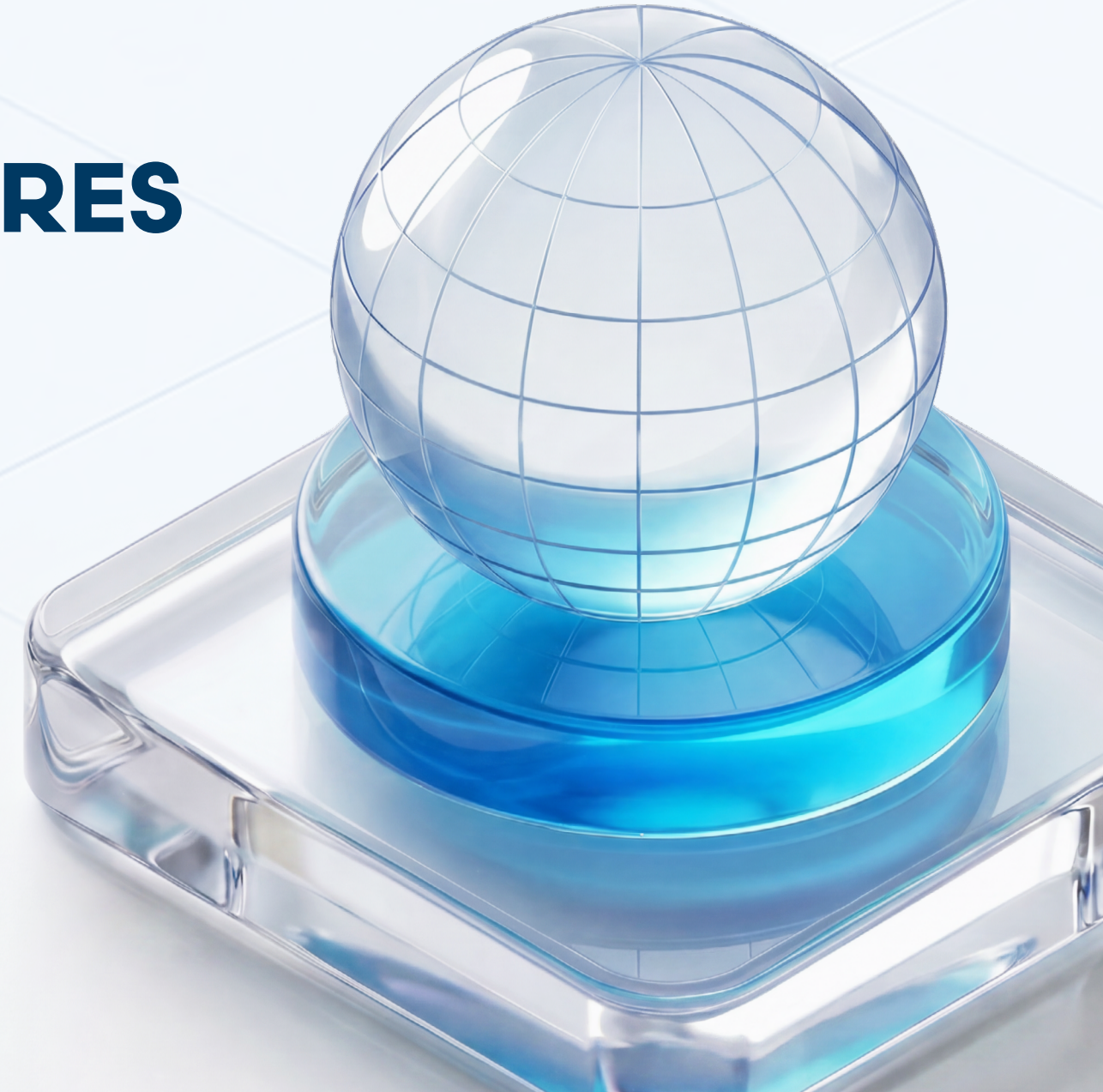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관리체계 구축

K- TAXONOMY

증권업계 최초 한국형 산업분류체계

NHICS 개발

FACTS & FIGURES



Planet 36
People 62
Principle 92





PLANET

기후 리스크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금융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 확대와 환경경영 기반 강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Green Transition Action 37
기후변화 대응 38
탄소금융 58
환경책임경영 59

Finance in Action for Climate Transition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이를 환경활동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통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리스크 관리와 투자 기준을 통해 저탄소 전환의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금융이 수행해야 할 전환의 역할입니다.
Green Transition Action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후위기를 구조적 리스크로 관리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하며, 지속가능한 시장 전환을 이끄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선언을 넘어 실체로,
금융이 만드는 탄소중립의 현장



01

기후 거버넌스

기후 리스크를 금융의 업으로 마주하다

과거의 기후 대응이 선언적인 캠페인에 그쳤다면, 이를 자본시장의 생존이 걸린 재무적 리스크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모호한 담론을 배제하고, 기후 변화가 자산 가치와 고객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기후 거버넌스를 전사 경영 체계에 통합하고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지표로 편입시킨 것은, 기후 대응을 '비용'이 아닌 '본업의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단단한 태도입니다.

02

탈탄소 전략

산업의 탈탄소를 돕는 실질적 가교가 되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 이상의 고통이 따릅니다. 고탄소 산업군이 겪는 현실적인 전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 솔루션을 설계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치화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외부적으로는 탄소 중립의 실질적인 동력을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성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의 속도를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03

환경경영 체계

내부부터 바뀌는 환경경영의 기본을 세우다

보여주기식 지표보다는 내실 있는 환경경영 체계의 표준화에 집중했습니다. ISO 14001 인증을 넘어, 환경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업무 환경을 확대하고 중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금융이 사회에 미치는 메시지는 결국 내부의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04

자연자본

자연과 공존하는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NH농협금융의 뿌리를 둔 NH투자증권에 자연은 지켜야 할 자산이자 미래의 터전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제 탄소 절감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의 복원이라는 더 넓은 과제에 주목합니다. TNFD 가입을 통해 자연자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연과 자본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의 흐름이 생태계의 복원력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움직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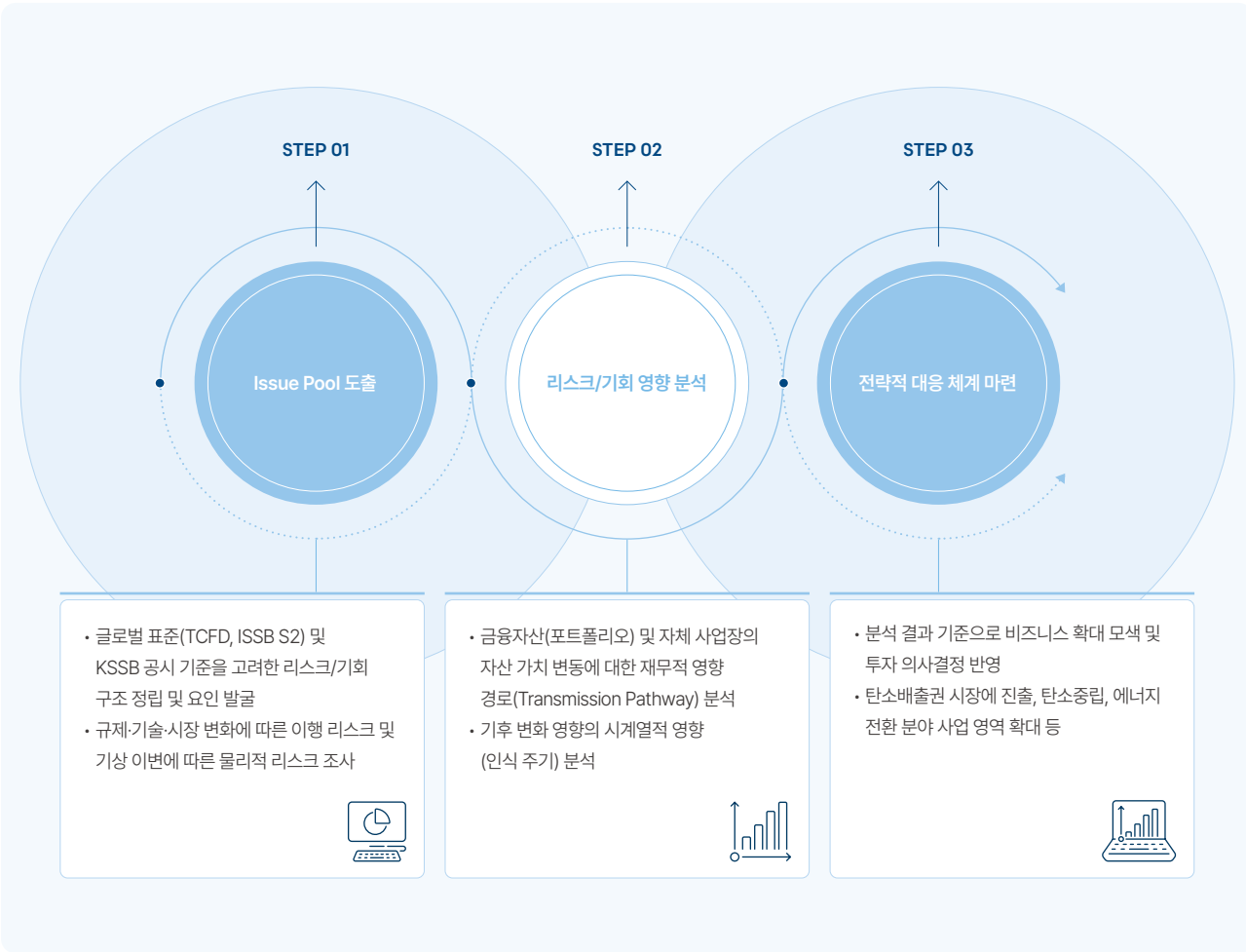
기후대응 전략은 그린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비즈니스 전환과 가치 성장의 기회를 발굴하는 데 있습니다. NH농협금융그룹의 탈탄소화 전략 방향성을 토대로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관리 자산 전반에 걸쳐 넷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행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ESG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ESG본부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기후 공시 업무를 담당하며, 리스크관리본부가 금융배출량 관리와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를 기반으로 TCFD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거버넌스 체계 관리, 대응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축, 지표·목표 관리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2025년 NH농협금융그룹 자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 체계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평가 항목에 5% 비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 사회적 가치 제고, 지속가능경영 공시 및 대외평가 대응, 지속가능 신사업 추진,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및 변화관리 등 주요 과제를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하여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식별 프로세스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인식·식별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TCFD 권고안에 기반한 리스크 인식·식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특성과 투자 주기를 반영하여 리스크 발생 시점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글로벌 표준 공시 기준을 고려하여 잠재적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다각도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각 요인의 재무적 파급 효과와 발생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며, 핵심 요인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ERM) 및 중장기 경영 전략에 통합하여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색금융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 및 기회 인식 주기

구분	기간	인식 기준 및 관리 중점	리스크 및 기회 대응 방향
단기	1년 이하	유동성 및 즉각적 운영 영향 관리	규제 준수 비용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단기 수익성 보호
중기	1년 이상 5년 이하	투자 회수 주기 및 비즈니스 전환 가속	고탄소 자산 리스크 관리 및 저탄소 기술·프로젝트 투자 확대
장기	5년 초과	계속기업 가정 및 전략적 회복탄력성 확보	만성적 물리 위험 방어 및 탄소중립 기반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

기후 리스크 및 기회 대응 방안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여 사업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잠재적 재무 영향 및 발생 시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전환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로, 정책 변화·기술 발전·시장 변화 등이 투자 대상 거래상대방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보유 자산의 재무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홍수·폭염·태풍 등 자연재해나 해수면 상승·생태계 변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자산 및 인프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영향 및 재무적 영향 분석과 함께 영업점 등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소금융부를 신설하여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녹색금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균형 있게 인식하여 내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한편, 금융배출량의 산정과 관리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 위험·기회 요인 분류 및 대응

위험요인 - 전환 리스크

정책·기술·시장 변화
- 정책 변화(탄소규제·공시의무)
- 기술 발전(저탄소 기술 전환)
- 시장 변화(소비자·투자자 선호)

재무적 영향
거래상대방 기업 가치 변동에 따른 보유 자산 평가 영향

위험요인 -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환경 변화
- 급성: 홍수·폭염·태풍
- 만성: 해수면 상승·생태계 변화
- 자산 및 인프라 직접 피해

재무적 영향
거래상대방 손실 및 영업점 등 자체 운영상 재무적 영향

기회요인 - 비즈니스 확대

탄소금융·녹색금융
- 탄소금융부 신설
-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사업 확대

전략적 활용
내부 배출량 감축 달성 및 금융배출량 산정·관리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위험 요인 분석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증권회사의 규모와 사업모형에서 시장, 투자, 평판위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책과 기술이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탄소 관련 규제 및 배출권 가격 변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재무적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친환경 저탄소기술로의 전환 요구에 따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상 재해 및 이상기후의 발생빈도 증가로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직접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거시적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리스크 요인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무적 영향을 정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위험 요인 분석

재무적 영향도 : 보통(○), 약간 높음(◉) , 매우 높음(●)

	위험 요인		잠재적 재무 영향	단기	중기	장기
물리적 리스크	급성	• 이상기후 증가 및 기상 이변 심각도 증가	• 기상 재해로 인한 자산 손상 및 담보 가치 하락 • 기상 재해로 인한 사업장 및 주요 시설 운영 중단으로 손익 영향 및 복구비용 발생	○	◉	◉
	만성	• 평균기온 및 해수면 상승 • 이상기후의 장기화 및 만성화	• 이상 기후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 • 이상 기후에 따른 냉난방비 등 시설운영비 증가		○	◉
전환 리스크	정책과 법률	• 탄소 관련 규제(유상할당 축소) 및 재생에너지 제도 강화로 인한 배출권 가격 인상 • 국외 기후 및 탄소 기반(CBAM 등) 수출입 환경의 변화	• 탄소배출권 및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 상승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 고객 및 투자사의 탄소배출권 부족 및 환경규제 노출 시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성 저하	○	◉	●
		•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후공시 의무 강화	• 제도 변화에 따른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배분 기준 변경 및 수탁 자산 변동성 확대			
	기술	• 친환경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비용 소모 •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로의 대체	• 자산 포트폴리오 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성과 변동 • 자산 포트폴리오 기업의 친환경 대응 미흡 시 중장기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		◉	◉
	시장	• 고객 행동 변화 •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상승	• 친환경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에 따른 전통적 Cash Flow 자산에 대한 선호도 저하 • 친환경경영 대응에 따른 고객 및 투자사의 증권서비스 및 자금조달 선호도 변화 •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	◉	●
	평판	• 고객의 선호도 변화 •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 부정적인 이해관계자 피드백 증가에 따른 기업 평판 하락 및 자본 유입 감소 • 그린워싱 이슈 제기로 ESG 평가등급 하락 및 자본 유입 감소		○	◉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기회 요인 분석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은 조직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후변화가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상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 기후대응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고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증권사의 주요 사업모형인 주식 및 채권 자금 조달에 재무적 리스크를 줄 수 있지만, 자금중개 전문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회 요인 분석

재무적 영향도 : 보통(○), 약간 높음(◉) , 매우 높음(●)

기회 요인		잠재적 재무 영향		단기	중기	장기
자원 효율성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친환경 운송 수단 확대 • 순환경제 관리체계 개선	•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따른 재무적 지출 절감 • 자원 효율성 제고, 순환경제전환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	◉
에너지 자원	•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 • 탄소시장 참여	• 재생에너지 전환 사용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 탄소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자산군 확보		○	◉	◉
제품 및 서비스	•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 확대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상품·솔루션 개발	• 친환경 투자상품 수요 증가 • 탄소감축을 위한 대고객 솔루션 제공 확대		○	◉	●
시장	• 녹색금융 시장 확대 •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이행, 친환경 기업 투자 기회 증가 • 친환경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			◉	●
회복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효율 개선 • 자산 포트폴리오 인게이지먼트	• 복원력 확보에 관련된 금융서비스 및 자금 공급을 통한 수익 강화 • 자산 포트폴리오 기업 지속가능경영 역량 지원을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	●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위험·기회 절충 분석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 간 상충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장기 사업전략 및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성과 장기 지속가능성 간 균형, 기존 고탄소 자산 관리와 녹색금융 확대 간 자원 배분, 전환 리스크 노출 축소와 전환금융 지원을 통한 시장 기회 포착 사이의 절충을 핵심 의사결정 영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충 요인은 지속가능협의회 및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이사회 보고를 통해 전사 전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위험·기회 간 절충 분석

01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 요인
- 고탄소 자산의 좌초자산화 및 평판 저하 위험

기회 요인
- 저탄소 자산 편입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절충 고려사항
- 기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 운용과 녹색자산 확대 간 단계적 전환 추진

02
금융상품 운용

위험 요인
- 탄소비용 증가에 따른 투자 기업 수익성 저하

기회 요인
- 친환경 상품·ESG 펀드 수요 확대

절충 고려사항
- 전통 상품 Cash Flow 감소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신규 ESG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 추구

03
물리적 리스크 대응

위험 요인
- 이상기후로 인한 자산·투자 손실

기회 요인
- 기후변화 대응 상품·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

절충 고려사항
- 단기적 위험 헤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산 안정성 확보

04
탄소배출권 투자

위험 요인
- 가격 변동성 및 정책 불확실성

기회 요인
-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 자산 가치 증대

절충 고려사항
- 단기 평가손익 변동을 감수하고 장기 자산가치 상승 기회 포착

05
회복력

위험 요인
- 기후 충격 대응을 위한 추가 자원 투입 부담

기회 요인
- 자산 다각화·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절충 고려사항
- 단기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장기 규제 대응력과 고객 신뢰 확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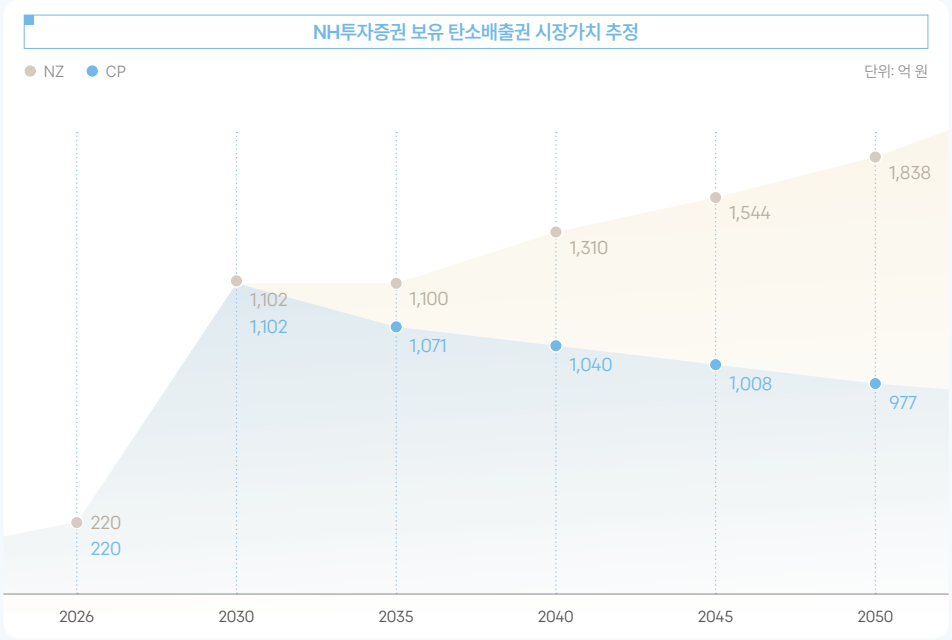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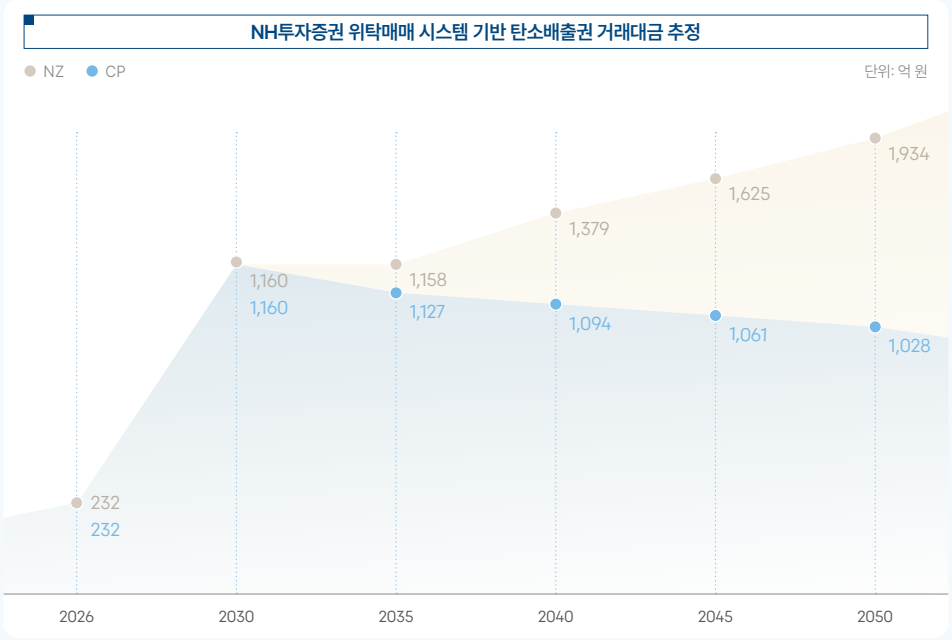
탄소배출권 시장 기회 분석

2024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를 출시하여 거래중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기회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배출권 가격 및 거래대금, 배출권 보유수량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NGFS 탄소가격 예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현재 보유한 탄소배출권의 2050년 시장가치는 약 977억에서 최대 1,838억 원까지,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는 약 1,028억에서 최대 1,934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배출권 시장가치 및 거래대금 추정 결과



- 기준보유량: 220억원/215만 톤 기준(2025년 기준)
- 산출식: 기준보유량(215만 톤) 기반 연도별 탄소가격 증가량에 따라 2050년 탄소배출권 보유량의 시장가치 추정 (NGFS 제공 Ver.5 NZ, CP 시나리오 적용)(*보유량은 KAU, iKOC 22-27, KOC 24-29 단위 총합)
- 제한사항: 탄소금융 사업 방향성에 따라 탄소배출권 보유수량 변동 가능



- 기준거래량: 232억원/142만 톤 가정 ('25.11.24~'26.04.24까지의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2026년 연도말까지의 거래대금 추정)
- 산출식: 기준거래량(142만 톤) 기반 연도별 탄소가격 증가량에 따라 2050년 예상 거래규모 추정 (NGFS 제공 Ver.5 NZ, CP 시나리오 적용)
- 제한사항: 동종업계 탄소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시장점유율에 따라 거래규모 변동 가능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중요성 평가

본격적인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앞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대상 자산 중 기후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업종인 CPRS[1]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기후정책 연관 업종별로 주요 변수(에너지량, 에너지가격)를 설정하여 NGFS[2] Phase 3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되는 에너지비용을 충격 수준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후시나리오 분석은
① 기후 시나리오 생성
② 기후 리스크의 금융 리스크 변환
③ 금융회사 손실 측정 단계로 수행합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STEP 01 데이터 수집
중요성 평가를 위한 내부배출량 측정 결과 데이터와 외부 필요 데이터 수집

STEP 02 기준 적용
내부 배출량 측정 결과 내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와 NACE[3]코드를 Mapping KSIC[4]-NACE-CPRS-NGFS 시나리오 Variable 통합

STEP 03 노출비중 산출
CPRS 업종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예상 영향 수준 산출

NACE – CPRS - NGFS 변수 Mapping 예시

NACE Code	CPRS Main	NGFS Variable
B.05.10 (Mining of hard coal)	1-fossil-fuel	Primary Energy Coal
D.35.11 (Production of electricity)	2-utility	Secondary Energy Electricity, Gas
C.24.51 (Casting of iron)	3-energy-intensive	Production Steel

중요성 분석 결과

중요성 분석 결과, 2025년 말 기준연도 대비 2050년 예상 배출량이 최대 14.3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CPRS 섹터	기준연도 (2025.12)			2050년 영향도		
	잔액	잔액비중	배출량 비중	Current Policies	Delayed Transition	Net Zero2050
1-fossil-fuel	5,547억원	2.9%	21.3%	0.8배	0.6배	0.6배
2-utility	907억원	0.5%	9.0%	1.4배	19.5배	10.5배
3-energy-intensive	1조 2,705억원	6.6%	34.9%	5.0배	34.5배	18.4배
4-buildings	1조 127억원	5.3%	7.9%	0.9배	1.0배	1.0배
5-transportation	5,157억원	2.7%	2.0%	1.9배	3.3배	3.1배
6-agri. etc	6억원	0.0%	0.0%	1.0배	1.0배	1.0배
합계	3조 4,452억원	18.0%	75.1%	2.9배	18.7배	10.2배
미대상	15조 7,098억원	82.0%	24.9%	1.0배	1.0배	1.0배
합계	19조 1,550억원	100.0%	100.0%	2.4배	14.3배	7.9배

1) CPRS(Climate Policy Relevant Sectors)란 2017년에 개발된 Transition Risk 평가를 위한 산업 분류 코드로, 유럽 내 기후 전환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Exposure를 평가하는 데 사용
2)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란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금융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
3) NACE(Nomenclature statistiqu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란 유럽연합(EU)의 경제 활동을 표준화하고 비교하기 위한 산업 분류 체계로 기후 전환 리스크 평가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 사용
4) KSIC(Korea Standard Industrial Code)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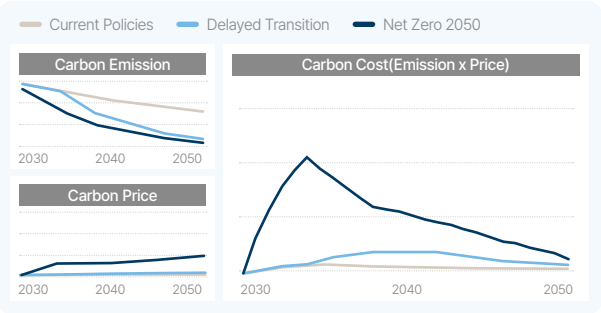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하여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위험에 노출된 자산을 설정하여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재무적인 영향 수준을 산출합니다.

분석은 3단계의 프로세스로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 79.8조 원 중 국채·지방채와 단기성 자산을 제외하고 약 13.5조 원(17.0%)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채택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가산 부도율을 산출하고, 부도율 변동 수준과 예상 손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피해 극복과 기능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후 회복탄력성 분석도 병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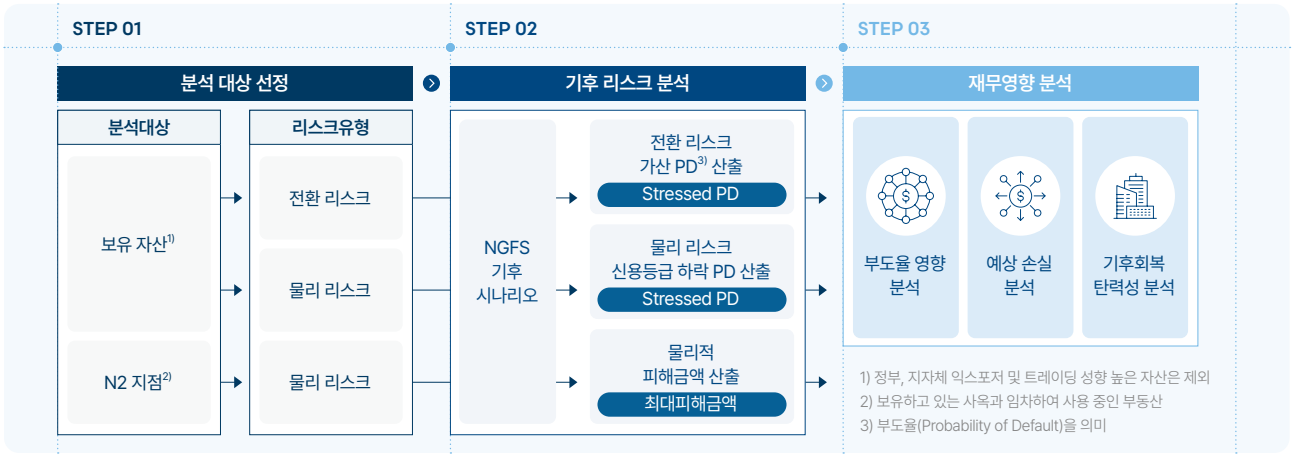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고도화

2025년에는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기후 리스크 중요성 평가 기준을 업종별 취약성 분석에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의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기후 시나리오별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등급을 기초로 등급 하락폭을 재정의하여 자산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리스크 전이 경로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재무적 영향 분석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시나리오별 부도율(PD) 및 예상손실 정보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NGFS 시나리오별 탄소비용 추세



기후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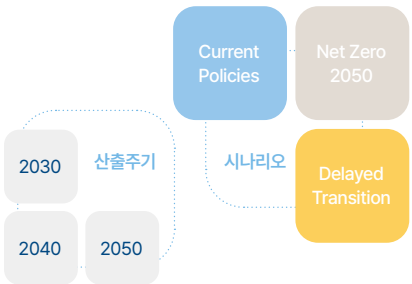


기후 시나리오 채택

NGFS 시나리오

이행경로	시나리오	가정사항
뜨거운 지구 (Hot House World)	Current Policies	• 현재 구현된 정책이 지속됨
	NDC Scenario	• 각 국 정부가 발표한 모든 정책이 구현되지 않음
무질서한 전환 (Disorderly)	Delayed Transition	• 2030년까지 연간 배출량 감소 없으며, 이후 강력한 정책 실행으로 2°C 이하를 목표로 함
	Divergent Net Zero	• 2050년경 Net Zero에 도달하나, 비일관적인 정책으로 비용이 높아져 석유 사용이 빠르게 중단
질서있는 전환 (Orderly)	Below 2°C	• 기후 관련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온도 증가 2°C를 67% 가능성으로 달성
	Net Zero 2050	• 2050년 넷제로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기후 정책과 혁신을 즉시 실행

시나리오 적용



금융감독원이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로 제시한 대표 시나리오인 Current Policies, Delayed Transition, Net Zero 를 채택하였으며, 산출 주기를 10년 단위로, 2050년까지 산출함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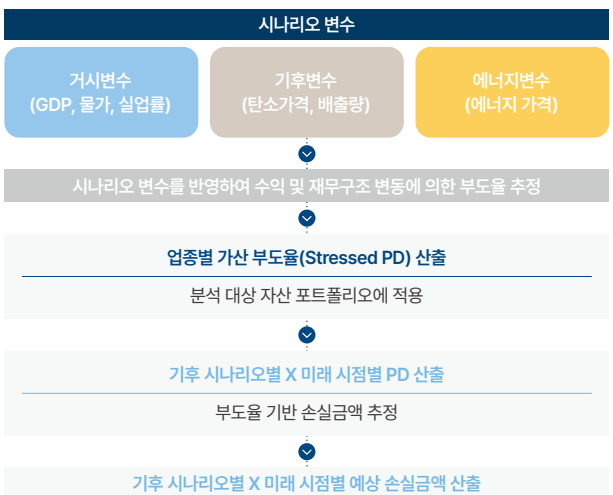
전략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방법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수익 및 재무구조 변동에 따른 부도율 추정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NGFS 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기후변수·거시변수·에너지변수를 적용하여 업종 단위의 가산 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분석 대상 자산에 적용하여 최종 예상 부도율을 도출하였습니다.

부도율 산출에 적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수로는 탄소배출량과 탄소가격, 거시변수로는 GDP·물가상승률·실업률, 에너지변수로는 석탄·가스·석유 가격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변수들은 부도율 추정의 정확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으며, 향후 방법론 고도화를 통해 추가 변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된 부도율에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의 예상 손실금액을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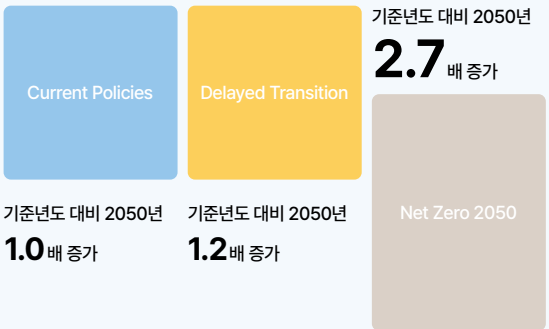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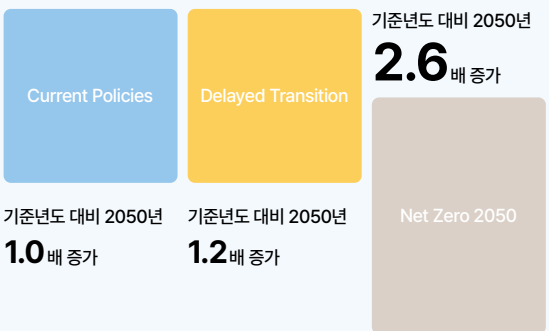
전환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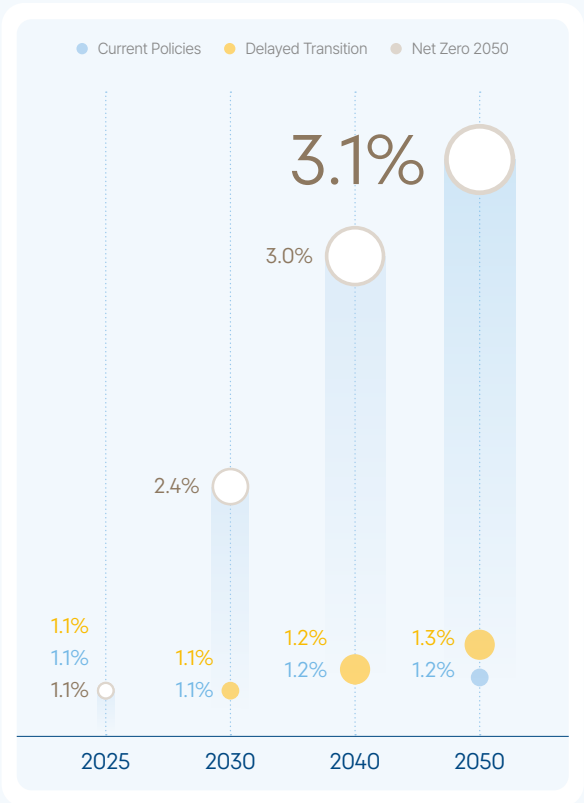
전환 리스크의 부도율 영향은 NZ, DT, CP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NZ 시나리오에서 2025년 대비 2050년에 최대 2.7배 부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전환 리스크에 따른 예상 손실금액은 NZ 시나리오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연도의 부도율로 추정한 손실금액 대비 2050년 누적 손실금액은 최대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별 예상 부도율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수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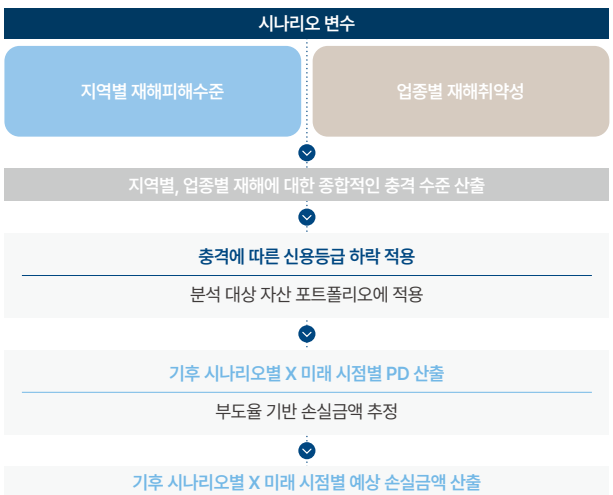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전략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방법

평균온도 상승과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충격이 실물 경제 및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재해취약성과 지역별 피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충격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변동 부도율(PD)을 산출하였으며, 시나리오 변수로는 금융감독원이 NGFS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시한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 수준 데이터를 업종별 재해취약성 수준과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된 부도율에 부도 시 손실률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의 예상 손실금액을 분석하였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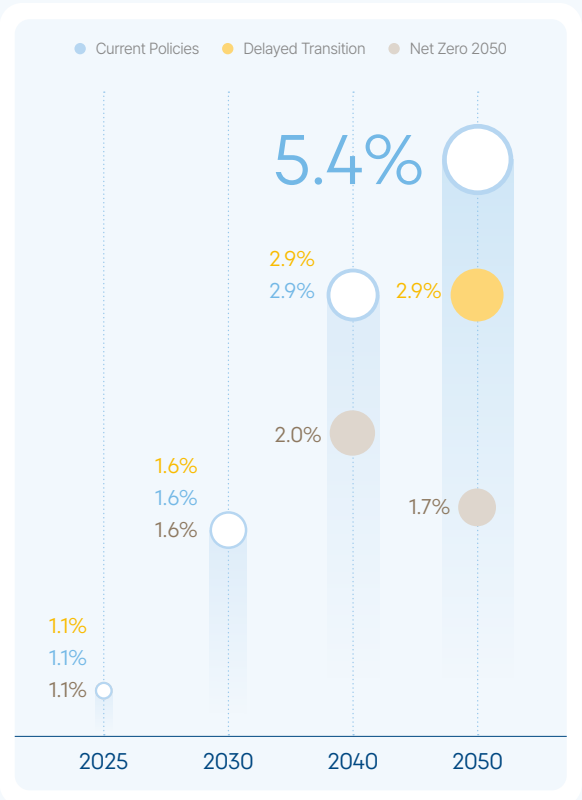
물리적 리스크의 부도율 영향은 CP, DT, NZ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CP 시나리오에서 2025년 대비 2050년에 최대 4.8배 부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예상 손실금액은 CP 시나리오에서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연도의 부도율로 추정한 손실금액 대비 2050년 누적 손실금액은 최대 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별 예상 부도율 분석 결과

Current Policies	Delayed Transition	Net Zero 2050
기준년도 대비 2050년 **4.8**배 증가	기준년도 대비 2050년 **2.5**배 증가	기준년도 대비 2050년 **1.5**배 증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수준 분석 결과

Current Policies	Delayed Transition	Net Zero 2050
기준년도 대비 2050년 **3.2**배 증가	기준년도 대비 2050년 **2.2**배 증가	기준년도 대비 2050년 **1.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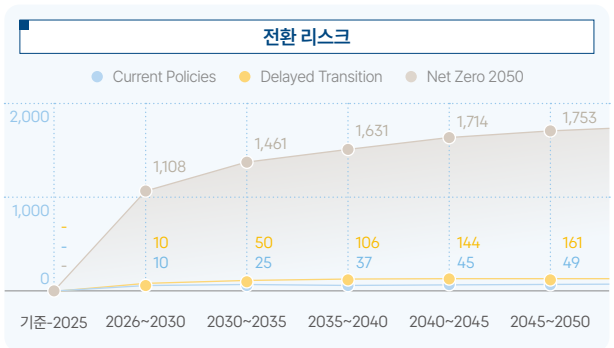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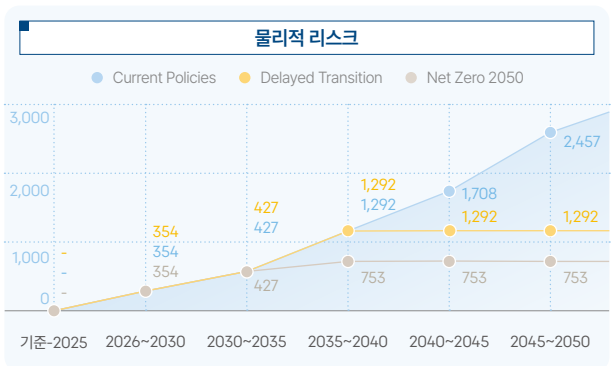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종합 결과

전환 리스크는 NZ 시나리오에서, 물리적 리스크는 CP 시나리오에서 각각 가장 높은 손실금액이 나타났습니다. 두 리스크를 비교하면 단기적으로는 전환 리스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2045년 이후에는 물리적 리스크의 예상 손실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나리오별 누적 예상 손실금액 단위: 억 원





RCP 기반 물리적 리스크 추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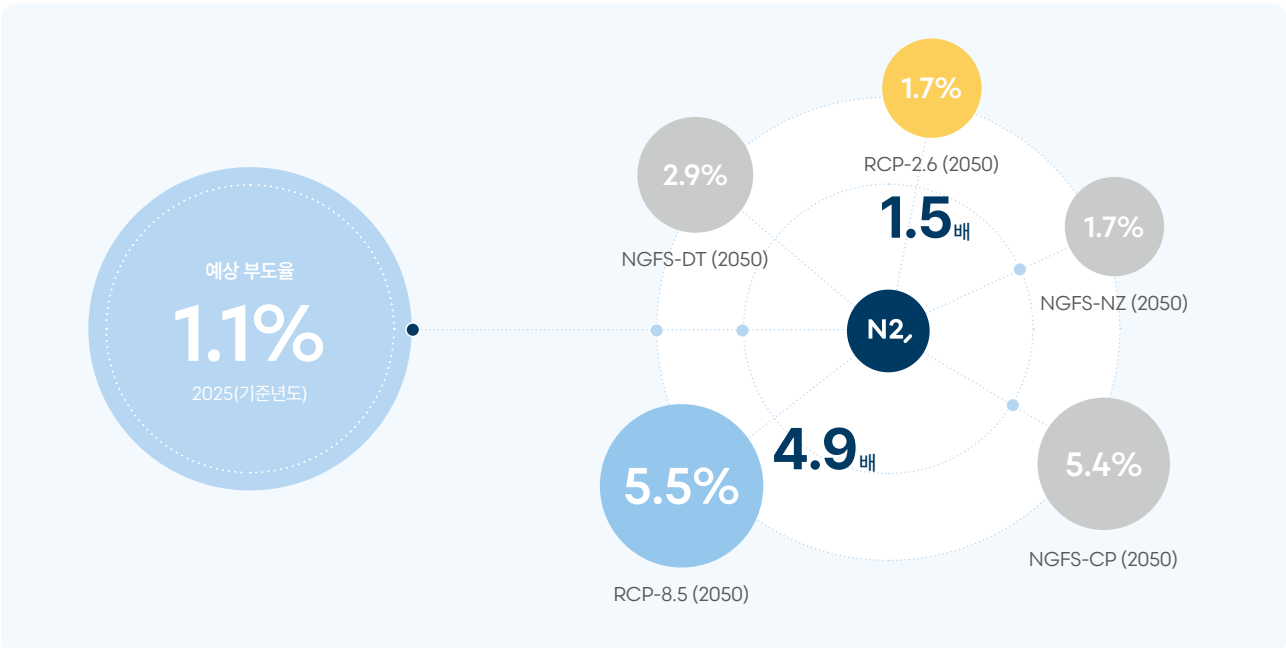
NGFS 시나리오 기반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하고자 IPCC가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평가에 활용하는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 모두 NGFS 시나리오를 기본 분석 체계로 채택하였으나, 다양한 가정 조건에서의 영향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RCP 시나리오를 병행 적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RCP-8.5 시나리오를 적용한 영향 수준은 앞서 NGFS 시나리오 분석에서 도출된 CP 시나리오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RCP(대표농도경로)란?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경로를 구분한 시나리오로 주로 물리적 리스크 영향 분석에 활용됩니다. '대표'는 다양한 경제·사회 시나리오 가능성 반영, '경로'는 배출량의 변화,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 흡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RCP-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가정한 Worst 시나리오
RCP-2.6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여 온실가스 농도를 2°C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부도율 변화



기후변화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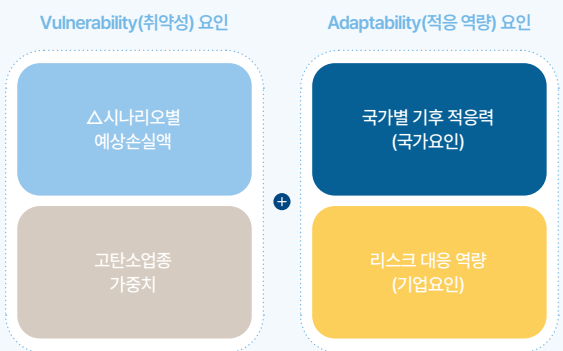
기후 회복탄력성 관리체계

기후 회복탄력성 분석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위험과 충격에 대해 회사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기후 시나리오별 자산 취약성(Vulnerability)과 충격에 대한 적응 역량(Adaptability)을 통합한 기후 회복탄력성(Resilience) 분석 방법론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통합 회복탄력성 지수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Threshold)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위기 속에서도 자산 운용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약성 평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예상 손실액의 변동성에 고탄소 업종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산의 기후 리스크 취약성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적응 역량 평가:
익스포저(Exposure)가 속한 국가별 기후 적응 지수(국가요인)와 당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기업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합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 분석 방법론



회복탄력성 분석 프로세스

STEP 01 시나리오 분석 결과
- NZ, DT, CP 3개 시나리오에 대한 기후 리스크 값을 기준으로 2050년 예상손실액의 변화값

STEP 02 데이터 수집
- 국가요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속한 국가별 기후적응요인 반영
- 기업요인: 당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대응 역량 반영

STEP 03 가중치 부여
- 취약성: 중요성 평가 결과 고탄소업종에 대한 집중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적응성: 익스포저 귀속국가 및 당사 기후 리스크 대응역량에 대해 각각 가중치 부여

기후 회복탄력성지수 구간 설정

시나리오별로 산출된 회복탄력성 지수의 분포를 기반으로 상대적 리스크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체계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통계적 변별력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후 회복탄력성 등급 및 정의

등급	정의
정상	적응 역량이 우수하고 재무적 영향 통제 가능한 수준
관찰	평균 수준의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변동성 존재
주의	사전 대응체계 수립 및 포트폴리오 관리방안 모색 필요

시나리오별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2050년 NZ 시나리오 하에서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준수한 회복탄력성을 확인하였으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 지수는 '주의'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50년 기준 시나리오별 회복탄력성 등급

시나리오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CP	주의	정상
DT	주의	정상
NZ	**관찰**	**주의**

기후 회복력 대응 전략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정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통해 전사 차원의 기후 회복력을 관리하고, 친환경 기술 산업·저탄소 전환 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당사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충격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고, 시나리오 업데이트 및 데이터 축적에 따른 방법론 고도화를 통해 측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전사 사업장[1] 대상 물리적 리스크 분석

물리적 리스크는 보유 투자자산뿐만 아니라 사옥 및 영업점 등 업무 공간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 및 임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개년 자연재난 시도별 피해 및 건물 피해 통계청 자료와 2025년 12월말 기준 국내 보유 영업점 및 사옥 현황을 반영하여 기후 시나리오별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분석은 NGFS에서 제시하는 7개 시나리오 중 대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 CP 시나리오에서 피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보유 사옥, 본사,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인재원, IDC 등을 포함

전사 사업장의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01 지역별 평균 피해금액 및 VaR[2] 추정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 Simulation을 통해 지역별 평균 피해금액 정규분포화

02 시나리오의 지역별 민감도 산출

물리적 리스크 분석 모델 적용

- 미래 자연재해에 대한 민감 수준의 증가폭 추정
- 시나리오별 민감 수준 추정

03 사옥 및 영업점의 손실가능 금액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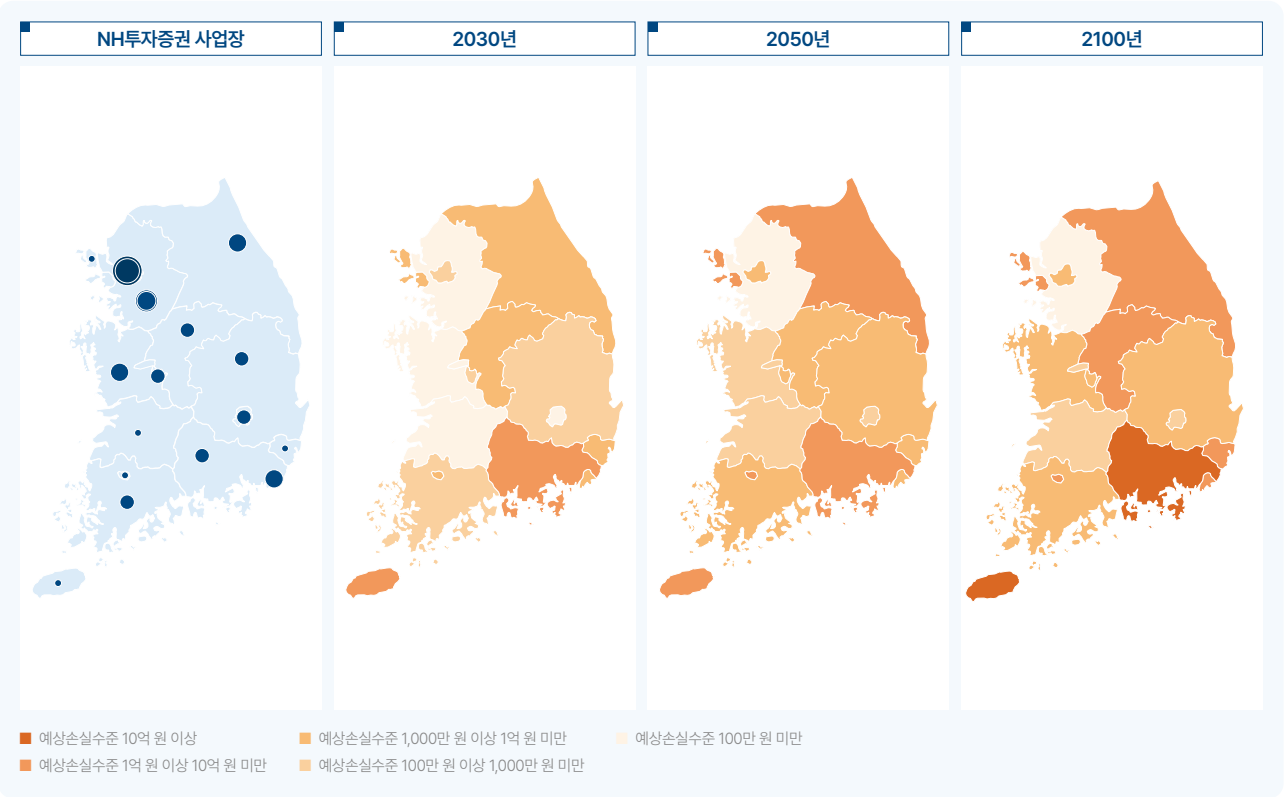
- 시나리오별/지역별 민감 수준을 적용해 최대 손실가능 금액 추정

2) VaR(Value at Risk): 특정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규모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수치

전사 사업장 대상 물리적 리스크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피해 수준은 델타노말 VaR 추정방법, 평균 피해금액 기준 추정방법, 지역별 민감배수 추정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2100년까지 최대 66.3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유 및 임차 건물 전체에 대해 재산종합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실제 재무적 손실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지도_NH투자증권 전사 사업장



기후변화 대응

리스크 관리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리·시장·신용 등 전통적 리스크 유형 외에도, 기후 리스크를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배출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와 기후 리스크가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 관리 두 측면에서 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기후 리스크 노출 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리스크가 회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관리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 투자자산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측정·관리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그룹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산출을 위해 그룹 공동으로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매 분기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권고안과 대표농도경로(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등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의 위험관리 프로세스 내 통합 관리

기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기후 리스크를 포함하고, 리스크의 인식, 측정 및 평가, 모니터링 및 관리,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기후 리스크를 토대로 고탄소 자산 신규 인수·보유시 금융배출량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필요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고탄소 자산에 대한 감축은 각 사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 Framework

STEP 1. 리스크 식별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및 기존 리스크로의 전이 경로 분석
- 전이로 인해 NH투자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도출



STEP 2. 리스크 평가

- 탄소배출량(Scope 3) 측정 및 분석
- 업종별 익스포저, 금융배출량, 배출집약도 현황 및 추이 분석
- 기후 시나리오 기반 영향 분석 수행



STEP 3. 모니터링 및 보고

- 고탄소 업종 및 투자배제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및 경영진 보고



STEP 4. 리스크 대응 및 완화

- 기후 리스크 관련 내부 규정 및 관리 정책 마련
- 고탄소 익스포저 축소 및 재무영향 최소화 계획 수립
- 기후-금융 리스크 통합관리 전략 수립 및 실행



기후 리스크의 금융 리스크 전이 과정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지표

운영 통제 기준에 따른 조직 경계 설정과 배출 항목별 산정 기준, 내부 매뉴얼을 통해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준 및 지침과 매개변수는 GHG Protocol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Scope 1·2 배출량에는 온실가스 3종(CO_2, CH_4, N_2O)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기반 내부 배출량(Scope 1·2)은 2023년 8,052.3tCO_2eq에서 2024년 7,333.9tCO_2eq, 2025년 6,667.4tCO_2eq로 2개년 연속 감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및 지침

01 내부 배출량 (Scope 1·2)

측정 항목

- 본사 및 임차 사무실의 직접 연소 에너지 사용
- 본사 및 임차 사무실의 구매 전력 등 간접 에너지 사용
- 업무용 차량 운행에 따른 연료 소비

기준 및 지침

- WRI/WBCSD GHG Protocol (2004)
-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6)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2025)

02 기타 간접 배출량 (Scope 3)

측정 항목

- 용지, 카드, 상수도 등 제품·서비스 구매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
-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 임직원 출장 시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기준 및 지침

-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매개변수

구분		매개변수
Scope 1	고정연소	• 활동자료: 도시가스(LNG) 사용량 • 발열량: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 배출계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2021)
	이동연소	• 활동자료: 경유, 휘발유 사용량 • 발열량: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 배출계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 (2025)
Scope 2	전력	• 활동자료: 전기 사용량, 녹색프리미엄/REC 구매량 • 배출계수: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 (2025)
	열(스팀)	• 활동자료: 열(스팀) 사용량 • 배출계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2021)
Scope 3	Category 1 (구매한 제품/서비스)	• 활동자료: 용지 사용량, 법인/체크카드 발급량, 용수 사용량 • 배출계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 (2021)
	Category 5 (사업장 폐기물)	• 활동자료: 폐기물 발생량 • 배출계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 (2021)
	Category 6 (임직원 출장)	• 활동자료: 임직원 출장 수단, 이동거리 • 배출계수: U.S. EPA GHG Emission Factors (2025)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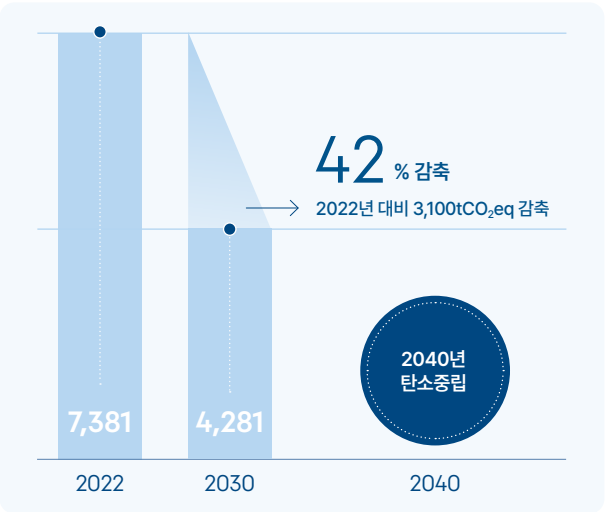
내부 배출량 감축 목표

NH농협금융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준용하여 내부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42% 감축, 204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며, 그룹 지침을 기반으로 사업 특성과 운영 환경을 반영한 감축 이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장기반 내부 배출량(Scope 1·2)은 기준연도인 2022년 대비 약 20.9% 감축하였으며, 2025년 내부 배출량 목표 대비 177.9tCO$_2$eq 하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력 사용 효율화, 재생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한 결과입니다.

내부 배출량 중장기 목표

단위: tCO$_2$eq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결과[1]

배출량: tCO$_2$eq, 배출 원단위: tCO$_2$eq/m^2

구분		산정범위	NH투자증권			NH선물[2]			NH헤지자산운용[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Scope 1 배출량	도시가스(LNG)	본사	249.0	262.4	271.4	28.2	38.7	41.6	N/A	N/A	N/A
		영업점, 인재원	265.4	279.3	277.2						
	휘발유	이동연소	367.7	285.7	308.3						
	경유	이동연소	5.3	2.7	2.1						
	합계		887.4	830.1	859.0						
Scope 2 배출량	전력	본사	2,195.2	2,033.5	1,853.3	100.6	102.3	97.6	16.8	17.3	15.6
		영업점, 인재원, 어린이집	2,605.6	2,348.8	2,097.2						
		IDC	1,528.0	1,520.6	1,339.0						
		이동연소	3.6	7.1	5.4						
	스팀	영업점	21.7	29.7	21.1						
	합계 – 지역기반[3]		6,354.1	5,939.7	5,316.0						
	합계 – 시장기반[4]		6,320.6	5,617.8	4,980.0						
Scope 3 배출량[5]	용수	전사	13.9	15.8	15.1	N/A	N/A	N/A	N/A	N/A	N/A
	용지	전사	65.9	66.4	69.6						
	카드	전사	0.1	0.2	0.1						
	폐기물	본사	236.3	218.1	141.4						
	출장	본사	492.5	533.7	544.9						
		영업점	35.6	51.9	57.3						
	합계		844.3	886.0	828.3						
지역기반[3]			8,085.8	7,655.8	7,003.3	128.8	141.0	139.2	16.8	17.3	15.6
시장기반[4]			8,052.3	7,333.9	6,667.4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6] Scope 1		본사	0.0108	0.0096	0.0101	N/A	N/A	N/A	N/A	N/A	N/A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6] Scope 2		본사	0.0382	0.0354	0.0322						

1) WRI/WBCSD GHG Protocol 및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산정
2) Scope 1 배출량은 이동연소(휘발유), Scope 2 배출량은 본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3) 국가 전력망 기준으로 산정한 지역 기반(Location-based) Scope2 배출량
4) REC 및 녹색프리미엄 구매량 반영한 시장 기반(Market-based) Scope2 배출량(REC 구매를 통한 감축 배출량 335.9tCO$_2$eq)
5) Scope 3 산정 시 용수는 실사용량 및 추정사용량(면적), 용지는 프린터 사용량, 카드는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량, 폐기물은 전국 혼합배출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소각·매립) 비중, 출장은 임직원의 출장기록을 바탕으로 산정. 용수, 카드, 용지 사용 및 폐기물에 따른 배출량은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출장에 따른 배출량은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기준에 따라 산정
6) 본사 사옥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에너지 사용량 관리 지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로드맵을 바탕으로 전사적 에너지 절감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에너지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사용량 추이를 점검한 결과, 2025년 총 에너지 사용량은 61,461.2GJ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12.4GJ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너지 절감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효율화에 방점을 둔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관리 목표

내부배출량 감축과 연계하여 에너지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매년 절감 성과를 반영한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 인프라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감축 성과

단위: GJ

구분	2023	2024	2025
총 에너지 사용량	65,124.4	61,973.6	61,461.2
목표	65,217.7	62,660.9	61,595.6
목표대비 감축량	93.3	687.3	134.4

에너지 사용량 측정 결과

사용량: GJ, 사용 원단위: GJ/m²

구분		산정범위	NH투자증권			NH선물[1]			NH헤지자산운용[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총 에너지 사용량			65,124.4	61,973.6	61,461.2	2,520.0	2,713.0	2,658.0	131.6	135.4	134.8
간접 화석에너지 사용량	전력[3]	본사	17,201.9	15,934.5	15,988.3	2,101.0	2,138.0	2,039.0	131.6	135.4	134.8
		영업점, 인재원, 어린이집	20,417.4	18,405.4	18,092.3						
		IDC	11,973.7	11,915.9	11,551.3						
	도시가스(LNG)	본사	4,548.9	5,166.2	5,343.9	N/A	N/A	N/A	N/A	N/A	N/A
		영업점, 인재원	5,228.2	5,502.2	5,460.0						
	스팀	영업점	363.4	496.8	353.3						
이동연소	휘발유, 경유	본사	5,362.4	4,496.7	4,625.8	419.0	575.0	619.0			
	전력[3]	본사	28.4	55.8	46.3	N/A	N/A	N/A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사용량			262.8[4]	6,122.5[5]	8,657.9[6]	N/A	N/A	N/A	N/A	N/A	N/A
에너지 사용 원단위[7] Scope 1		본사	0.1752	0.1641	0.1731	N/A	N/A	N/A	N/A	N/A	N/A
에너지 사용 원단위[7] Scope 2		본사	0.2991	0.2775	0.2784						

1) 본사 전력 사용량과 이동연소 휘발유 사용량
2) Parc.1 건물 임대차 면적에 대한 전력 사용량으로, NH투자증권으로부터 매월 청구받는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3) 간접에너지(전력) 발열량은 GHG Protocol Guidance 기준(3.6MJ/kWh) 적용으로 국내 총발열량 기준(9.6MJ/kWh)과 차이 발생 가능
4)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REC 구매
5)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REC 구매 및 태양광 기반 녹색프리미엄 구매
6)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기반한 REC 구매 및 태양광 기반 녹색프리미엄 구매
7) 본사 사옥 계약면적 기준으로 에너지 원단위 산정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RE100 이행 전략 및 전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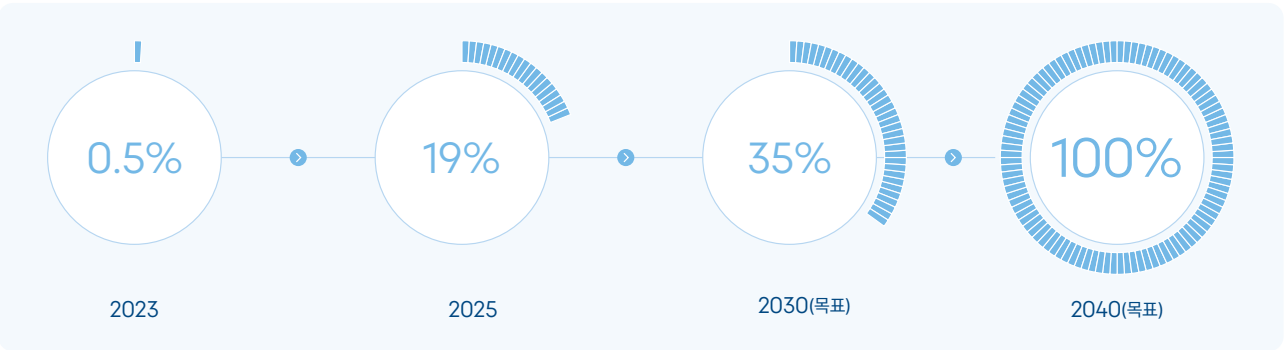
2023년 11월 K-RE100[1]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와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하여 전체 전력 사용량의 19.0%[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에는 CoREi(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자발적 목표 수립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장 동향, 정책 변화, 내부 경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 협력을 통해 전환 수단의 확보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융배출량 관리 지표

금융기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배출량(Scope 1·2)보다 금융배출량(Scope 3-C.15)의 비중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PCAF 방법론을 적용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내 친환경 자산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금융배출량은 148.7만tCO_2eq로 전년 대비 약 21.3만tCO_2eq 감소하였으며, 금융집약도는 2023년 18.1tCO_2eq/억 원에서 2025년 7.6tCO_2eq/억 원으로 개선되어 2개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E100 이행 로드맵



1)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내 캠페인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의 한국형모델
2) 2025년 전체 전력 사용량 12,688MWh 대비 2,405MWh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3]

잔액: 억 원, 배출량: 만 tCO_2eq, 집약도: tCO_2eq/억 원

구분	2023			2024			2025		
	잔액	금융배출량	금융집약도	잔액	금융배출량	금융집약도	잔액	금융배출량	금융집약도
상장주식	728.8	2.3	31.7	577.1	1.3	23.6	835.3	0.5	6.0
회사채	80,364.5	170.1	21.2	91,052.9	99.9	11.0	144,497.7	64.3	4.4
기업대출	20,526.5	13.6	6.6	35,039.6	14.8	4.2	28,116.4	17.0	6.0
비상장주식	14,736.7	21.2	14.4	14,934.8	45.2	30.3	18,100.9	64.0	35.4
인프라PF	N/A	N/A	N/A	N/A	N/A	N/A	N/A	N/A	N/A
오브젝트 금융	164.9	0	1.3	N/A	N/A	N/A	N/A	N/A	N/A
상업용 부동산	1,515.3	0.1	0.3	858.6	0	0.1	4,188.3	0.1	0.4
소계	**118,036.7**	**207.3**	**17.6**	**142,463.0**	**161.2**	**11.3**	**195,738.6**	**145.9**	**7.5**
정부 익스포저	4,229.4	13.8	32.6	2,690.4	8.8	32.7	1,120.4	2.8	25.3
합계	**122,266.1**	**221.1**	**18.1**	**145,153.4**	**170.0**	**11.7**	**196,858.9**	**148.7**	**7.6**

3) 금융집약도는 금융배출량(tCO_2eq)을 피투자·피여신 기업의 잔액(억 원)으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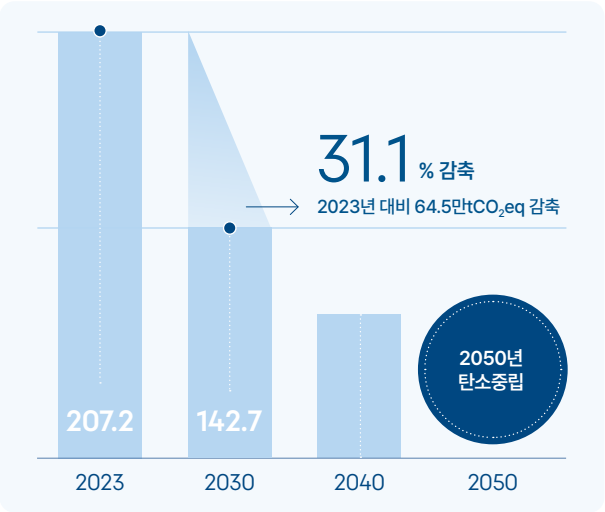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NH농협금융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준용하여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목표는 국가 NDC 감축경로를 반영해 2030년까지 2023년 금융배출량 대비 31.1% 감축[1]이며, 2040년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지향합니다. 감축 목표는 정부 익스포저를 제외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와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금융배출량 실적은 145.9만tCO_2eq[2]으로 전년 대비 약 9.5% 감축되어, 2030년 목표 142.7만tCO_2eq 달성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금융배출량 중장기 목표 단위: 만tCO_2eq



1) NH농협금융그룹은 2021년 SBTi 인증을 통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NH투자증권의 2030년 목표를 2021년 대비 24.2% 감축으로 설정. 탄소배출량 공시 기업 증가로 인해 최초 측정 대비 금융배출량이 증가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목표 재설정
2) 금융배출량 목표는 정부 익스포저(국채)를 제외한 기준으로 수립하여, 목표 대비 실적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금융배출량 데이터 신뢰도

금융배출량 데이터는 피투자회사의 공시 탄소배출량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측정하며, 신뢰도는 PCAF 기준 데이터 품질 점수(Data Quality Score)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자료에 기반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데이터 품질 점수[3]는 Scope 1 평균 2.52점, Scope 2 평균 2.62점, Scope 3 평균 3.32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전 Scope에서 점수가 개선되어 데이터 산출 기반의 신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금융배출량 데이터 품질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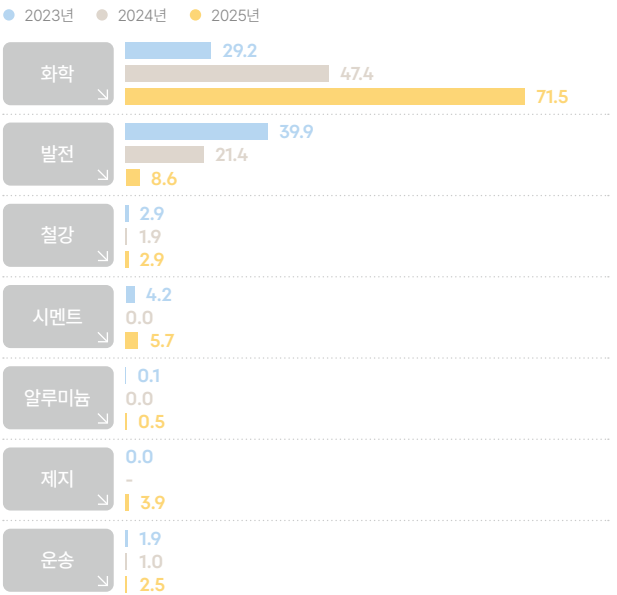
구분	Scope 1	Scope 2	Scope 3
상장주식	2.92	2.92	3.11
회사채	2.36	2.36	3.36
기업대출	3.81	3.81	3.91
비상장주식	2.50	2.50	2.84
상업용 부동산	-	4.00	-
국채	1.00	4.00	4.00
평균점수	2.52	2.62	3.32

3) 잔액 가중평균 방식 [(자산별 잔액 x 자산별 데이터 스코어)의 합 ÷ 총 잔액]으로 산출

SBTi 기준 업종별 금융배출량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4] 기준에 따라 주요 산업군의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SBTi 주요 섹터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금융배출량은 총 95.6만tCO_2eq으로, 전체 금융배출량의 약 64.3%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71.5만tCO_2eq, 발전 8.6만tCO_2eq, 시멘트 5.7만tCO_2eq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화학 업종의 배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종별 배출 추이 분석을 통해 금융배출량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Ti 주요 섹터별 금융배출량 현황 단위: 만tCO_2eq



4)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대응

지표 및 목표

내부탄소가격 관리

탄소 배출에 따른 잠재적 재무 비용을 내부 의사결정 및 리스크 평가 과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e, ICP)을 도입하였습니다. 탄소 배출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하여 녹색금융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탄소가격 설정을 위해 고도화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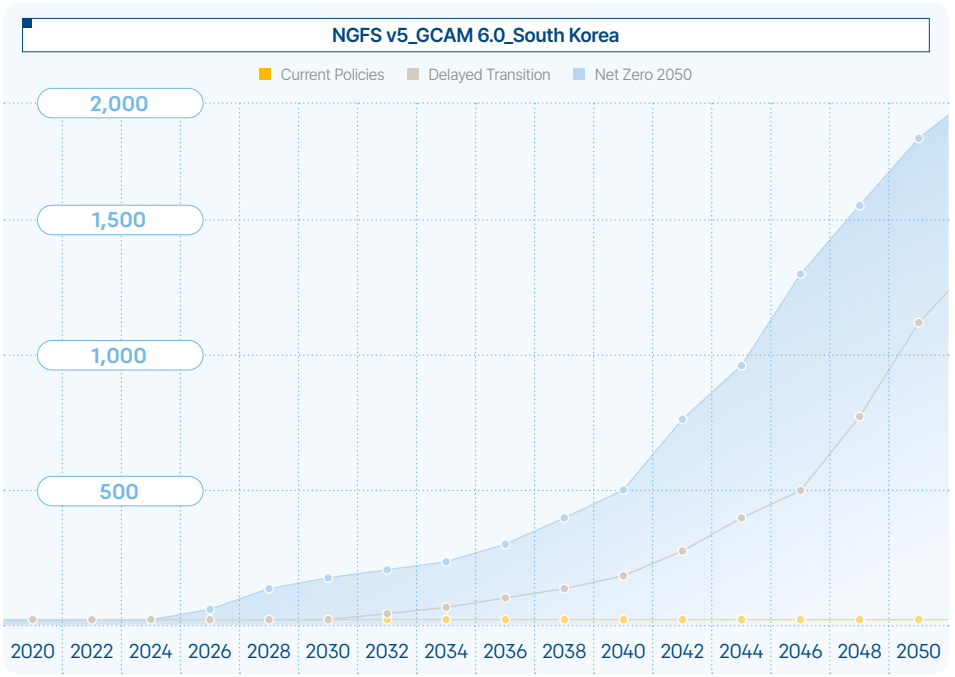
실질 현금 흐름에 직접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그림자 가격(Shadow Price)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NGFS 5차 시나리오 중 GCAM 6.0 모형의 탄소가격 경로를 활용하였습니다. 적용 시나리오는 'Net Zero 2050' 시나리오 하에서의 한국 지역 미래 탄소가격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상 가격 변동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구매(REC 등) 및 에너지 절감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탄소가격 개요

내부탄소가격 도입 목적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예산 설정 • 투자의사결정 및 리스크 평가시 기후 관련 판단 근거 • 녹색금융 투자 진행시 기회요인에 대한 분석
내부탄소가격 유형	• 그림자 가격
가격설정	• 최소: 약 215,022원(151.25US$2010/$tCO_2$) • 최대: 약 2,278,182원(1,602.56US$2010/$tCO_2$)
적용 범위	• Scope 1·2 • Scope 3(금융배출량)
적용 여부	• 사업(투자/재생에너지 조달) 의사결정에 반영

내부탄소가격 경로

단위: US$2010/$tCO_2$



탄소금융

탄소금융 추진체계

탄소금융 추진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금융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탄소금융 TF를 출범하여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에는 운용사업부 산하에 탄소금융부를 신설하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탄소금융 사업은 배출권 트레이딩, 탄소 감축사업 투자, 국제기구 협력의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장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기술 기반 감축사업 투자와 글로벌 기후기구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대응 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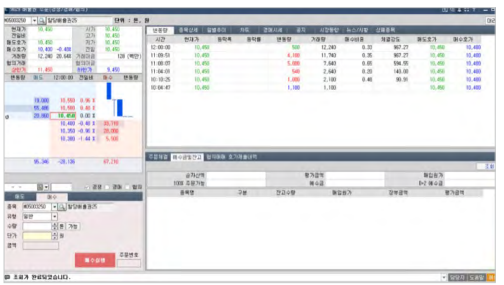
탄소시장 세미나 개최

기업 고객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5년 5월 탄소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공동으로 '제1회 카본마켓 세미나(Carbon Market Sem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K-ETS) 위탁사업 소개와 NH투자증권·에코아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소배출권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였으며,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탄소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출시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와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5년 11월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서비스 'NHIS K-ETS HTS'를 출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위탁매매 시범사업의 핵심 과제로,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에 직접 회원 자격으로 접속해야 했던 배출권 거래 방식을 민간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체계로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 기관은 NH투자증권 전용 계좌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HIS K-ETS HTS'는 최대 동시접속자 100만 명까지 처리 가능한 HTS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할당 대상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 방식의 다변화와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강화와 가격 발견 기능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탄소배출권 매매 HTS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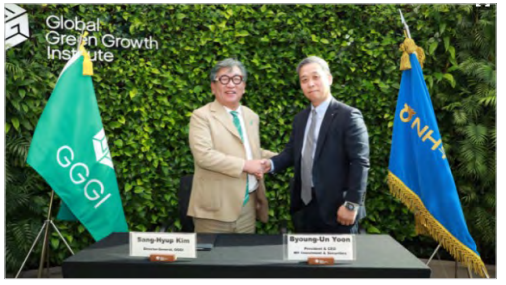
탄소금융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탄소시장 협력 확대

탄소금융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9월 글로벌 환경상품 거래 인프라 기업인 엑스펜시브(Xpansiv)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엑스펜시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크레딧 거래 플랫폼인 CBL(Carbon Brokerage Ltd.)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환경 상품을 디지털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탄소크레딧이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탄소크레딧 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기후금융 확대

글로벌 기후 대응과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 10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FP240)'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GGGI는 전 세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번 협력을 통해 GGGI는 동남아시아(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기후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NH투자증권은 글로벌 기후기술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기후기술 혁신과 투자 연결을 통해 글로벌 기후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MOU

환경책임경영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환경경영정책 살펴보기

전사 환경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반 환경경영 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환경경영 방침과 목표를 직접 관리합니다. ESG위원회와 지속가능협의회는 환경경영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감독하며, ESG본부는 실행과제 도출, 성과 평가, 환경경영 캠페인 기획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의 총괄 책임 아래 의사결정부터 실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경영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GHG Inventory Manual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의 관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산정·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성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CDP 기후정보 공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CDP 공시를 통해 기업의 기후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CDP 평가에서 리더십 A(최고등급)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환경정보 공개 수준, 온실가스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기후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경영 전문 교육

환경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외부 전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CDP Climate Change 교육 이수를 지원하여 CDP 평가 개요, 문항별 주요사항, 파트별 평가 관리법 등을 학습하며 기후 공시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를 지원하여 지속가능금융의 개념과 K-Taxonomy 산정 방법 및 실제 적용 사례를 학습하며 녹색금융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규제와 공시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전문 교육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업무환경 조성

친환경 사업장 인프라 개선

영업점 이전 및 환경개선 공사 시 고효율 LED 조명을 적용하여 전력 사용량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지·진주·구리WM센터 이전공사, 세종WM센터 신설공사, 반포Branch 확장공사에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사업장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절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스템 운영

본사 사옥(Parc.1 타워2)은 수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해 중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면장에서 사용된 물을 다단계 필터링 및 여과 과정을 거쳐 화장실 변기수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2025년 기준 연간 재활용 용수는 14,051.7톤으로 본사 사옥 전체 수도 사용량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자원 재이용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교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사 사옥에 36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사옥 주차장에 2대, NH인재원 주차장에 3대를 설치하여 주요 거점별 충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임직원 및 방문 고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장 운영 전반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도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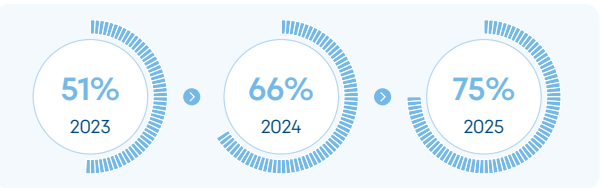
업무용 차량의 저탄소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법인 차량 69대 중 하이브리드 차량 32대, 전기차 20대를 운영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2023	2024	2025
휘발유차	30	18	12
경유차	6	7	5
하이브리드차	20	24	32
전기차	17	24	20
합계	73	73	69

친환경 운송수단 비율



환경책임경영

자원 사용 현황

용수 및 폐수 현황

단위: m^3

구분	산정범위	2023	2024	2025
용수 취수[1]	본사	36,446.2	42,486.2	37,864.4
	영업점	22,118.0	24,027.8	25,663.1
용수 방류	본사	36,446.2	42,486.2	37,864.4
	영업점	22,118.0	24,027.8	25,663.1
용수 사용[2]	본사	0.0	0.0	0.0
	영업점	0.0	0.0	0.0
중수 사용	본사	12,830.2	12,676.4	14,051.7

1) 상하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신사옥(Parc.1) 유입 용수량(취수) 및 방류 용수량(폐수)으로 산정
2) 용수 사용량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입된 취수량 및 폐수량을 통해 산정

폐기물 배출량

단위: ton

구분	산정범위	2023	2024	2025
폐기물 발생[1]	본사	287.7	271.1	174.0
폐기물 재활용	본사	126.7	134.8	134.6

1)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일반 폐기물

용지 배출량

단위: ton

구분	산정범위	2023	2024	2025
용지 사용량	전사	58.8	59.3	62.1

임직원 환경경영 실천

범농협 지속가능경영 실천 캠페인

임직원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범농협 지속가능경영 실천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프로젝트 참여, e순환거버넌스 폐전자제품 배출,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 인증, 친환경 제품 및 사회적 기업 제품 이용을 통한 착한소비 실천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지속가능경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일상 속 지속가능경영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Grow with N2,' 캠페인 실시

임직원의 자기 성장과 지속가능성 가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사내 캠페인 'Grow with N2,'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일상에서 반려식물을 직접 키우며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캠페인으로, N2 브랜드 철학과 연계하여 조직 내 환경 가치에 대한 공감과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임직원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직원 대상 반려식물 키우기 키트(KIT) 전달

커피캡슐 자원순환 캠페인

2022년부터 네스프레소와 함께 '커피캡슐 그린 모먼트(Green Momen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커피머신에서 사용된 캡슐을 층별 전용 수거함을 통해 모아 일괄 회수하고, 리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사에서 수거된 커피캡슐은 총 120,900개로 약 1,505kgCO_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회수된 캡슐은 퇴비, 비료 및 산업용 재료로 재활용되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커피캡슐 수거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

1,505 kgCO_2eq

다회용컵 사용 환경 조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본사 사옥 내 카페테리아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총 13대의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하여 임직원이 개인 텀블러와 다회용컵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246,671회의 세척기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약 9,867kg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49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합니다.

다회용컵 사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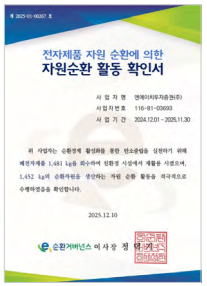
9,867 kg

환경책임경영

임직원 환경경영 실천

자원순환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범위를 직접배출(Scope 1·2)에서 기타 간접배출(Scope 3)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하여 자원순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수명이 종료된 IT 기기 및 전자제품을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회수·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이 가정의 폐전자제품을 자발적으로 기부·반납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 활동을 일상생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폐전자제품 1,481kg을 회수하였으며, 총 4,824kgCO_2eq의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습니다.





폐전자 제품

1,481kg 회수

장난감 분해 캠페인

2023년부터 사단법인 트루(TRU, Toy Recycle Union)와 함께 장난감 분해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폐장난감 분해·분리 배출을 통해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2025년에는 임직원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에 앞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환경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자원순환 인식을 높였습니다. 41kg의 장난감을 분해하여 143.5kgCO_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장난감 분해 캠페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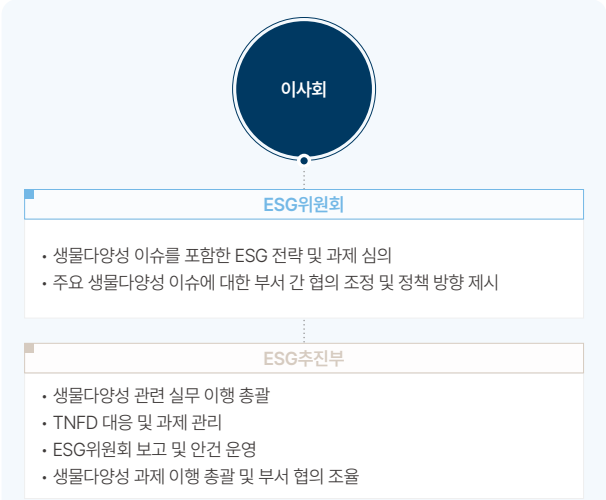
생물다양성 보존

TNFD 가입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이 금융 시스템 및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 가입하였습니다. TN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의 자연자본 의존도 및 영향 분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체계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전략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ESG추진부가 실무 이행을 총괄합니다. 향후 TNFD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영 전략과 책임투자 체계 전반에 통합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PEOPLE

고객, 디지털, 리스크관리,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경영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서비스의 경쟁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 혁신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를 통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병행하며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Customer&Society Action 63
고객중심경영 64
금융소비자 보호 68
Focus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72
Focus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75
인재경영 79
사회책임경영 85
Focus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88
동반성장 90

Finance in Action for Social Value

사회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금융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금융의 역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이 확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현장 ↗



01

고객 및 금융소비자 보호

고객의 신뢰를 금융의 기준으로 세우다

금융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서비스 전반의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02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 경험을 혁신하다

디지털 기술은 금융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고객의 기대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투자정보와 금융서비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일회성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의 본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03

인재 및 조직문화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다

금융의 변화는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직원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역량 개발, 안전과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조직 전반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4

상생 및 사회적 가치창출

금융의 역할을 사회로 확장하다

금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이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생금융, 지역사회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있으며, 산업과 현장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

고객중심경영 실행 체계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업무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MTS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개선 필요·점진 개선·유지/강화 3단계로 분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검색성·접근성·유용성 등 고객 경험 핵심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나무 MTS는 2025년 농협금융지주 모바일앱 경쟁력평가 증권업종에서 상·하반기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고객패널 'NH멘토스' 운영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객패널단 'NH멘토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비대면 Advisor ISA 상담역량 비교 조사, 증권사 고객 이용 행태 조사, 비대면 Advisor 연금 상담역량 비교 조사, 퇴직연금 이용 고객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 고객과 잠재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상품 및 서비스 개선 검토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과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VOC 대응 체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내 민원·VOC 담당팀을 운영하여 소비자 민원과 의견을 접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과 VOC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VOC는 2~7영업일 이내 답변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서비스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고객만족도[1]
센터 어드바이저[1]	95.8
업무 서비스[1]	93.0

1) 2025년 하반기 기준

증권사 모바일 앱 경쟁력 평가 결과 단위: 점

구분	고객만족도[1]
나무 MTS	70.5

1) 2025년 상·하반기 평균 점수(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

NH멘토스 운영 프로세스



VOC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4	2025	증감	
			건수	증감률
문의	9,554	15,201	△5,647	59.1
제안	2,359	1,846	▽513	-21.7
불만	2,202	5,810	△3,608	163.9
칭찬	3,882	3,231	▽651	-16.8
합계	17,997	26,088	△10,419	46.1
처리 건수	17,997	26,088	-	-
처리율	100%	100%	-	-

고객중심경영

고객중심경영 실행 체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하는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증권회사 부문 1위에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소비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추천 의향을 기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금융상품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 품질, 브랜드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경험과 금융상품 이용 만족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는 연금 고객을 위해 전문가와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PB팀, AI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상담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객 특성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PB팀은 우수 PB와 연금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대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시황 분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만기 관리, 절세 전략 등 종합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까지 통합적으로 진단하며,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IRP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연금 투자 서비스

개인형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도입하여 디지털 기반의 연금 자산 관리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49개의 퇴직연금 투자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나무(NAMUH) 앱과 N2 앱을 통해 추천 포트폴리오에 가입하거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적극투자형 알고리즘의 평균 누적 수익률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전략은 106.5% 수준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성과 수수료 방식(발생수익의 15%)과 기본 수수료 방식(투자금액의 0.3%) 중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투자 성향과 선호에 맞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은퇴설계 교육 콘텐츠 운영

고객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다양한 투자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세시대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 정보와 은퇴설계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THE100리포트' 18회를 비롯해 'N2 슬기로운 은퇴생활', 'N2 퇴직연금백서'를 발간하여 연금 및 은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K 노후헌터스', '연금백세' 시리즈를 운영하며 연금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운영을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령대와 투자 목적에 맞는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고액자산가 대상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예탁자산 100억 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뿐 아니라 가업승계, 기부 및 재단 설립·운영, 이민 및 유학, 차세대 CEO 교육 등 고객의 생애주기와 가문 단위의 의사결정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고객 세미나를 통해 자산관리와 경영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총 224가문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 특성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금융센터 확대 및 상담 인프라 운영

전문적인 자산관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 거점 오프라인 금융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융센터는 2022년 말 10개에서 2025년 말 15개로 확대되었으며, 센터 내에는 고객의 단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STM(Smart Teller Machine)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총 1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과 업무 처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One-stop 상담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센터에는 고객 세미나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해외주식 절세전략 서비스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금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 산정방식 선택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선입선출법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평균법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며, 이동평균법으로 변경 시 재변경은 제한됩니다.

주식보상 연계서비스

주식보상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임직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MTS 기반 주식보상 연계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별도의 전용 계좌 개설 없이 후(後)지급 방식의 주식보상 권리를 포함한 보상 내역이 MTS 계좌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현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쿼타랩과의 제휴를 통해 주식보상 계약, 부여,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기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주식보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보상 내역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RSA, ESPP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채널 서비스 확대

챗봇 '노아'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비대면 고객 상담과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챗봇 '노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정보 안내, 현재가 조회, 이벤트 및 공지사항 확인 등 기본적인 문의 대응뿐 아니라 유상청약, 반대통보 등 개인 맞춤 권리 안내와 공모주 청약 시 필요한 거래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출시 이후 챗봇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일평균 이용 고객 수는 3,737명, 재방문율은 57%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가로 캐러셀 구조'에서 '세로 버튼 랜딩식 구조'로 화면 구성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

해외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별 종목의 뉴스·실적·가격 변동을 세 문장으로 압축해 제공하는 '세 줄 요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 한글 번역, 주요 수치, 주가 흐름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해외시장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금융권 최초로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 프로(Perplexity Pro)'를 도입하여 다양한 해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한글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탐색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투자정보 채널 운영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투자정보 제공과 고객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자정보 프로그램 '화목한 오픈스탁'을 정기적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점심시간 방송을 개장 전 시간대로 전환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적시성을 높였습니다. 실시간 화상 세미나 Zoom 컨퍼런스를 운영하여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와 운용매니저가 직접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고객 질의에 응답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글로벌 투자전략과 유망 종목, 채권 및 대체 투자자산 분석을 기본으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중소형주 및 비상장기업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AI, 로봇, 우주,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산업의 구조적 변화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별 투자 성향과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케어 서비스를 통해 투자정보 제공을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계하고, 다양한 투자 콘텐츠와 포트폴리오 진단 기능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

포용적 금융 확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NH투자증권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에 대응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리더가 인식 가능한 전자문서(PDF)와 점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태블릿 기반 메신저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필 작성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녹취를 통한 의사확인 및 직원 대필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 전·후 단계별 확인 절차를 통해 고객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통신중계서비스(문자·영상·음성 중계)를 연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 대상 수수료 우대 등 전용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접근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우대 금융 서비스 운영

장애인의 금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우대 상품과 금융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오프라인 및 ARS 주식 거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금융권 신규 여신 거래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금융서비스 제공 체계



시니어 계좌번호 자동인식 서비스

고령 고객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계좌번호 자동인식 서비스'를 통해 ARS 이용 시 고객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상담원 연결 안내가 우선 제공되도록 구성하였으며, 2025년 기준 누적 등록 고객 수는 22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증서 발급 및 매체 이용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상담 체계도 보완하였으며, 70세 이상 고객의 매체 및 인증서 관련 상담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여 고령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가 소비자 중심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소비자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를 구축하여 판매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을 통해 고객 의견을 수집·관리하고, 민원 예방 및 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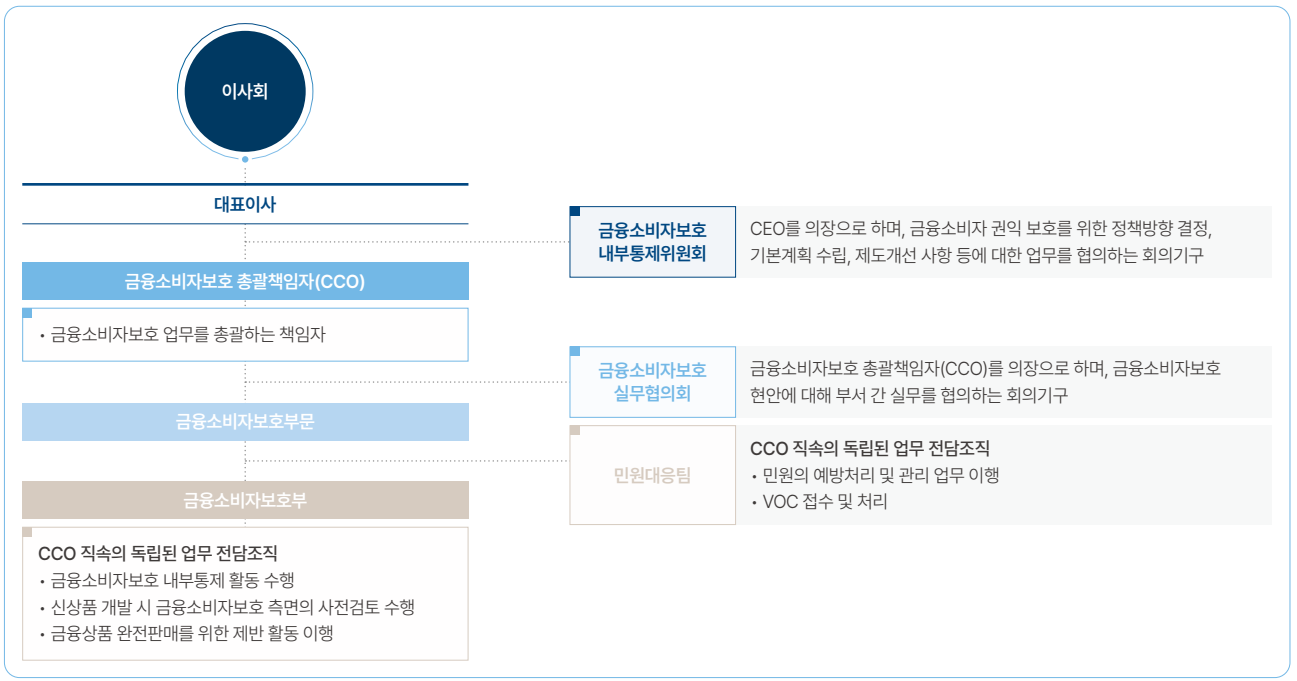
금융소비자보호 강령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투자회사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강령을 제정하여 전사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을 지정해 임직원이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 의식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장된 권리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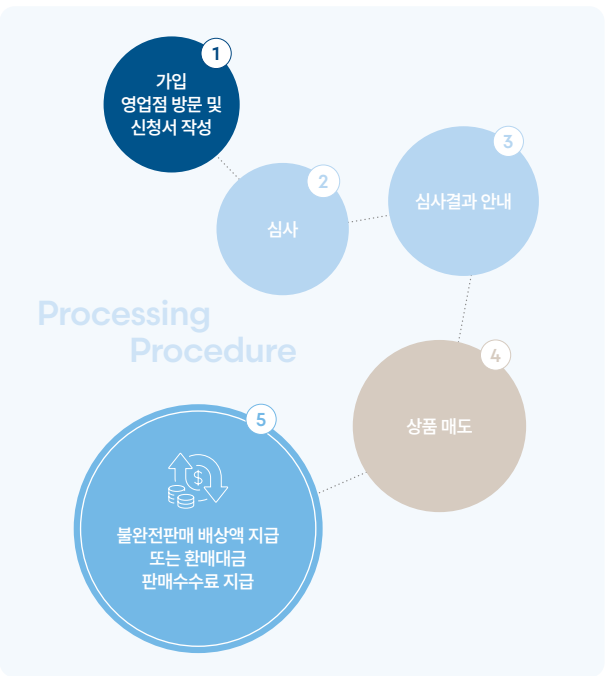
금융상품 전 과정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불완전판매 배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고객이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배상 심사를 거쳐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상품 가입 이후 5영업일 이내 환매 또는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해지대금과 판매 수수료를 반환하는 'FEE REFUND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불완전판매 배상서비스 및 FEE REFUND 서비스 처리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전략

금융소비자 보호 중장기 목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며, 나아가 디지털 금융 대응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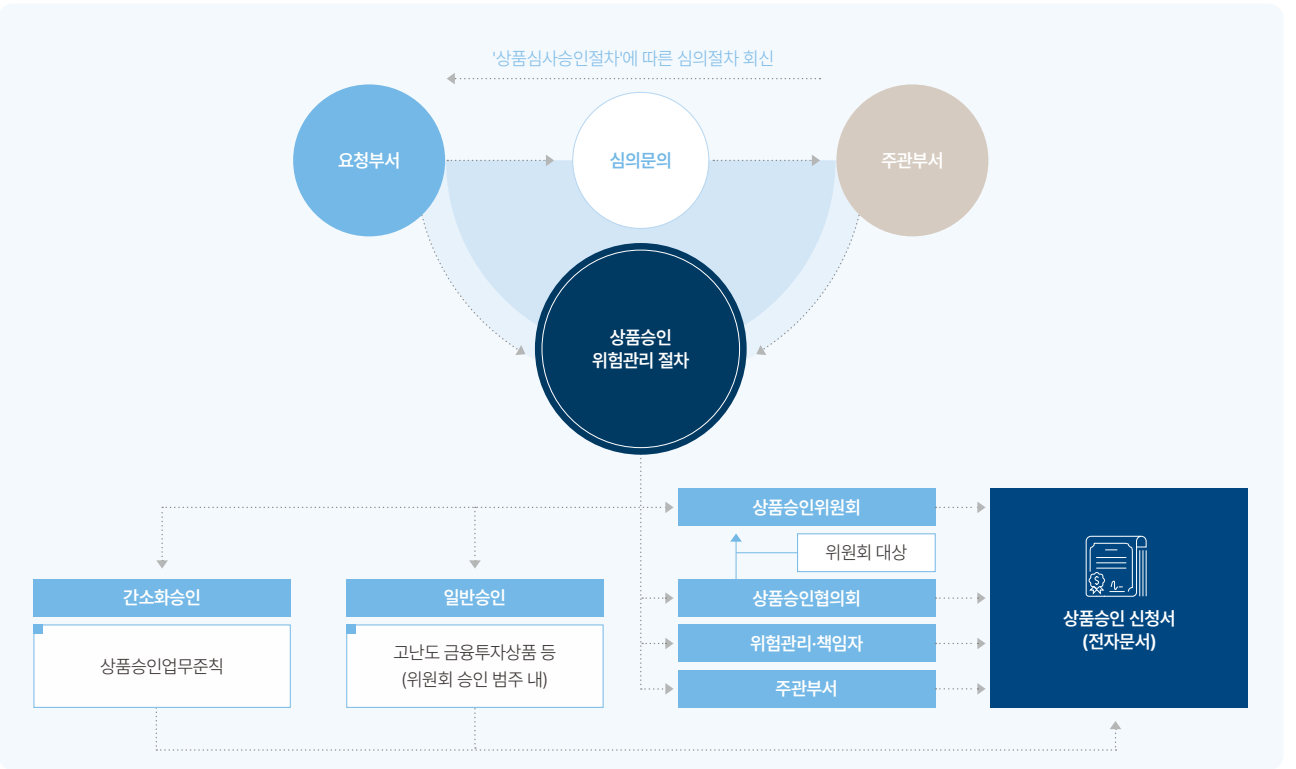
금융소비자 보호 중장기 목표 및 추진과제 전략

목표 항목	목표연도	중장기 목표 세부내용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 체계 강화	2026년	•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변별력 확대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반 조치기준 강화 • 불완전판매 유발 직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정기 보고서 작성)
고객 체감형 소비자 보호 및 금융 포용성 확대	2026~2027년	•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체계 강화 • 1사1교 금융교육 내실화 및 확대 운영 • 고객 눈높이에 맞춘 판매 단계별 정보 전달 및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이해도 제고
디지털 금융 대응 시스템 구축	2026~2029년	• 민원 및 VOC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프로세스 체계화 • AI 기반 VOC 분석 및 자동응대 기능 고도화를 통한 대응 효율성 제고 • AI 기반 교육 및 안내자료 개선을 통해 금융상품 완전판매 지원

상품심의 프로세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상품 심의 이전 단계부터 내부 통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도입 시 '신상품 사전 점검준칙'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내부·외부 규정과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품심의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상품운용 방식과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 상품승인위원회 승인, 상품승인협의회 승인, CRO 합의, 주관부서 합의, 일반 승인, 간소화 승인 등으로 세분화된 상품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심의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전략

상품승인위원회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계약 등)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 요소와 판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점검하여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승인위원회와 협의회를 통한 다단계 심의 절차를 거쳐 상품 승인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품승인위원회에서 18건, 협의회에서 10건의 안건을 검토 및 승인하였습니다.

소개제한 상품 점검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과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소개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소개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점검하고, 필요 시 소개를 제한하는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상품 선정 과정에서는 소개제한 상품을 별도로 지정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은행·증권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토권(Veto)을 행사함으로써 상품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개상품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2025년 12월 기준 총 18개 상품이 소개제한 상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금융사기 예방 체계 고도화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의심계좌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비정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의심계좌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여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고객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경고를 제공하는 탐지 솔루션을 운영하고, 고객지원센터 및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징후 식별과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T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보안 수준 확인하기'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이 스스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책임분담금제 시행에 따라 One-Stop 피해구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피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위험경보시스템 가동

주가조작 등 시장 이상 거래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 반대매매[1]가 발생했던 종목의 공통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는 '주가조작 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판단은 계좌 개설 후 1개월 내 신용거래 발생 여부,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가 수준, 공매도 가능 여부, 자본금 규모, 평균 거래대금 등 복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험 종목을 보유한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총 7,899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1)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매매

금융상품 완전판매 교육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와 판매 과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임직원 대상 완전판매 교육과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완전판매 절차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대상 심화 교육을 병행하여 2025년에는 총 240회의 완전판매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완전판매 절차의 내재화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의 대면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센터 평균 95.81점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준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 점수 이하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재평가를 통해 판매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객 민원 처리 체계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 의견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MTS를 통해 민원 및 VOC를 접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접수 이후 고객에게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조사·검토·판단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제공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분쟁 처리 절차



금융소비자 보호

지표 및 목표

금융사기 예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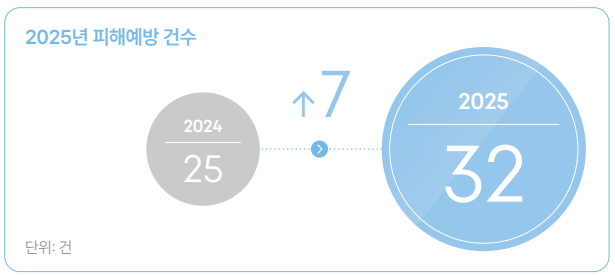
금융사기 피해 예방 건수와 금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피해예방 건수는 32건으로 전년 대비 7건 증가하였으며, 피해예방 금액은 약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원 확대되어 금융사기 예방 체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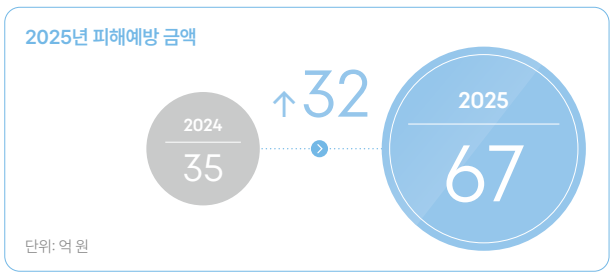
2025년 금융사기 예방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피해예방 건수	34	25	32
피해예방 금액[1]	2,105.9	3,506.5	6,672.1

1) 데이터 정밀 검수 결과에 따른 2023, 2024년 데이터 변경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금융소비자 보호 및 완전판매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CCO 주관 하에 관리자 맞춤형 인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직무역량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표준화·직군·심화·인식전환으로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관리본부, BUCO, 금융소비자보호리더 등 업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금융소비자 응대 문화 정착을 위한 CS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만족도는 4.18점(5.0점 만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내용	횟수	수강인원
표준화 교육	금융소비자보호 온라인 교육	17	2,897
	미스터리쇼핑 대비 완전판매 절차 교육	9	1,324
	상반기 방문·유선 완전판매절차 교육	41	678
	하반기 완전판매관련 주의사항 및 민원예방교육 등	51	581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완전판매절차 변경내용 교육	4	903
직군 교육	신입사원 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	2	28
	금융소비자보호리더의 역할 및 민원예방 교육	4	250
	직군전환직원, 경력직원 완전판매절차 교육	2	24
	WM사업부 BUCO대상 완전판매절차 교육	2	11
	디지털자산관리본부 직원 대상 유선 완전판매절차 교육	5	152
심화 교육	금융소비자보호법·고난도 금융투자상품·방문판매절차 등	5	105
	내부통제 점검에 따른 판매 시 유의사항 등	56	681
	문제행동소비자 응대 교육	6	493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CS 교육	6	46
	'불만고객 응대 및 내 마음의 쉼표' 등 CS 심화 교육	6	81
인식 교육	CCO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전환 및 민원예방	24	582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운영

해피콜은 금융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유선 통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판매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불완전판매 예방 제도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제도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는 해피콜 대상을 기존 고령·부적합 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2025년 해피콜 대상 6,113건 중 5,559건이 응답하여 응답률 90.9%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지수(CMI) 평가기준인 해피콜 적정비율 86%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평가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정착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 임직원 성과평가에 '금융소비자보호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미스터리쇼핑 결과, 내부통제 점검결과, 판매 후 모니터링, 민원·VOC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 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반영한 KPI 공통지표를 운영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대상 사업부/본부/부·센터를 대상으로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항목 미준수, 테마점검 적발, 민원 귀책 등 발생 시 감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영업점과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및 우수직원을 CEO 표창함으로써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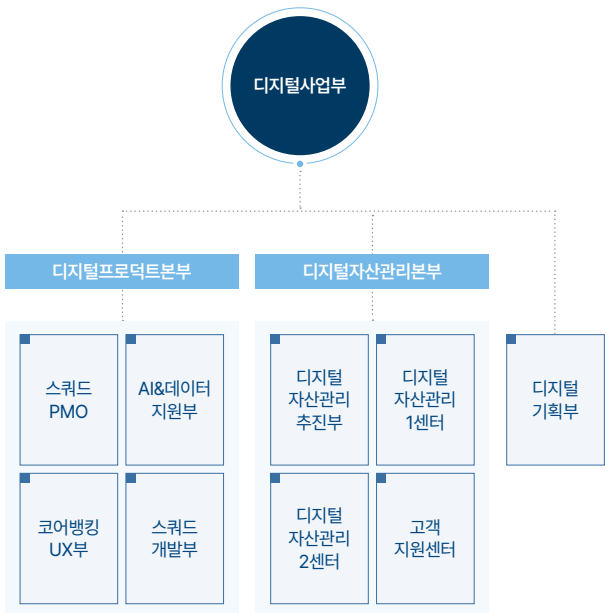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거버넌스

디지털 금융 중심 조직 체계 강화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고객 접점과 서비스 경쟁력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서비스 기획부터 자산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프로덕트본부가 스쿼드 조직을 기반으로 서비스 기획·UI·UX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자산관리본부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 중심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획부는 고객 및 가격 전략 수립·운영을 통해 중장기 사업 방향성과 실행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전담 조직



전략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 행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기반으로 조직 운영 방식과 서비스 개발 체계를 고도화하여 변화 대응 속도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스쿼드 기반 조직 운영(Squad Year 1)을 통해 시장과 고객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용 AI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즉각적 AI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AI One Product 요소에 대한 기술검증 및 구현을 진행하는 2-Track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AI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채널과 디지털 Advisor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을 확장하는 한편, Cross Platform 전략을 통해 디바이스 제약 없이 일관된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4대 핵심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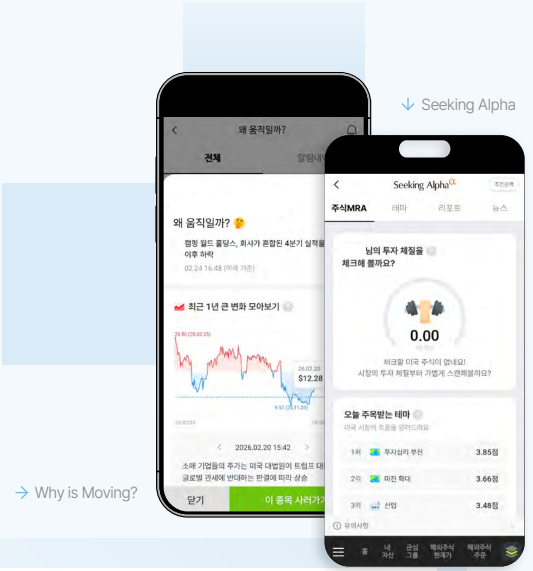
	1 Squad Year 1	2 AI 2-Track Approach	3 하이브리드 서비스	4 Cross Platform
추진목표				
추진전략	시장과 고객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 스쿼드 형태 조직 구성 및 운영	Data Lake 중심 AI 서비스 기획 · 개발 · 출시 전 과정 효율화, 실험 기반 민첩한 개발 체계 운영	AI 기술을 활용, 디지털 매체와 디지털 Advisor 간 상호 보완을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 및 퀄리티 확장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
추진과제	• 주요 디지털 고객 여정 및 핵심 테마 중심 스쿼드 조직 구성 • 스쿼드 운영 표준(권한, 목표설정, 협업 프로세스 등) 및 성과 관리 체계 정립	• 민첩함과 견고함을 모두 갖춘 유기적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AI서비스 경쟁력 확보 1. 상용 AI서비스 활용 고객에게 즉각적 AI 경험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Quick-win 서비스 개발 2. AI one product 요소에 대한 기술 검증 및 구현	• AI기반 디지털어드바이저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 상담 품질 상향 평준화 및 어드바이저 업무 효율 개선	• 새로운 투자 경험을 잇는 금융 플랫폼 전환 선언(in MWC) • 거래가능한 MVP Product 개발 (앱, 태블릿, PC프로그램)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전략

NH투자증권 디지털 금융 서비스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이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분석 도구, 글로벌 투자정보 서비스, 데이터 기반 실전 투자 도구를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실전 투자 도구
데이터로 무장하다

NH데이터
종목별 관심 추이, 매매 흐름, 종목 간 자금 이동 현황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시장의 숨은 흐름 포착

월간나무
월간 투자 활동을 빅데이터로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감성 투자 리포트

물타기 계산기
추가 매수 시 예상 평단가·수익률을 직관적 애니메이션과 함께 시각적으로 제공

02

글로벌 정보 허브
월가가 내 손 안에

Why is Moving?
해외 주식의 급등락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요약하여 변동 이유를 가장 빠르게 확인

월가라이브
Tom Lee, Mark L. Newton 등 글로벌 전문가의 투자 전략을 매일 아침 스트리밍으로 제공

큰손Pick
미국 투자 대가 5인의 분기별 포트폴리오 정보와 운용 철학을 소개

시킹알파
최근 3개월간 애널리스트 의견 기반 주식 MRA[1] 포트폴리오 진단 및 실시간 투자 뉴스 제공

1) MRA: Market-Risk-Adjusted

03

AI 투자 두뇌
분석부터 판단까지, AI가 함께합니다

AI시황·지금 시장은?
30분~1시간 간격으로 시장 뉴스를 AI가 자동 분석·요약하여 당일 시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차트분석AI '차분이'
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기반 차트 해석 — 매수·매도·손절 지점, 추세·패턴·지지/저항 분석

잔고분석AI '잔분이'
보유 종목의 매매 패턴, 투자 경향, 포트폴리오 편중 여부를 AI가 입체적으로 분석

Terminal X
AI 기반 금융·투자 리서치 플랫폼 제휴, 실시간 월가 인사이트와 투자 판단 제공

퇴직연금 AI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성향 분석 기반 장기 운용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자동 추천



AI시황 · 지금 시장은?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금융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분석

디지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주요 위험·기회 요인을 도출하고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요인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잠재적 영향	발생 시점[1]			NH투자증권 대응활동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	재난으로 인한 물리적 인프라 손상 리스크	• 홍수, 화재 등 천재지변에 따른 금융거래 서비스 및 플랫폼 장애 발생 • 백업 시스템 등의 파괴로 중요 금융 데이터 소실 위험 증가	●			• 재해복구센터 운영 • 데이터 백업 및 소산 • 반기별 재해복구훈련 실시
	IT 서비스 및 네트워크 환경의 의존성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 IT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 거래 중단으로 인한 고객의 직접적 금전 손실 발생 • 고객 불만 확산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	●		• 시스템 장애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반기별 재해복구훈련 실시 • 장애예방을 위한 인프라 안정성 확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보안 및 내부통제 리스크	•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신뢰도 하락 및 법적 제재로 재무적 손실 발생 • 고객 개인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도 저하 • 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대응 비용 증가	●	●		• 침해사고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대응 훈련 실시 • 실시간 보안관제를 통한 위협 탐지 • 정기적 대외 인증심사 및 평가 수검 • 시스템/서비스 대상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실시
	AI 도입에 따른 윤리적 리스크	•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으로 인한 판단 영향 • 의사결정을 AI가 대체하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 AI 윤리 관련 법제화 동향으로 인한 법적 제재 위험 증가			●	• AI기본법 등 관련 법적 동향 주시 및 법규 준수 • 자체적 윤리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 거버넌스 구축
기회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 확장	• 디지털 플랫폼 내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유입 증가 •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 확대로 시장 내 경쟁우위 선점		●	●	• 생성형 AI 적용 서비스 확대 •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및 제도 모니터링과 비즈니스 기회 모색

1) 단기 1~5년, 중기 5~10년, 장기 10년 이후로 구분

지표 및 목표

디지털 금융 성과 관리 강화

디지털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디지털 및 AI 기반 서비스 운영 성과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에서는 디지털 고객 수 5,718,994명, MTS 평균 이용자 수(MAU) 27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 경험과 서비스 활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및 활용 지표와 함께 정기 점검과 재해복구 훈련 등 디지털 시스템 안정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디지털 경쟁력과 운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관련 지표 단위: 명, 건

모니터링 지표	활동 성과		
	2023	2024	2025
디지털 고객 수[1]	4,836,272	5,238,665	5,718,994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 이용자 수 (평균 MAU[2], 단위: 만 명)	260	264	271
AI기반 대고객 서비스 사용 건수	N/A	3,438,714	8,023,442
AI기반 내부 업무 지원 서비스 사용 건수	N/A	22,654	62,498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3] 수	39	49	56
디지털 온라인 학습 과정 이수자 수	184	229	556

1) 나무/N2 비대면 고객 누적수
2) 와이즈앱(Wiseapp) 산정 기준
3) 온라인 교육 과정 내 '디지털', '빅데이터(AI)' 카테고리 중 1명 이상의 이수자가 집계된 과정 수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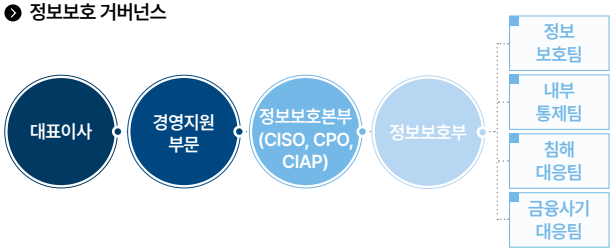
거버넌스

정보보호 체계

디지털 금융 환경 확대에 따라 전사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본부를 조직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을 일원화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체계를 사규에 반영하고, 2025년 하반기 총 2회의 이사회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기준 총 29회 회의를 통해 7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보호협의체는 분기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실행의 연계성을 높이고 전사 차원의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보보호위원회 및 협의체

구분	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협의체
위원장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위원	IT/정보보호/준법/디지털 유관부서 부서장	주요 고객 개인정보 처리 부서 및 준법 부서장
역할	사내 정보보호 관련 중요 사안을 심의 및 의결	대고객 서비스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공유 및 협의
주기	수시	분기 1회

전략

정보보호 중장기 목표 로드맵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자율보안체계 구축, Zero Trust 기반 보안 환경 마련, 금융사기 인텔리전스 체계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중장기 목표 로드맵

Building Trust, Securing Tomorrow

정보보호 핵심가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지속 가능한 보안환경 제공

	자율보안체계 고도화	Zero Trust기반 보안모델 구축	침해사고 대응 복원력 확보
목표			
전략	• 규제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 고객 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 확장 • 지속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 Zero Trust 원칙 기반 접근통제 체계 확립 •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 탐지/대응 체계 고도화 • 안전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설계 환경 마련 •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
추진과제	**2026년** • 개인정보 분리보관/파기 정책 재정비 • 개인정보 마스킹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 • 정보자산 분류 기준 재정의 **2027년** •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휴 관리체계 고도화 • 통합 정보보호 위험평가 체계 마련 • 고객 중심 정보주체 권리 강화 서비스 제공 **2028년~** • 개인(신용)정보 영향평가 도입 및 적용 • 성숙도 기반 점검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환경 전환 •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관리 체계 구축	**2026년** • 네트워크 보안 환경(정책/프로세스) 재정비 • 악성코드 탐지 및 조치 환경 개선 • 사외 중요정보 반출 모니터링 강화 **2027년** • 네트워크 구간 세분화 및 접근통제 체계 구축 •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의 정보보호 테마 점검 실시 • 시나리오 기반 정보보호 모니터링 시나리오 고도화 **2028년~** • Zero Trust 기반 보안 아키텍처 전환 • 통합 정보보호 솔루션 운영환경 마련 • 정보보호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자동화	**2026년** • 오픈소스 관리체계 환경 조성 •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한 보안위협 식별/조치 • 정보보호 관점의 사고 대응/복구체계 마련 **2027년** • 기술적 취약점 관리 역량 고도화 • 신기술 보안 관리체계 수립 • 6하 원칙 기반 탐지/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8년~** • 신기술 보안 관련 Pre-Design 토대 마련 • 지속가능한 공격 표면 관리체계 구축 • 취약점 점검 대상 다변화 및 상시 모의해킹 실시 • 사이버 복원력 프레임워크 확보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전략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전략

대규모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을 목표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전략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리스크 관리

정보보호 인증 취득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인증을 기반으로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2015년 최초 취득한 이후 2021년 ISMS-P로 전환하여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2023년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24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APEC CBPR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5년 인증 갱신을 통해 Global CBPR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내외 인증 유지 및 정기 심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Global CBPR 인증서, ISMS-P 인증서



→ ISO/IEC 27001, 27701 인증서

취약점 점검 및 대응체계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HTS[1], MTS[2], WTS[3] 등 주요 서비스와 홈페이지,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평가와 연 2회 홈페이지 대상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216개 서비스에 대한 모의해킹과 86개 프로젝트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모든 취약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이행 점검을 통해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점 이력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취약점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TS: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
2) MTS: Mobil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모바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
3) WTS: Web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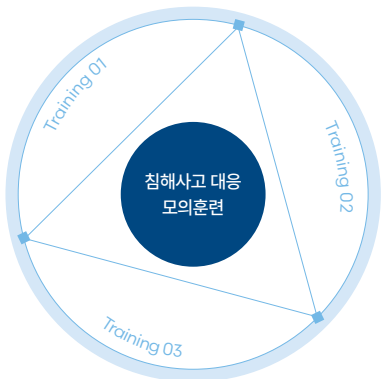
침해사고 대응 및 보안관제 운영

해킹 및 DDoS 공격 등 외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공개용 서버 해킹 대응 훈련 2회, DDoS 공격 대응 훈련 2회, 이메일 침해 대응 훈련 4회 진행을 통해 침해대응 역량을 점검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주요 정보자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식별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유형

Training 01 **공개용 서버 해킹 대응 훈련**

공개용 서버 대상 취약점 공격 수행 및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대응 절차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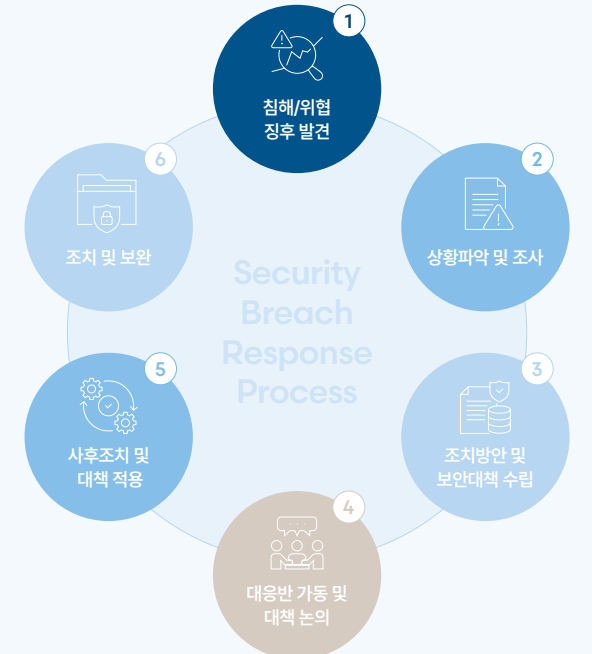
Training 02 **이메일 침해 대응 훈련**

전사 임직원, 신규 입사자, 블라인드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학적 악성 메일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탐지/대응 훈련

Training 03 **DDoS 대응 훈련**

공개용 웹서버 대상 대량의 트래픽으로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탐지/대응 훈련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 처리 원칙

개인정보 수집·이용 전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최초 동의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유되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형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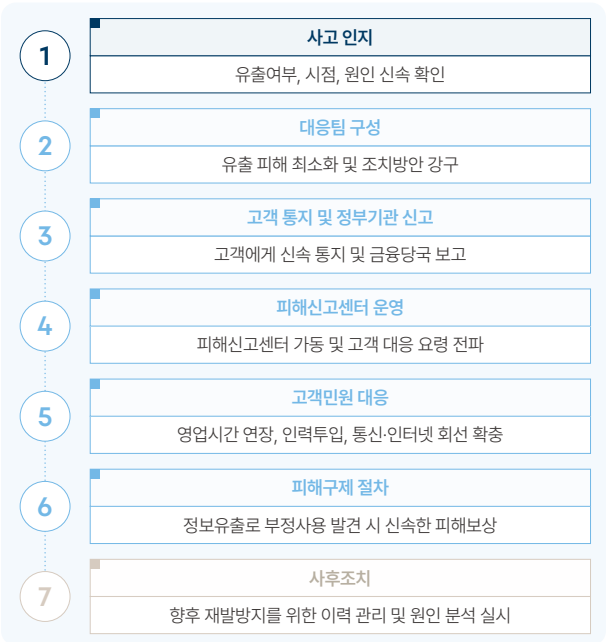
본사와 영업점을 포함한 전사 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 잔고, 매매 현황 등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조회 및 다운로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내부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를 대상으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93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 운영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 통지와 관계 기관 신고 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응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정보보호 교육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령 요구 수준을 넘어선 정보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원과 협력하여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와 내부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 단위 정보보호 매거진 발행과 주요 보안 이슈 발생 시 사내 공지를 통해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단위: 명, 시간

구분		2023	2024	2025
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 인원	3,035	3,077	3,064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간	18,933	19,110	19,105

2025년 전담인력 전문교육 및 협력사 교육 실적 단위: 명, 시간

구분	전담인력 전문교육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	29	115
교육 시간	500	345
과정명	• 법제도/디지털금융/금융보안/해킹방어 등 12개 과정 • 금융보안 최고위과정 등 3개 과정 • 금융보안관리사 자격증 과정	• 금융권 수탁업무 관련 개인정보보호 실무 등

고객 개인정보보호 현황

정보보호 체계 운영을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는 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0	0	0

인재경영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 정책

인권경영정책 살펴보기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경영에서 출발합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여 인권 존중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홈페이지와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기반으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 원칙을 조직 운영과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임직원·고객·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인권 교육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권 관련 법정 필수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3,032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직원 인권 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성희롱 예방교육	3,040	3,054	3,032
직장내 괴롭힘 방지	3,040	3,054	3,032
장애인 인식개선	3,040	3,054	3,032

임직원 고충처리 제도 운영

'인사고충 면담신청' 제도를 통해 임직원은 동료 관계, 업무, 부서 이동, 조직문화 등 회사 생활 전반뿐 아니라 건강·가족·재무 등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O 직통 소통채널인 사내 홈페이지 '소통과 공감' 게시판을 통해 고충과 업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전 건을 처리하여 100% 처리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고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
인사관리시스템 내 인사고충면담	24	22	23

노사 소통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간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정기 교섭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별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사항을 협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공식 협의체 외에도 인사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 대화채널을 운영하여 노사 간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노동조합 대상자 1,963명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가입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1)]	1,926	1,816	1,963
전체 임직원 대비 단체협약 대상 임직원 비율	62.0	58.1	63.0
단체협약 대상 임직원의 노동조합 가입률	100.0	100.0	100.0

1) 단체협약 대상은 노사 합의에 근거하여 일반직 직원 적용 원칙(인사부 등 일부 직원 제외)

인재경영

다양성·포용성

차별금지 정책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조직 환경에서 소속감과 공정한 기회 보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2022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선포하였습니다. 평등한 고용과 인권 존중 원칙에 따라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정치적·종교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전반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다양성 강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정책 살펴보기

성별, 국적, 출신지역,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와 출산·육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 인재가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43%, 전체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35.4%를 기록하며 여성 인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WIN이 주관하는 '2025 WIN 어워드'에서 다양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총 임직원	남성		1,791(57.7)	1,781(56.9)	1,785(57.0)
	여성		1,314(42.3)	1,347(43.1)	1,348(43.0)
	합계		3,105	3,128	3,133
	지역별	국내	3,102(99.9)	3,126(99.9)	3,132(99.9)
		해외	3(0.1)	2(0.1)	1(0.03)
임시근로자[1]	남성		674	733	645
	여성		255	292	286
	합계		929(29.9)	1,025(32.8)	931(29.7)[4]
통상근로자[2]	남성		1,117	1,048	1,140
	여성		1,059	1,055	1,062
	합계		2,176(70.1)	2,103(67.2)	2,202(70.3)
사업장 내 소속 외 근로자[3]	남성		154	170	163
	여성		100	120	123
	합계		254	290	286

1) 임원, 연봉계약직, 영업전문직, 단기계약직, 파트타이머 포함
2)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
3)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 업무 유형은 금융·보험직, 경호·경비직,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운전·운송직 등
4) 사업보고서 상 기간제근로자 대비 4명 적은 수치로, 인턴을 제외하여 산정

임직원 다양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성별 임직원 구성 비율	남성	1,791(57.7)	1,781(56.9)	1,785(57.0)
	여성	1,314(42.3)	1,347(43.1)	1,348(43.0)
연령별 임직원 구성 비율	20대	353(11.4)	353(11.3)	341(10.9)
	30대	877(28.2)	811(25.9)	777(24.8)
	40대	1,105(35.6)	1,159(37.1)	1,172(37.4)
	50대 이상	770(24.8)	805(25.7)	843(26.9)
임직원 다양성 구성 현황	고졸인재 비율	7.4	7.4	7.1
	보훈직원 비율	2.8	2.7	2.6
	장애인 비율[1]	2.2	2.5	3.5
직급별 임직원	임원	65(2.1)	69(2.2)	63(2.0)
	관리자[2]	2,037(65.6)	2,085(66.7)	2,115(67.5)
	사원	1,003(32.3)	974(31.1)	955(30.5)
여성 리더십	전체 관리자[3] 중 여성 비율	30.8	33.9	35.4
	계약직 중 여성 비율	27.4	28.5	30.7
	정규직 중 여성 비율	48.7	50.2	48.2

1) 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기준
2) 관리자: 과장급 이상, 임원 제외
3) 전체 관리자: 과장급 이상, 임원 포함

인재경영

공정한 채용 및 평가

공정한 채용

전문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직무 전문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한편, 다양한 신입사원 전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학력, 성별 등 개인 특성이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전형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과평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의미형 평가 등급, KPI 기반 성과관리, 하이브리드 성과평가를 적용하여 정량과 정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소원 절차를 통해 평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HE STARS 100', 'ORIGIN' 등 우수 인재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성과를 인정하고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용 및 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2023	2024	2025
연령별 신규채용 인원	만 30세 미만	76(49.4)	75(45.7)	71(44.9)
	만 30세~만 50세 미만	69(44.8)	79(48.2)	79(50.0)
	만 50세 이상	9(5.8)	10(6.1)	8(5.1)
성별 신규채용 인원	남성	104(67.5)	102(62.2)	127(80.4)
	여성	50(32.5)	62(37.8)	31(19.6)
연령별 이직 및 퇴직자 인원	만 30세 미만	27(14.9)	25(13.5)	20(10.3)
	만 30세~만 50세 미만	101(55.8)	84(45.4)	85(43.8)
	만 50세 이상	53(29.3)	76(41.1)	89(45.9)
성별 이직 및 퇴직자 인원	남성	131(72.4)	127(68.6)	137(70.6)
	여성	50(27.6)	58(31.4)	57(29.4)
자발적 퇴직자 수[1]		90(2.9)	78(2.5)	78(2.5)

1) 이직 및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을 자발적 퇴직자 산정 범위에 포함

연간 총 보상비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	2024	2025
연간 총 보상비율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액	3,161.0	5,949.0	2,007.7
	최고 연봉자를 제외한 조직 전체 임직원 연간 총 보상액의 중간값	132.1	150.3	166.5
	연간 총 보상 비율(배)	23.9	39.6	12.1
연간 총 보상액의 증가율	조직의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액의 증가율	0.0	88.2	-66.3
	최고 연봉자를 제외한 조직 전체 임직원의 연간 총 보상액 증가율의 중간값	-19.9	13.8	10.8
	연간 총 보상액 증가율 비율(배)	0.0	6.4	-6.1

인재경영

임직원 역량 강화

직무 전문성 교육 실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별 요구 역량을 반영한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과정과 함께 Retail 사업부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통 역량 향상 과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 인재 육성 및 교육체계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혁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hatGPT, 바이브코딩, AICE 자격 과정 등을 통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피그마, 파이썬, 태블로 등 실무형 교육을 운영하여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AI 비즈니스 인사이트' 과정과 전사 Digital 교육 'AX College'를 운영하여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농협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프로젝트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등과 연계한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여 디지털·IT·데이터 분야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교육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개념과 글로벌 트렌드부터 ESG 평가·공시 실무,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 공급망 관리, ESG 금융과 투자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임직원 스스로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공통 직무 과정

- 임직원 역량 향상 및 사업 부문별 직무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세금, 경제지표 분석 등 다양한 과정 진행)
- 직무역량 강화 과정 Retail 서비스부문 맞춤형 과정, 인지된 공통 역량 향상 과정 등 직무별 전문성 강화 및 직무타입 맞춤 자원을 육성

Digital 직무과정

- AX College 과정
- 생성형AI 비즈니스 인사이트 과정
- 성균관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프로그램 과정
- ChatGPT를 활용한 AI비즈니스 솔루션 과정
- 생성형AI 활용 데이터 분석과정
- 데이터분석 시각화를 위한 태블로 활용 과정
- 대화로 시작하는 생성형AI코딩_바이브코딩 과정
-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
- UI/UX 협업 툴 Figma 활용 과정

Retail사업 부문 맞춤형 과정

- Retail 채권마스터 과정
- 주식트레이딩 기본 과정
- Soft Skill 과정
- IB조달의 이해와 WM 협업사례 분석과정
- 세금 체크리스트 과정
-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교육과정
- 해외주식 전문가 과정

신입사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과정

- 신입사원 입문과정(대졸공채)
- 신입사원 리텐션 과정(follow up)
- 부서장/센터장 리더십 과정
- 경력입사자 과정
- 업무직원을 위한 금융상품 기초과정

임직원 교육 현황

단위: 시간, 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시간		78	81	71
임직원 성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남성	75	78	69
	여성	83	86	73
임직원 유형별 평균 교육시간	영업점 영업	127	115	111
	영업점 업무	114	120	93
	본사 영업	51	56	51
	본사 지원	62	68	56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훈련비		53	73	68

NH Book Concert 운영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저자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는 'NH Book Conce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월 'AI 시대 나와 조직의 잠재력을 Unlock하는 마인드셋'(조용민), 12월 '영화로 배우는 성공법칙: 영화로 배우는 창의혁신'(이승재) 강연을 운영하였습니다.

인재경영

안전보건 체계

안전보건경영 정책

안전보건경영 정책 살펴보기

구성원 및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관련 법령과 규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이행하는 한편, 안전보건 전담 조직 운영과 충분한 인력·예산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개인,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심리상담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과 자가 진단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EAP 레터를 발송하여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인증 및 훈련

2023년 7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파크원 NH금융타워 소방대피훈련 및 본사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보건 지원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현황	건강검진 완료 인원(직원 수)[1]	명	4,934(2,987)	4,789(2,973)	5,045(3,002)
임직원 안전보건 현황	산업재해[2]	건	0	2	1
	손실 근무일수[3]	일	0	0[4]	0[4]
임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이용 현황	심리상담 횟수	건	1,395	2,404	2,803
	상담 인원수	명	361	391	335
	만족도(5점 만점)	점	4.7	4.6	4.7

1)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승인 기준으로 산정
3)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한 일수
4) 재해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유급휴가 부여로 손실근무 미발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	주요 의결 사항
2025.03.20	본사 사무환경 개선방안 및 임직원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논의
2025.05.09	본사 화재사건 관련 대책 및 대응계획 논의
2025.09.30	임직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보고
2025.11.17	2026년 안전보건 계획안 등 논의

인재경영

복리후생

출산·육아 지원

출산·양육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임직원의 근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제도와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4개월까지 부여하며, 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제공하고, 출산 후 120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통해 육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제도 운영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자는 2024년 월평균 8명에서 2025년 8.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성	4	15	10
		여성	73	81	88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인원	남성	7	5	8
		여성	49	59	56
	육아휴직 사용 후 12개월 근속한 근무자 수	남성	3	5	5
		여성	66	46	58
	복직 후 12개월 근속률	남성	100.0	71.4	100.0
		여성	100.0	93.9	98.3
시차출퇴근[1]	대상직원 수[2]		3,040	3,059	3,070
	사용직원 수		754	747	834
	비율		24.8	24.4	27.2
맘스라운지	대상직원 수[3]		103	82	82
	사용직원 수		57	53	60
	비율		55.3	64.6	73.2
가족돌봄휴가	대상직원 수		3,040	3,059	3,070
	사용직원 수		196	206	228
	비율		6.4	6.7	7.4

1) 임신, 육아기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외
2)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3) 직전연도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태아검진, 출산, 유산휴가 사용 인원(본사 및 영업점 전체)

은퇴설계를 위한 제도 지원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예정 직원에게 6개월의 유급 '인생설계 휴직'을 부여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애설계 오프보딩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관리, 퇴직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 진로 설계, 심리·건강 관리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8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임직원의 자산 형성과 회사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이 배당수익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탁수수료, 인지세, 매입수수료를 지원하고, 취득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자녀 경제진로캠프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경제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캠프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영어·AI를 테마로 한 진로 멘토링 교육과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 체험, AI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책임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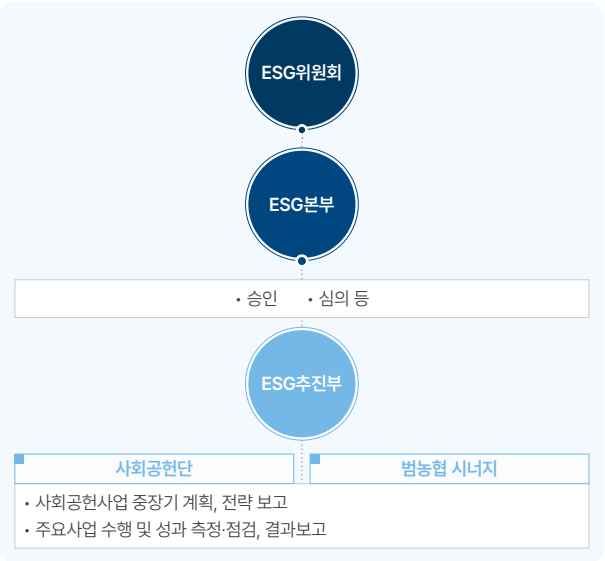
사회공헌 추진 체계

사회공헌 이념과 거버넌스

농협금융그룹의 나눔경영 정신을 계승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삶의 기반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고객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ESG추진부와 사회공헌단을 중심으로 범농협 시너지를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수행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ESG본부와 ESG위원회를 통해 주요 안건을 심의·승인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성과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거버넌스



사회공헌 활동 방향

사회공헌정책 살펴보기

Type 01
회사
증권업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재원 조성 및 후원사업 운영

Type 02
고객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기회 마련과 참여 기반 확대

Type 03
임직원
자발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 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 지원

사회공헌 활동 현황

구분			단위	2023	2024	2025
사회공헌활동 현황	임직원 참여 인원(누적)		명	6,521	6,426	5,980
	임직원 참여 시간		시간	29,294	28,672	28,114
농촌 일손 돕기		농촌방문 횟수	회	26	36	37
		참여직원 수(누적)	명	998	1,081	1,220
사랑의 나눔 헌혈		1회 참여자	명	98	86	110
		2회 참여자	명	98	103	99
		3회 참여자	명	94	107	85
청년 농업인 육성	크라우드펀딩 현황	지원농가	개	24	24	24
		펀딩	건	4,802	5,726	3,871
		목표금액	백만 원	19	21	18.5
		달성금액	백만 원	148	213	125
		달성률	%	765	1,018	675
	라이브커머스 현황[1]	지원농가[2]	개	8	13	16
		달성금액[3]	백만 원	22	69	28

1) 라이브커머스는 2023년부터 진행
2) 지원 농가 현황의 최신 수치를 반영하여 2024년 데이터 변경
3) 실제 지원 농가의 매출금액으로 데이터 산정 방법 변경으로 2023~2024년 데이터 변경

사회책임경영

취약계층 지원

재해 복구 및 긴급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회사 기부금과 임직원 성금을 통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회사 기부금과 임직원 1,417명의 성금을 합산한 약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8~9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 1,002명의 성금과 회사 기부금, 즉석밥 3만 박스를 포함한 총 약 2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릉시 가뭄 해갈을 위해서도 4,500만 원을 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임직원 60명이 충청남도 예산 지역 수해 피해 농가를 직접 찾아 일손돕기 자원봉사에 참여하며 현장 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재해복구 및 긴급 지원 현황

세부 사업	지원 금액
산불복구 지원	2억 원
산불복구 임직원 성금	1억 원
극한호우 복구 지원	21억 원
극한호우 임직원 성금 (1,002명)	0.7억 원
강릉시 가뭄해갈 지원	0.5억 원
합계	약 25.2억 원



→ 수해복구 일손돕기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천사펀드'

2015년부터 운영해온 '천사펀드'는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후원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중 원하는 항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NGO와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아동을 지원하며, 임직원 기부금에 회사 기부금을 매칭하여 연간 1억 4,640만 원을 밀알복지재단, 한국소아암재단 등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천사펀드 사업

사업명	수혜 인원	세부 구분	주요 내용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 사업	5명	의료비 지원	•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등 고비용 치료 지원 • 신약·항암제·희귀의약품 구입비 지원 • 재활·방사선 치료비 지원
농촌 및 의료 사각지대 건강 지원 사업	40명	사회적 돌봄 서비스	• 건강문제 대응 주민 자치조직 집담회 지원 • 기초 건강지식응급대처 교육 및 1차 돌봄 수행 • 의료-돌봄 협력체계 마련
		맞춤형 서비스	• 방문간호·재활서비스를 통한 건강 효율성 증대 • 생필품, 운동보조기 제공 • 주거 안전점검 및 방역 서비스 연계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영양지원 사업	45명	정기 지원	• 월 15만 원씩 총 8회 영양지원금 지급
		명절 선물 지원	• 연 2회(설·추석) 명절선물 지원



→ 연탄 나눔 봉사

쌀 소비 촉진 및 취약계층 지원

농협 계열사로서 쌀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5년 총 약 20억 3,000만 원 규모의 쌀 기부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5,000명과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3,000명에게 쌀 가공품 꾸러미를 전달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보육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도 쌀과 쌀 가공품을 기부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문화·예술 인재를 위한 급식용 쌀 지원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쌀 소비 촉진 및 취약계층 지원 현황

세부 사업	지원 금액
주거취약계층 꾸러미(5,000명)	5억 원
국가유공자 꾸러미(3,000명)	3억 원
지역사회 취약계층 쌀 기부(14,005포)	11.3억 원
'사랑의 쌀'후원: 문화·예술 인재 지원	1억 원
합계	약 20.3억 원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위해 온기창고 운영 물품 구매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하고, 12월에는 임직원 3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연탄 2,0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습니다.

명절에도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설에는 결식아동 45명에게 농촌사랑 상품권을 전달하고 추석에는 결식아동 및 복지관에 목우촌 선물세트를 후원하며 명절의 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성장 지원

청소년 금융 지원

금융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투자 위험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선발된 강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후 금융감독원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1개교 209회차에 걸쳐 7,111명의 청소년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대비 교육 횟수는 3배 이상, 수혜 학생 수는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협회장상 우수 금융회사 직원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연계한 ISA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명을 선발하여 NH투자증권 ISA 계좌를 통해 월 30만 원씩 3년간 후원하며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실시 현황

항목	2023	2024	2025
결연현황	56센터/69개교	56센터/84개교	53센터/85개교
교육현황	25개교/66회차	36개교/97회차	41개교/209회차
교육 학생 수	3,388명	5,918명	7,111명

2025년 금융교육 수상

구분	시상부문	수상자	부서
금융협회장상	우수 금융회사 직원	김대홍	연금컨설팅2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아침밥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장기적 쌀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국공립대학교 26개교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학생이 천 원만 부담하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NH투자증권은 학교 부담분 약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는 동시에 청년층의 쌀 소비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분투자를 통한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출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2025년에는 브라보비버대구와 하트하트아트앤컬쳐에 신규 출자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총 5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출자를 통해 65명의 장애인 고용 인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라보비버 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이 문구류, 견과류, 제과, 커피 등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트하트아트앤컬쳐는 발달장애인이 예술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트하트아트앤컬쳐 예술문화 서비스 약 2억 1,000만 원을 구매하여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하고 발달장애 청년으로 구성된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분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동 참여형 환경교육 「숲 캠페인」

초록우산과 협력하여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아동 2,400명을 대상으로 숲·자연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숲 캠페인(작은 씨앗, 큰 숲 만들기)'을 주제로 아동들에게 반려식물 키트를 제공하여 직접 씨앗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씨앗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전달하며,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숲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 아동



→ 동구중학교(경기 구리시) 금융교육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농업·농촌 지원 추진 체계

농업·농촌 지원 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미래농업 성장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사업의 실행력과 체계를 정비하고, 2027~2028년에는 지원 범위 확대와 성과 확산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며, 2029~2030년에는 첨단기술과 연계한 농업 생태계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통해 농촌 공동체의 안정성과 농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를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아동에게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아동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고, 8개 군(郡) 농촌 중고등학생에게 희망나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개척과 경연대회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어르신을 위해서는 8개 군 마을 공동체의 노후 냉장고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TEP 01 농촌지역 아동 지원 사업

산불과 폭우 피해, 취약계층 지원 등 농촌지역 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맞춰 2025년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쳐 브라보비버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물품을 기부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초록우산과 협력하여 전국 19개 농촌 지역 3,581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총 약 6억 3,0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 구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아동 지원

농촌지역 아동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 지원

연간 **6.3** 억 원 지원

← 산불피해지역 아동지원

STEP 02 희망나무 장학금 지원 사업

농촌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희망나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대상은 군 지역 여부,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농촌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5개 군에서 각 10명씩 총 50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8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2030년까지 지원 농촌지역을 누적 45개 군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희망나무 장학금

5개 郡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각 10명에게 장학금 150만 원 지급

연간 **1.2** 억 원 지원

← 희망나무 장학금 전달

STEP 03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 개척과 역량 강화 중심의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또는 인지도가 낮은 청년 농업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판매 채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크라우드펀딩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농가의 온라인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매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굴과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24개 농가를 지원하여 1억 2,581만 원의 펀딩을 달성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6개 농가를 지원하여 2,802만 원의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 농업인 온라인 판로 개척,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 지원

연간 **1.5** 억 원 매출 창출 지원

← 라이브커머스

STEP 04 농촌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농촌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이어온 마을공동체 물품 지원이 2025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8개 군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냉장고 352대를 전달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냉장고 지원

8개 郡 마을 공동체에 노후 냉장고 교체 지원

연간 **4.5** 억 원 지원

← 농촌마을 공동체 냉장고 전달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분야의 혁신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기술을 연계하는 'AFPRO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식품 정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 농협 등과 협력하여 산업 전반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자·전문가 매칭 기회를 제공하며, 농식품 분야 투자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애그테크 청년창업 지원

농식품 분야의 기술 기반 창업 확대를 위해 애그테크 스타트업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농협 차원의 심화 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농협 계열사와의 실증 사업 연계(PoC)를 통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농협 희망농업혁신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며, 교육–실증–투자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 청년창업 투자펀드 조성

농업 및 전후방 산업의 청년창업 활성화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풍벤처스가 조성한 총 8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에 LP로 참여하여 1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초기 단계 농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창업기획자의 보육 및 투자과정을 거친 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청년 중심 인력 구조를 갖춘 기업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 경영체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여 청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애그테크 기업 투자펀드 운영

농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애그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NH애그테크 상생혁신펀드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희망농업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유통, 스마트농업 등 디지털 전환 분야와 AI·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하여 농업 현장의 기술 적용과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추진실적

구분	2023(제 1회)	2024(제 2회)	2025(제 3회)
규모	참관객 9,172명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 236社 327개 부스	참관객 8,905명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268社 305개 부스	참관객 8,629명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201社 359개 부스
성과 (만족도)	만족 93.8% 재참여의사 95.1%	만족 85.6% 재참여의사 88.8%	만족 89.8% 재참여의사 88.6%

애그테크 청년창업캠퍼스 추진실적

구분	2023	2024	2025
지원 성과	• 스타트업 발굴: 9팀	• 스타트업 발굴: 11팀 • 농협계열사 PoC: 6팀 • 농산업분야 사업확대: 3팀	• 스타트업 발굴: 7팀 • 농협계열사 PoC: 7팀

애그테크 기업 투자펀드 추진실적

구분	범농협 애그테크 상생혁신펀드	희망농업혁신펀드
펀드 조성 시기	2022년	2024년
총 규모/당사 출자 규모	530억 원/151억 원	511억 원/151억 원
투자 대상	• 농업 생산/유통, 스마트 농업 등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	• AI, 로보틱스 등 농촌 현장 적용 첨단 기술 보유 기업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기존 시설하우스에 ICT 기술을 접목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도입하여 비교적 낮은 구축 비용으로 영농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농협경제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농가·기업·증권 간 연계를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과 투자 지원을 함께 이루어냄으로써,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중소·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협 보급형 스마트팜 딸기 농가



→ 애그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동반성장

상생 협력 체계

협력사 청렴 관리

협력사 행동규범 살펴보기

협력사를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청렴 의무 이행을 명시한 서약을 통해 상호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서약서는 연 1회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규 및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윤리, 노동 및 인권, 다양성·형평성 및 포용성, 안전보건, 환경보호 등 주요 영역을 포함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사와의 책임 있는 거래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IR 지원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IR 기회가 제한되어 투자자와의 접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맞춤형 기업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몰캡 중심의 IR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NH Mid/Small Cap Corp Day'를 개최해 32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로봇, 우주, 스테이블코인, AI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Corp Day를 운영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참여 기업은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정보 접근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에게도 기업 전략과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협업 및 생태계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펀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서 NH벤처투자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어 조성한 NH-G펀드에 45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해당 펀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하는 기업,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기술평가등급 TI-6 이상 중소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성장금융이 주관하는 기술혁신전문펀드에 참여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NH-OC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를 결성하고 65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해외 VC와 NH벤처투자가 공동운용(Co-GP)하는 구조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두 펀드를 통해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산학협력

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 서비스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와 협력하여 총 10개월간 3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과제는 개인화 추천 시스템, AI 에이전트, 금융 뉴스 및 시장 분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내부에 반영하고, AI 기술을 조직 내 역량으로 축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과정에서 최신 학계 트렌드와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내부 AI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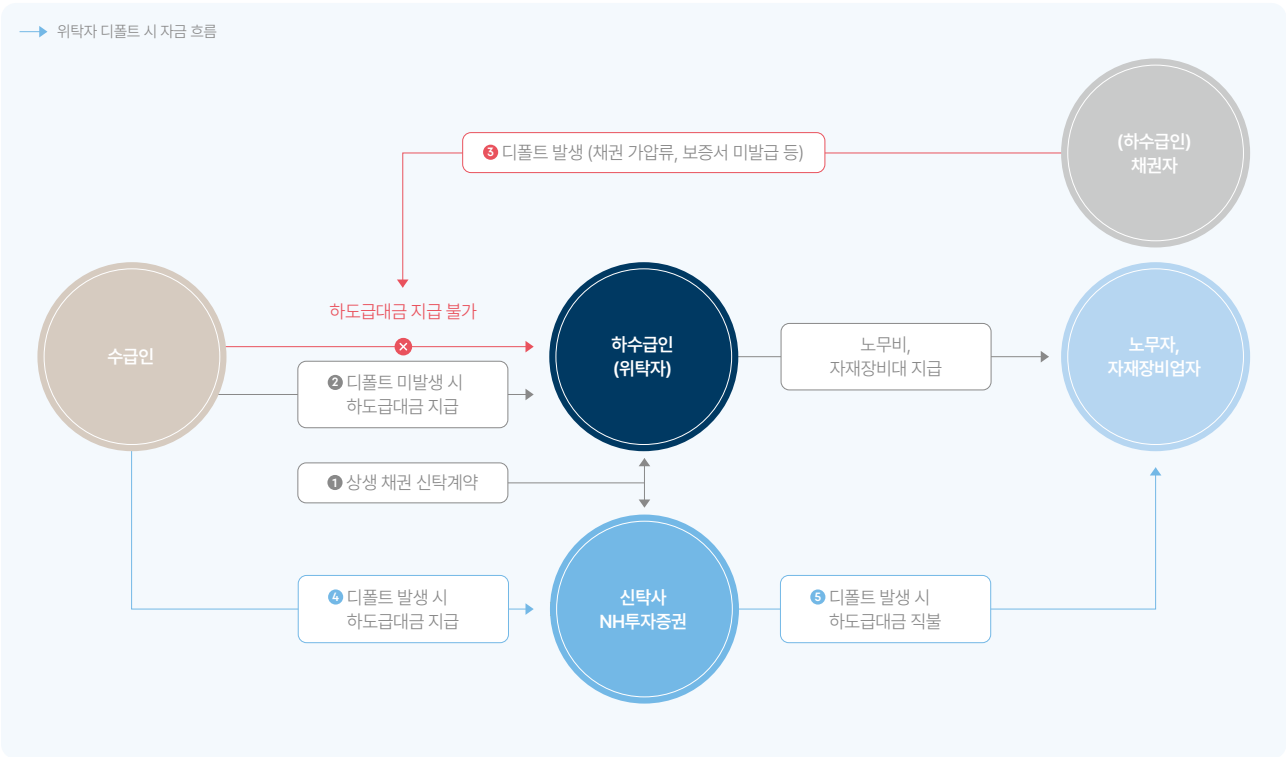
상생 금융

상생채권신탁시스템 운영

건설산업 구조상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 하위 공사 참여자의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2023년부터 수천여 하수급사와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하는 상생채권신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보유한 하도급대금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공사대금을 신탁 계좌를 통해 입금·관리함으로써 각종 대금이 체불 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하위 공사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 지연 등 건설현장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 1만여 조합원사에 상생채권신탁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한경제건설대상 '건설금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원가분담의무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도급채권신탁을 선보이며 건설산업 내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생채권신탁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1
2
3 FACTS & FIGURES

PRINCIPLE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윤리·준법 체계, 전사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기후 리스크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하며, 형식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Board Accountability Action 93
이사회 책임경영 94
윤리·준법경영 99
리스크 관리 103

Finance in Action for Governance

지배구조는 단순한 관리 체계가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높아지는 요구 속에서 기존의 방식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



01

이사회 책임경영

균형과 전문성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다

이사회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지만, 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평가,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사안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02

윤리·준법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다

금융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규정 준수만으로는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윤리경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조직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제도와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리스크 관리

선제적 관리로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다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리스크 관리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전사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위험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와의 연계를 통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04

기후 리스크 관리

변화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다

기후변화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로, 기존 관리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를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점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체계라고 보기 어렵지만, 기후 리스크가 재무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책임경영

이사회 구성

이사 선임 프로세스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선임으로 이어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발굴, 역량 평가, 자격 검증 단계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며, 대표이사의 경우 경영승계절차 개시보고 후 40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현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군 98명, 사외이사 후보군 120명을 관리하며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정책 살펴보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2026년 3월 말 기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고 이사회 의장 역시 사외이사가 맡아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연임이 가능하며,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 내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으로 재임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1.2년입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산하 위원회 활동, 지배구조 관련 주요 규정 등은 홈페이지와 지속가능통합보고서·지배구조보고서·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이사회 다양성 정책 살펴보기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건강한 지배구조의 근간입니다. 금융·경영·경제·법률·지속가능경영·회계·IT/Digital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전담 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이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별·연령·경력·전문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며, 여성 사외이사 2명 선임으로 여성 이사 비율 2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1]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독립성	이사 유형	사내이사	2	1[2]	1
		사외이사	5	5	5
		비상임이사	1	1	1
다양성	성별 비율	남성	87.5	85.7	71.4
		여성	12.5	14.3	28.6
	연령별 비율	만 50세 이상	100.0	100.0	100.0
전문성	전문 분야[3]	금융	3	3	3
		경영	2	3	4
		경제	3	3	2
		법률	1	0	1
		지속가능경영	1	1	0
		회계	2	1	1
		IT/Digital	0	1	1

1) 각 연도 말 기준
2) 2024년 말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 제도 폐지에 따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3) 각 이사의 복수 전문 분야 보유로 전문 분야 합계와 이사 총원 상이 가능

이사회 책임경영

이사회 구성

2026년 이사회 구성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구분	성명	성별	재임기간[1]	주요이력	전문분야	담당위원회
사내이사	신재욱(대표이사)	남	2026.06.30.~	• NH투자증권 부동산인프라사업부 대표 • 現)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금융 경영	-
	배광수(대표이사)	남	2026.06.30.~	•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 • 現)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금융 경영	-
사외이사	민승규(이사회 의장)	남	2024.03.27.~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경제정책실장), 자문역 •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경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강주영	여	2024.03.27.~	• 한국빅데이터학회 이사(편집위원장) • 現)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부회장) • 現) 아주대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교수	경영 IT/Digital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서은숙	여	2025.03.24.~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 現)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소비자보호 분과위원 •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금융 경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ESG위원회
	신진영	남	2026.03.26.~	• 기업지배구조연구원(현 ESG기준원) 원장 •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現)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 경제 지속가능경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김이배	남	2026.03.26.~	•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 • 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現)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경영 회계 지속가능경영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안성욱	남	2026.06.30.~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 現)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	법률	-[2]

1) 재임기간은 최초선임일 기준
2) 담당위원회는 2026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이사회 책임경영

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현황

분기 정기 이사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수시 소집하며 이사회 운영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6회의 이사회를 통해 의결 56건, 보고 3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경영실적, 주주총회 관련사항, 지속가능경영 현황 등 폭넓은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의결되며, 사전 자료 공유를 통해 이사들의 안건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사회 활동 현황

단위: 건, %

구분		활동현황
개최 수		16
의결안건 수		56
보고안건 수		35
출석률	사내이사	100.0
	사외이사	100.0
	비상임이사	100.0

이사회 역량 강화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는 실효적인 관리·감독의 전제 조건입니다. 매년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략·위험관리·지속가능경영·회계 분야를 아우르는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 역할과 책임,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금융당국 감독 동향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도입으로 교육 방식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육 내용	교육일자
전략	사업부별 경영계획	2025.01.23
경영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	2025.04.29
	개정 상법의 내용과 대응	2025.08.28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분석	2025.09.11
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	2025.06.30
		2025.09.15
		2025.10.30
	금융보안	2025.11.28
지속가능경영	기후 리스크 관리	2025.12.23
회계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이해 및 효과적 운영 방안	2025.09.25

이사회 평가 및 보수

임원 보수정책 살펴보기

이사회와 보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진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영목표·KPI 달성도를 기준으로 보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에 반영됩니다. 사외이사·비상임이사는 자기·상호·직원 평가와 이사회·교육 참여도를 종합한 다면평가로 평가합니다. 2025년 4월에는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평가등급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자기평가 배점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한 반면 교육참여 항목을 10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진 성과보수는 50%를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가상주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며, 대표이사 및 고액 성과급 수령자에게는 40% 즉시 현금, 60% 가상주식 이연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과실이나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지급분과 이연지급분 모두 환수·취소합니다.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행 여부는 매년 평가되며, 결과는 이사회 보고를 거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됩니다.

임원 보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보수 총액[1]	등기이사[2]	1,359	6,363	1,998
	사외이사[3]	70	143	141
	감사위원회 위원	482	413	196
1인당 평균 보수액	등기이사[2]	453	2,121	999
	사외이사[3]	23	36	28
	감사위원회 위원	96	103	65

1) 중도 선임·퇴임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포함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이사회 책임경영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한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핵심 감독 기구로서, 2025년에는 8회의 회의를 통해 의결 18건, 보고 9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석률 100%로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발굴과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직무 공정성·윤리성·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정합니다. 2025년에는 총 6회 개최하여 9건의 안건을 전원 의결하였으며, 출석률 100%를 기록하며 위원회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전사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경영·금융·리스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자본금 관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장합니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 유형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핵심 기능으로 담당하며,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경영 전반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조율합니다. 2025년에는 3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 2건, 보고 6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원 출석 속에 지속가능경영 감독 역할을 빠짐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

2025년 3월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산하 전문 감독 기구입니다.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수립과 직업윤리·준법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방안을 심의·의결하며, 책무구조도 작성 대상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기능을 통해 리스크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에는 총 5회 개최하여 의결 6건, 보고 2건을 처리하였으며, 100% 출석률로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

성과보상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체계가 재무상황과 위험요소에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명이 함께 참여하며, 경영진의 성과 목표 설정·평가와 보상체계 및 지급 방법 등 보수 관련 사항을 검토·결정합니다. 2025년에는 총 6회 개최하여 의결 8건, 보고 1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든 위원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며 출석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사회 책임경영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3	2024	202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수		6	7	6
	의결안건 수		8	10	9
	보고안건 수		0	1	0
	출석률	사외이사	100.0	100.0	100.0
		비상임이사	100.0	100.0	100.0
감사위원회	개최 수		7	7	8
	의결안건 수		14	15	18
	보고안건 수		9	6	9
	출석률	사내이사	100.0	100.0	N/A[1]
		사외이사	100.0	100.0	100.0
보수위원회	개최 수		5	6	6
	의결안건 수		7	8	8
	보고안건 수		0	1	1
	출석률	사외이사	94.4	95.7	100.0
		비상임이사	100.0	N/A[2]	N/A

구분			2023	2024	2025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수		7	7	10
	의결안건 수		5	11	11
	보고안건 수		11	9	10
	출석률	사외이사	95.0	95.2	95.5
		비상임이사	100.0	100.0	100.0
ESG위원회	개최 수		3	3	3
	의결안건 수		2	1	2
	보고안건 수		6	6	6
	출석률	사외이사	100.0	88.9	100.0
		비상임이사	100.0	100.0	100.0
내부통제위원회[3]	개최 수		-	-	5
	의결안건 수		-	-	6
	보고안건 수		-	-	2
	출석률	사외이사	-	-	100.0
		비상임이사	-	-	100.0

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
2) 보수위원회 구성원에서 비상임이사 제외
3) 2025년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윤리·준법경영

윤리경영 실천

윤리헌장 살펴보기

윤리경영 체계

윤리강령 살펴보기 임직원 행동강령 살펴보기

기업의 경제적·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준수 행동원칙을 수립하고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룹사의 윤리헌장을 도입하여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판단 기준과 행동원칙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윤리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내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천

계약 업무 규정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IT 자산 등 민감한 지적 재산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범농협 IT 통합구매'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최근 3년 이내 당사를 퇴직한 인원이 소속된 업체는 계약업무 준칙에 따라 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시 담당자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공사·용역·구매 계약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준법감시인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인식 제고 교육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정기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윤리·준법 관련 동영상 교육과 퀴즈를 제공하여 업무 현장에서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 입사자를 대상으로는 연 2회 윤리경영 관련 사내 규정 및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 교육 현황

단위: 회

구분		2023	2024	2025
윤리·준법 경영 교육	정기 윤리·준법 교육 횟수[1]	1	1	1
	외부강사 초청 교육 횟수[2]	1	1	1
	수시 교육 횟수[3]	29	25	30

1) 전 부서 CM 및 업무팀장
2) 관련부서 임직원
3) 신규 입사직원, 부서별 요청 등

협력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지원

기업 윤리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 및 정보보호 책임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준법감시인 Letter'를 협력사에 발송하여 윤리·준법 경영 기조를 공유하고, 협력사와의 건전한 관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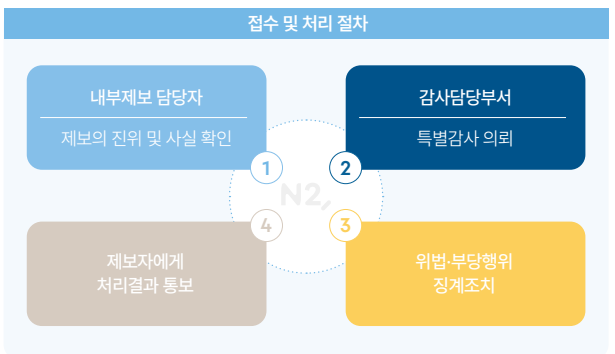
비윤리 신고제도 운영

비리·부패,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성희롱·괴롭힘·차별 등 인권 침해 사안까지 포괄하는 내·외부 신고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방문·우편·전화·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접수된 사안은 준법감시인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징계 및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시행합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내부제보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제보 접근성을 높이고 윤리·인권 이슈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신고채널 및 절차

제보센터 바로가기





윤리·준법경영

내부통제 및 준법 역량 강화

내부통제 거버넌스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 방침 수립과 전략 방향 설정을 담당하고, 내부통제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과 전략을 실무적으로 운영합니다. 각 내부통제 부서는 법규 준수 모니터링, 법률자문,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조직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윤리적 경영 문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통제 거버넌스



내부통제시스템 외부 인증 취득

윤리경영 및 법규 준수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활동 전반의 법규·규제 리스크 점검, 준법경영시스템 및 뇌물방지·윤리경영 체계 구축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심사를 통과하여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2024년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ISO 37301/37001 인증서

내부통제 활동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의 준수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위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과 자문을 통해 현업의 법령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부서장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내부통제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전담인력(BUCO, Business Unit Compliance Officer)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서류·녹취 점검 업무를 이관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 점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윤리·준법경영

윤리경영 실천

반부패

단위: 명, 건, %

구분			2023	2024	2025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대한 공지와 교육	공지 또는 교육을 받은 이사회 멤버 수		8	6	7
	공지 또는 교육을 받은 이사회 멤버 비율		100.0	100.0	100.0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구성원 수		2,881	2,911	2,953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구성원 비율		99.3	97.2	99.1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협력회사 수		173	86	176
	공지 또는 훈련을 받은 협력회사 비율		70.3	69.4	89.8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부패 사례의 수	내부자 제보건수	2	1	1
		외부자 제보건수	2	5	0
	해고나 징계를 받은 사례 건수	내부자 조치건수[1]	0	1	0
		외부자 조치건수	0	0	0
		내부자 조치율	N/A	100.0	N/A
		외부자 조치율	N/A	N/A	N/A
	부패로 인해 파트너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 건수		0	0	0
내부제보특별기간운영			2	1	4

1)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임직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

법률 및 규제 준수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23	2024	2025
현재 보고 기간에 발생한 법률 및 규제 미준수 사례[1]	벌금의 총 건수	3	4	0
	벌금액	1,975.2	64.4	0.0
이전 보고 기간에 발생한 법률 및 규제 미준수 사례[2]	벌금의 총 건수	4	3	4
	벌금액	1,708.2	1,361.8	2,151.5

1) 실제 납부금액으로 2024년 건수 및 금액 변경
2) 실제 납부금액으로 2023~2024년 건수 및 금액 변경

선물반송센터 운영 현황

단위: 건

구분[1]	2023	2024	2025
반송	0	1	0
기탁	2	0	2

1) 해당연도 명절 기간 중 선물반송센터 운영결과 집계

윤리·준법경영

내부통제 및 준법 역량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2024년 7월 시행)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이사회 승인을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였으며, 도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투자업 대상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규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신설하고, 법률 전문가 주도하에 책무구조도 관리, 사규 제·개정 검토, 이사회 안건 사전 검토, 내부통제협의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하여 임원의 책무 설정부터 내부통제 점검활동까지 일련의 과정을 연계한 책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책무구조도에 따른 점검활동을 수행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실시

준법경영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 내부감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사 부서·현지법인·자회사와 일반 영업점은 2년에 1회, 초대형 영업점은 연 1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시재감사·부책감사 등 부문감사는 연 1~2회 주기로 진행합니다. 감사 결과와 주요 위법 사항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유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2025년에는 총 1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108건, 부문감사 23건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112건, 2024년 109건에 이어 내부감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실시 현황

단위: 회

구분	2023	2024	2025
종합감사	95	85	108
부문감사	17	24	23
합계	**112**	**109**	**131**

자금세탁 방지 활동

고객확인제도(CDD)를 기반으로 고객 신원확인·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자금세탁 악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또는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최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의심계좌 식별 시에는 즉시 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전사 차원의 자금세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자금세탁 방지 활동 평가에서 운영위험지표 '우수' 등급을 달성하여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금융사고 예방 교육

금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발생원인, 내부통제의 중요성, 구체적 통제 방안 등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부 임직원에 한정되었던 교육을 전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 6회 정기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의 체계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교육 실시 후에는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 양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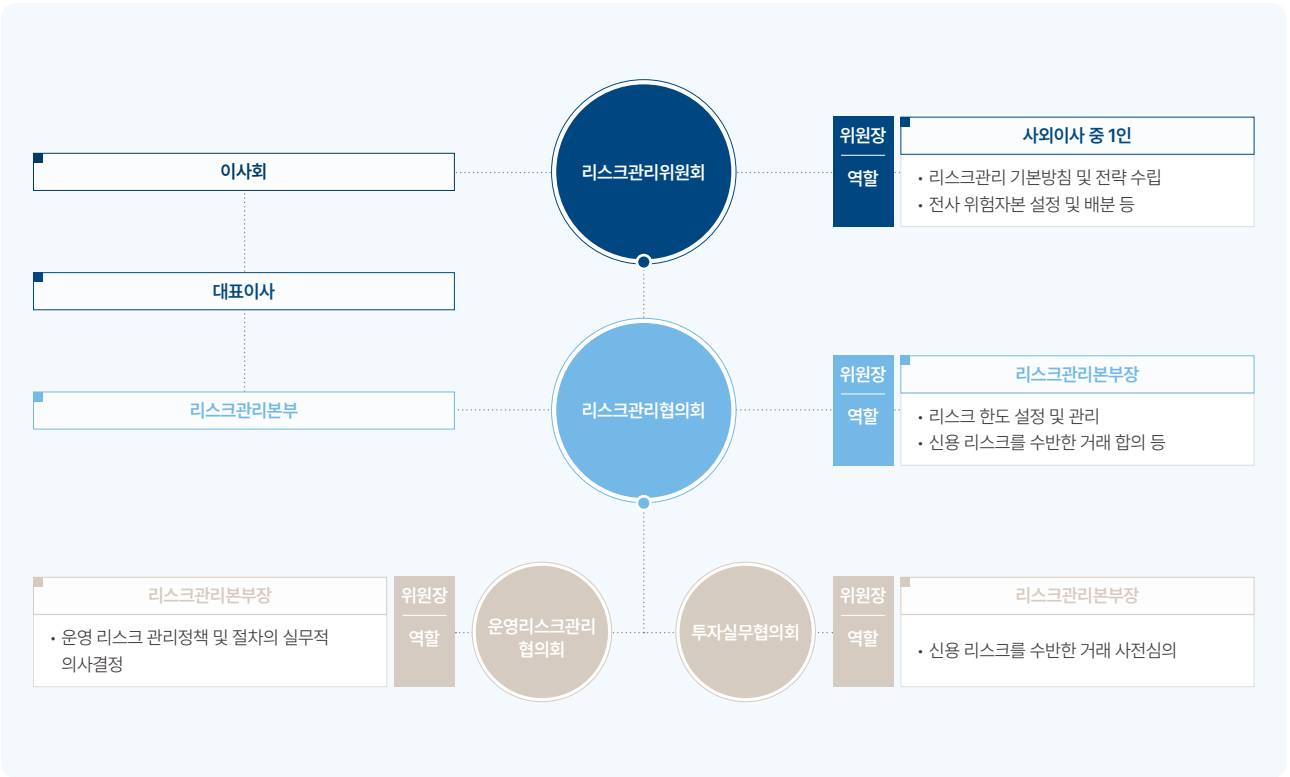
대표이사 직속의 리스크관리본부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기획, 한도 관리, 규제비율 관리, 심사, 감리 등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유형별 관리 현황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예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활동

업무연속성계획(BCP) 운영

IT시스템 장애, 전염병, 화재·지진 등 비상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BCP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 기반 체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전사 필수업무 수행 부서를 식별하고, 업무별 목표복구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기준 복구 우선순위와 필수업무인력을 지정하였으며, 대체사업장 구축·점검 및 BCP 모의훈련을 통해 실행력을 검증하였습니다. IT 부문에서는 비상 매뉴얼에 따라 BCP 운영위원회를 가동하고, 핵심 기능 담당자 손실 및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활동

리스크 요인

Risk 01
IMA(종합투자계좌) 新사업 진출

- 생산적 금융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중소·중견기업 등)에 따라 투자자산 구조 및 리스크 특성의 복잡성 증가
- 모험자본 심사 품질 리스크 발생 등

Risk 02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국제통상 불확실성 및 지정학 리스크 등의 이슈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 채권·주식·대체자산 등 전반의 시장/신용 리스크 관리 중요성 증대

Risk 03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 감독규제 대응과 정합성 높은 리스크 관리 필요
- 고유자산 외 대고객자산 관리 강화 기조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STEP 1. IMA Biz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 IMA Biz 거버넌스 구축
- 모험자본 심사절차 수립
- 모험자본 사후관리 강화

STEP 2. 고위험군 관리 강화

- Biz별 고위험군 선별, 심사, 집중위험, 셀다운, 사후관리 강화
- 상시점검으로 실질 리스크 대응
- 대고객 판매 고위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강화

STEP 3. 리스크 관리 Infra 고도화

- 리스크 관리시스템 차세대 개발 프로젝트 수행
- 리스크 관리 제규정 고도화
-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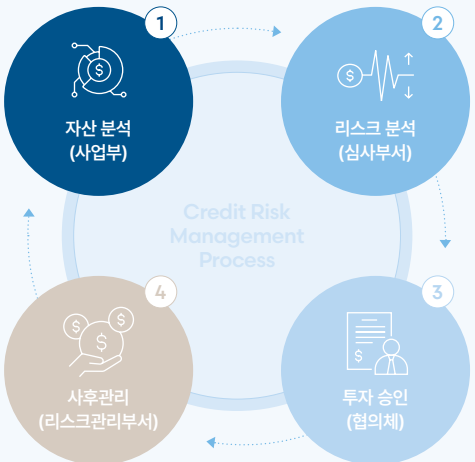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거액손실 통제 관리체계 구축

리스크 관리 수단

구분	내용
민감도 측정	주가, 이자율, 환율, 변동성 등 시장위험 요인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화 측정
위기상황분석 (Stress Test)	시장위기 등 예외적인 사건 설정,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측정
위험성향 (Risk Appetite)	가용자본 대비 위험자본[1]의 비중: 2025년 위험성향 72.7%

1) 자산의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분된 자본

신용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활동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리스크 유형	내용	NH투자증권관리방안
시장 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화로 투자 자산의 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손실 리스크	• 가치평가 및 리스크 측정에 사용되는 파생상품 모델 수시 검증 • 손익 및 위험 측정치 왜곡 리스크 최소화
신용 리스크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하락,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거래 규모에 따라 신용한도 차별적 부여 • 신용등급 및 거래 규모별 의사결정 프로세스 차별화로 자산 건전성 제고
유동성 리스크	자산 유동성 부족으로 대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위험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일별 자산, 부채 및 부외거래 포지션 분석으로 유동성 및 금리 리스크 측정 • 자금부서와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전사 유동성 모니터링 및 통제,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역할 수행 • 유동성 관리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운영 리스크	업무 수행 중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리스크	• 전사 운영 리스크 관리시스템(ORMS, Operating Risk Management System) 구축 • 조직별 리스크 매니저가 일별·월별 정기적 리스크 통제 자가평가 수행 및 핵심 리스크 지표 관리 • 조직별 정기적인 리스크 수준 점검 실시, 잠재적 운영 리스크 통제
환경 리스크	환경문제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 리스크	• 발전소·석탄 터미널 등 비환경적 사업 및 기업 대상 지분투자, 대출 등 통제
ESG 리스크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세 가지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전 임직원 대상 ESG 이해도 제고 교육 실시 • 딜 심사과정에서 기업 ESG 관련 공시자료 검토, 외부 전문가보고서 참고, 의무적 실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고객 사업등급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구축 • ESG를 고려한 심사프로세스 고안 및 정착 • 기업 신용등급 평가시스템 내 ESG 요인 적용, 개선 계획 및 비재무 평가항목 도출

ESG 관련 기업신용등급 평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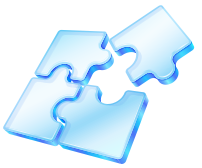
APPENDIX

중대성 평가 107
재무성과표 114
GRI CONTENT INDEX 122
SASB INDEX 125
UNGC 127
UN SDGs 128
제3자 검증의견서 130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132
주요 수상 및 협회 가입 현황 133

중대성 평가

경영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요인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IRO(Impact, Risk, Opportunity)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슈별 실무 부서 타겟 설문을 진행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측정했습니다. 외부 전문 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15개 중대 이슈 전체에 대한 영향 크기와 영역별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도출된 중대 이슈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습니다. 아울러 제3자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중대 이슈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01

이슈 풀 구축

글로벌 공시 표준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잠재 이슈 풀 구축

이슈 풀 구성

- GRI, SASB, ESRS 등 국제 공시 기준 반영
- 산업군 이슈 및 동종사 중대 이슈
- 전년도 이슈풀

이슈 풀(pool)

60개



STEP. 02

중대 이슈 도출

비즈니스 환경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이슈 식별

중요도 테스트

- 내부 지속가능성 관련 전략 분석
- 미디어 분석
- 국내외 Peer 벤치마킹
- ESG 관련 표준 및 평가지표 분석
- 국내외 법·규제 분석

중대 이슈 도출

15개



STEP. 03

영향 식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IRO 프레임워크 기반의 잠재적
영향 식별 및 이해관계자 중심 영향도 평가

IRO 분석

- 15개 이슈의 사회·환경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 식별, 유형에 따라 IRO 분석

이슈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식별된 IRO 항목을 바탕으로 이슈별 전문성을 보유한 유관부서 대상의 타겟 설문
- 외부 전문 기관 검토



STEP. 04

중대 이슈 선정

15개 중대 이슈별 유형별
영향 분석 및 특성 도출

영향의 크기 분석

- 비즈니스 연관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의 수준을 계량화하여 결과 도출
- 최고의사결정기구(ESG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한 핵심 이슈 선정

중대 이슈 영향 평가 결과 도출

15개

중대성 평가

2025년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15개의 중대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2024년 대비 일부 중요 주제가 조정되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는 이슈 풀 재구성 과정에서 중요 주제로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은 고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대출이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은 범농협의 일원으로서 NH투자증권이 수행하는 차별적 역할을 반영하여 중요 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포용적 조직문화 및 다양성'과 '이해관계자 인권 및 사회적 가치'는 임직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인권·다양성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심이 높아진 점을,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와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는 책임투자와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가 사업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도출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도출된 15개 이슈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영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고 영향의 특성이 뚜렷하게 식별된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5개 이슈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세한 추진 활동과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대성 평가 결과

구분	중대 이슈 보고	보고 페이지
Environmental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영	38-57p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56p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31, 58p
Social (사회)	인적자본 역량	82p
	포용적 조직문화 및 다양성	79-80p
	이해관계자 인권 및 사회적 가치	32, 79p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75-78p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68-71p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72-74p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88-89p
Governance (지배구조)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26-28p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99-102p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103-105p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94-98p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29-31p

중대성 평가 3개년 결과

색상표기: 3년 연속 중요이슈

영역	2023년	2024년	2025년
	중요이슈 12개	중요이슈 10개	중요이슈 15개
Environmental (환경)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영**
		녹색금융 비즈니스 추진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Social (사회)	**고객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역량 개발 및 교육	**임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	**인적자본 역량**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경쟁력 확보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포용적 조직문화 및 다양성
	인재채용 및 이직		
		고객만족도 제고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이해관계자 인권 및 사회적 가치
Governance (지배구조)	**윤리·컴플라이언스 준수**	**컴플라이언스 준수**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지배구조 건전성 강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통합 리스크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책임투자 확대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경제적 성과 창출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중대성 평가

영향의 크기: ●●● 영향수준 '큼' ●● 영향수준 '보통' ● 영향수준 '작음'

구분	이슈	가치사슬 내 위치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설명	영향 중대성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설명	재무 중대성		
					영향 크기	실재/잠재	긍정/부정	발생 시기			영향 크기	위험/기회	발생 시기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경영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및 유관 기관	기후공시 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및 신뢰 제고	금융기업은 TCFD 등 기후공시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체계적 공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해관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자본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기후 리스크 인식 제고에 기여합니다.	●●	실재	긍정	장기	평가 저하에 따른 해외 투자 제한 및 자본 조달 비용 상승 위험	기후 관련 공시 및 대응 체계가 미흡할 경우, 글로벌 ESG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아 해외 투자자의 투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위험	중기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및 유관 기관	금융배출량 관리 미흡 시 탄소감축 지연 및 탄소중립 전환 저해	투자·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반의 탄소감축 노력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전환 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킵니다.	●●	잠재	부정	장기	관리 미흡 시 좌초자산 노출 및 고탄소 포트폴리오에 따른 투자 배제	고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 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좌초자산(Stranded Assets)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탈탄소 포트폴리오 선호 추세에 따라 투자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험	중기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재생에너지 PF 참여를 통한 친환경 산업 자금 유입 및 전환 기여	금융기업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및 녹색금융 상품 확대를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집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잠재	긍정	중기	녹색채권 인수 및 ESG 펀드 확대를 통한 선도 기업 지위 강화	녹색채권 인수 및 ESG 테마 펀드 확대는 친환경 금융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전환금융 분야의 선제적 진출은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기회	단기
사회	인적자본 역량	임직원	인재 유출 및 전문성 미흡 시 금융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저하	금융 전문인력의 유출과 역량 부족은 투자 자문,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신뢰 약화와 금융 서비스 전반의 안정성 저하를 초래하며, 건전한 자본시장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실재	부정	중기	우수 인재 이탈로 조직 경쟁력 저하 및 채용·역량 개발 비용 증가	핵심 인재의 이탈은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비용과 교육·역량 개발 투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인적자본 관리 역량의 저하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	중기
	포용적 조직문화 및 다양성	임직원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과 다양성 정책을 통한 공정한 성장 기회 제공	금융기업은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과 다양성·형평성 정책 수립을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여, 건전한 조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합니다.	●●	잠재	긍정	중기	다양한 관점의 의사결정을 통해 리스크 식별 강화 및 새로운 시장 포착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구성원의 참여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잠재적 리스크를 다각도로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장기적인 수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기회	장기

중대성 평가

영향의 크기: ●●● 영향수준 '큼' ●● 영향수준 '보통' ● 영향수준 '작음'

구분	이슈	가치사슬 내 위치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설명	영향 중대성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설명	재무 중대성		
					영향 크기	실재/잠재	긍정/부정	발생 시기			영향 크기	위험/기회	발생 시기
사회	이해관계자 인권 및 사회적 가치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인권경영 체계 이행 미흡 시 인권침해 발생 및 기업 인지도 하락	인권경영 체계의 이행이 미흡할 경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실재	부정	단기	인권 논란에 따른 ESG 평가 하락 및 해외 투자자의 투자 회피	인권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ESG 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해외 기관투자자의 투자 회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 유치 기회의 축소와 기업 가치 저하로 이어져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험	단기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를 통한 고객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금융기업은 정보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	잠재	긍정	단기	유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배상금·과징금 발생 및 고객 이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사고는 기업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장기적인 영업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	위험	단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고객, 정부 및 유관기관	완전판매 프로세스 운영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접근성 개선	금융기업은 완전판매 프로세스의 철저한 운영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잠재	긍정	단기	불완전판매 시 소송·제재 비용 발생 및 평판 하락에 따른 손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소송 및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직접 비용이 발생하고, 평판 하락에 따른 고객 이탈로 간접적인 수익 감소가 초래됩니다. 이는 영업 경쟁력 약화와 시장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	단기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고객, 임직원	AI 서비스 및 비대면 채널 확대로 금융 접근성 및 고객 유치 향상	금융기업은 AI 기반 서비스 및 비대면 디지털 채널 확대를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잠재	긍정	단기	디지털 고도화로 영업점 운영비 절감 및 고객 증가로 수익 확대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는 오프라인 영업점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로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는 운영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에 동시에 기여합니다.	●●●	기회	단기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지역사회, 정부 및 유관 기관	농업금융 및 교육 운영을 통한 금융 소외계층 접근성 개선과 지역 활성화	금융기업은 농업금융 지원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농 간 금융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	잠재	긍정	중기	사회공헌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역사회 상생 활동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평판을 제고하여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농업·농촌 분야의 전문 금융서비스 확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수익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회	장기

중대성 평가

영향의 크기: ●●● 영향수준 '큼' ●● 영향수준 '보통' ● 영향수준 '작음'

구분	이슈	가치사슬 내 위치	사회·환경적 영향 (Impact)	설명	영향 중대성				재무적 영향 (Risk / Opportunity)	설명	재무 중대성		
					영향 크기	실재/잠재	긍정/부정	발생 시기			영향 크기	위험/기회	발생 시기
지배구조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수익성 제고 및 주주환원 강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장기 가치 제공	수익성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는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용 유지와 지역사회 경제 기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잠재	긍정	단기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유리한 조건의 자본 조달 및 성장 동력 확보	중장기 경영 성과의 안정적 창출은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여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회	단기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정부 및 유관 기관	체계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법규 위반 차단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금융기업은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합니다.	●●	잠재	긍정	단기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등 직접 손실 및 자본 조달 비용 상승 위험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 직접적인 재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영업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신용도 하락과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	단기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주주 및 투자자, 고객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소통 강화로 경영 투명성 및 신뢰 제고	금융기업은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과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정보의 적시 공유를 통해 건전한 금융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실재	긍정	단기	관리 미비 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중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및 유관기관	이사회 독립성, 다양성 등 부족 시 의사결정 품질 저하 및 신뢰도 약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경영 의사결정의 질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	잠재	부정	중기	지배구조 등급 하락에 따른 투자 제한 및 전략 실행력 약화 위험	지배구조 평가 등급의 하락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준 미충족으로 이어져 투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의 약화는 전략 실행력 저하와 경영 리스크 증가로 연결되어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위험	단기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책임투자 원칙 적용을 통한 유해산업 지원 축소 및 ESG기업 자본 흐름 촉진	금융기업은 책임투자 원칙을 투자 프로세스에 내재화하여 유해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축소하고, ESG 우수 기업으로의 자본 흐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합니다.	●●●	잠재	긍정	중기	ESG 리스크 기업 투자 회피로 포트폴리오 안정 및 자금 유치 확대	ESG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사전에 회피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자 역량 강화는 ESG 관심 투자자의 자금 유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운용자산 규모 성장에 기여합니다.	●●●	기회	중기

중대성 평가

구분	이슈	접근 방식	NH투자증권 대응 전략	주요 활동 성과	UN SDGs
지배구조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투자정책에 따라 투자 실행 전 환경·사회적 영향을 사전 점검하고, ESG 스크리닝 기준을 수립·적용하여 지속가능성 기반 투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회투자정책 기반 네거티브 스크리닝 및 4단계 투자 심사 프로세스 운영 • 녹색금융 확대 및 ESG채권 인수·투자 • 녹색여신 적합성 관리 체계 운영	단위: 건, 억 원 구분 / 2024 / 2025 지속가능성 투자 심사 / 128 / 297 ESG채권 투자 / 9,871 / 15,475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밸류업 정책 기조에 발맞춰 투자자 중심의 가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목표와 재무 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 및 주주 환원 공시 • 전자투표제 도입 및 투명한 공시 이행체계 구축 •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운영 및 지속가능한 ROE 확보	단위: %, 억 원 구분 / 2024 / 2025 ROE / 8.7 / 11.8 당기순이익 / 6,867 / 10,315	
사회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AI·디지털 기반 투자정보 경쟁력 강화와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독형·생성형 AI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AI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상품 라인업을 넓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스쿼드 기반 조직 운영 및 AI 2-Track 전략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강화 • Terminal X, Seeking Alpha, 벤징가뉴스 등 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 출시 • 하이브리드 연금 자산관리 및 IRP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운영	단위: 만 명, 만 건 구분 / 2024 / 2025 디지털 고객 / 524 / 572 AI기반 대고객 서비스 사용 / 344 / 802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NH농협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농업 금융 및 지역 균형 발전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운영 • 애그테크 청년창업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생태계 육성 • 농촌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단위: 억 원, 건 구분 / 2024 / 2025 농촌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 - / 6 애그테크 스타트업 발굴 / 11 / 7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AI 확대와 규제 강화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며, 국제 인증에 대한 정기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ISMS-P·ISO 27001·ISO 27701·Global CBPR 등 국내외 인증 유지 • CISO·CPO·CIAP 일원화 및 정보보호위원회 수시 운영 • Zero Trust 기반 보안 환경 구축 및 자율보안체계 고도화	단위: 건 구분 / 2024 / 2025 침해사고 대응 훈련 / 6 / 8 개인정보보호 위반 / 0 / 0	

중대성 평가

NH투자증권은 주주·투자자,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를 핵심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다각적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집된 제언은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이해관계자와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현황 및 주요 소통채널

주주 및 투자자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소통주기	주요 관심 이슈	주요 성과
주주총회	연 1회	•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 • 통합 리스크 관리 • 윤리·컴플라이언스 준수 • 경제적 성과 창출	•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제도 도입 • 전자투표제 운영 •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운영
경영공시	분기별		
투자설명회	필요시		
IR활동	상시		
홈페이지	상시		
주주전화	상시		



정부 및 유관기관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소통주기	주요 관심 이슈	주요 성과
보도자료	필요시	• 공정거래 • 정부정책 및 규제변화에 대한 대응	•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 실무자 공시 관련 교육 실시 • 납세의 의무 이행 • UNGC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참여
공청회	필요시		
세미나 및 간담회	필요시		
금융감독원	필요시		

임직원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소통주기	주요 관심 이슈	주요 성과
경영전략회의	월별	•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 우수인재 채용 및 역량 개발 • 임직원 복지 및 기업문화 개선 • 임직원 산업안전보건 • 임직원 인권 및 다양성 확보	• 지분투자형 장애인 고용창출 지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취득 • 임직원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내방송	월별		
인트라넷	상시		
임직원만족도 조사	연 1회		
노사협의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지역사회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소통주기	주요 관심 이슈	주요 성과
사회공헌단	상시	• 서민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 중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 •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천사펀드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홈페이지	상시		
사회공헌 활동 성과 측정	상시		

고객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소통주기	소통채널 및 대응활동	소통주기	주요 관심 이슈	주요 성과
VOC, 챗봇 노아	상시	투자설명회	필요시	• 고객 정보보호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 고객 커뮤니케이션 • 고객관계 및 만족도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필요시	SNS 채널	상시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증권사 부문 3년 연속 1위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 '소셜아이어워드' 금융혁신대상 수상 • 투자 위험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위험경보시스템' 가동
NH투자증권 각 지역 영업점	상시	모바일 앱	상시		

재무성과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59(당)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58(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630,830	1,584,4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7,615,585	32,131,5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259,648	8,228,10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0,621,106	19,323,93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534,007	471,930
유형자산	114,332	138,608
투자부동산	280,214	289,526
무형자산	62,111	98,625
사용권자산	62,197	82,016
당기법인세자산	110,675	7,077
이연법인세자산	8,706	22,630
기타자산	85,987	48,563
자산 총계	83,385,398	62,427,065
부채		
예수부채	13,001,131	7,971,8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3,209,597	12,163,479
차입부채	32,673,430	24,446,513
발행사채	4,707,188	2,850,402
기타금융부채	9,714,566	6,179,344
충당부채	54,570	104,799

재무성과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59(당)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58(전)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당기법인세부채	19,711	284,366
이연법인세부채	266,820	16,268
기타부채	300,281	290,707
부채 총계	73,947,294	54,307,696
자본		
지배주주지분	9,433,337	8,114,380
자본금	1,943,851	1,782,560
기타불입자본	2,355,019	1,867,180
기타자본구성요소	539,110	523,792
이익잉여금	4,595,357	3,940,848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99,943	118,280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25,536	(18,337)
비지배주주지분	4,767	4,989
자본 총계	9,438,104	8,119,369
부채와 자본 총계	83,385,398	62,427,065

재무성과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I. 순수수료손익	1,211,726	954,676
1. 수수료수익	1,552,689	1,178,025
2. 수수료비용	340,963	223,349
II. 순이자손익	953,761	801,775
1. 이자수익	1,969,190	1,740,437
유효이자율 적용 이자수익	1,274,136	1,109,66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695,054	630,769
2. 이자비용	1,015,429	938,662
III.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순손익	214,139	(148,682)
IV.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순손익	15,944	9,326
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순손익	(19,484)	(275)
VI.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72,904	87,049
VII. 외환거래손익	67,063	274,620
VIII. 판매비와관리비	1,255,627	1,110,899
IX. 기타의영업손익	305,962	207,577
X. 영업이익	1,420,580	901,069
XI. 영업외수익	84,297	112,926
XII. 영업외비용	157,140	89,138
X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47,737	924,857
XIV. 법인세비용	316,236	238,219

재무성과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XV. 당기순이익	1,031,501	686,638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031,599	686,659
2.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1,006,062	704,998
3. 비지배지분순손실	(98)	(21)
XVI. 기타포괄손익	15,194	146,53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2,732)	174,408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23,428)	17,919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508)	330
3. 해외사업환산손익	(28,796)	156,15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67,926	(27,87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100,555	8,57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조정	8,712	2,260
3. 확정급여의재측정요소	(41,341)	(38,702)
XVII. 당기총포괄이익	1,046,695	833,175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046,916	833,079
비지배지분포괄이익(손실)	(221)	96
기본보통주당순이익	2,882원	1,966원
희석보통주당순이익	2,882원	1,966원
기본우선주당순이익	2,932원	2,016원

재무성과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5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주주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총계
2024년 1월 1일(전기초)	1,782,560	1,867,180	377,373	3,584,666	7,611,779	1,649	7,613,428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연차배당	-	-	-	(278,946)	(278,946)	-	(278,946)
2. 자기주식 소각	-	-	-	(51,532)	(51,532)	-	(51,532)
3. 연결실체의 변동(비지배지분의 변동)	-	-	-	-	-	3,243	3,243
총포괄손익:							
1. 당기순손익	-	-	-	686,659	686,659	(21)	686,638
2. 기타포괄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	17,919	-	17,919	-	17,919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	8,571	-	8,571	-	8,571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	-	-	2,260	-	2,260	-	2,260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330	-	330	-	330
(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38,702)	-	(38,702)	-	(38,702)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156,041	-	156,041	118	156,159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1,782,560	1,867,180	523,792	3,940,847	8,114,379	4,989	8,119,368

재무성과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5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주주지분합계	비지배지분	총계
2025년 1월 1일(당기초)	1,782,560	1,867,180	523,792	3,940,847	8,114,379	4,989	8,119,368
소유주와의 거래 등:							
1. 연차배당	-	-	-	(328,342)	(328,342)	-	(328,342)
2. 유상증자	161,291	487,839	-	-	649,130	-	649,130
3. 자기주식 소각	-	-	-	(48,747)	(48,747)	-	(48,747)
총포괄손익:							
1. 당기순손익	-	-	-	1,031,599	1,031,599	(98)	1,031,501
2. 기타포괄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	(23,428)	-	(23,428)	-	(23,428)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	100,555	-	100,555	-	100,555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손익	-	-	8,712	-	8,712	-	8,712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	(508)	-	(508)	-	(508)
(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41,341)	-	(41,341)	-	(41,341)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28,672)	-	(28,672)	(124)	(28,796)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1,943,851	2,355,019	539,110	4,595,357	9,433,337	4,767	9,438,104

재무성과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5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21,616)	(4,196,698)
1. 당기순이익	1,031,501	686,638
2. 손익조정항목	(1,531,864)	(836,075)
3. 자산 · 부채의 변동	(5,811,430)	(5,171,090)
4. 이자수취액	1,842,698	1,748,291
5. 이자지급액	(839,361)	(802,973)
6. 배당금수취액	323,875	282,257
7. 법인세납부액	(437,035)	(103,74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35,950)	(1,258,1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1,586,190)	(5,027,7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8,604,559	3,816,23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37,388)	(97,027)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65,819	113,069
투자부동산의 취득	-	(2,935)
투자부동산의 처분	-	1,322
유형자산의 취득	(11,252)	(32,136)
유형자산의 처분	980	667
무형자산의 취득	(16,548)	(7,138)
무형자산의 처분	3,397	-
보증금의 증가	(1,314)	(1,347)
보증금의 감소	1,533	12,372

재무성과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59(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58(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NH투자증권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백만 원

과목	당기	전기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	40,454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	-	(33,505)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482,144	4,762,540
차입부채의 순증감	7,578,333	5,446,364
사채의 증가	2,781,295	4,066,549
사채의 감소	(955,000)	(4,190,000)
리스부채의 감소	(34,776)	(35,262)
임대보증금의 증가	304	1,245
임대보증금의 감소	(1,052)	(350)
비지배투자자부채의 감소	(159,001)	(198,771)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유입	649,130	-
배당금의 지급	(328,342)	(278,946)
비지배지분의 증가	-	3,243
자기주식의 소각	(48,747)	(51,532)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024,578	(692,287)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1,783	101,276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84,469	2,175,480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630,830	1,584,469

GRI CONTENT INDEX

표준 사용 성명 NH투자증권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데이터를 GRI 표준 부합(in accordance with) 보고 방식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사용한 GRI 1 GRI 1: Foundation 2021
해당 GRI 산업 표준 N/A

GRI Standard		Disclosure	Location
GRI 2 : 일반공개 (2021)			
조직 및 보고관행	2-1	조직 세부사항	2, 13-19p
	2-2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포함된 법인	2p
	2-3	보고 기간, 주기 및 문의처	2p
	2-4	기존 정보 수정	16, 71, 85, 101p
	2-5	외부 검증	130-131p
활동 및 근로자	2-6	활동, 가치 사슬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	13-20p
	2-7	임직원	80p
	2-8	임직원이 아닌 근로자	80p
거버넌스	2-9	거버넌스 구조 및 구성	94-95p
	2-10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94, 97p
	2-11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95p
	2-12	영향 관리를 감독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23, 95p
	2-13	영향 관리에 대한 책임 위임	23, 94, 95p
	2-1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	23p
	2-15	이해상충	94, 96, 97p
	2-16	주요 우려사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96, 98p
	2-17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96p
	2-18	최고의사결정기구 성과 평가	96p,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7, 28, 32, 81, 82p
	2-19	보수 정책	96p,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83-89, 125-146p
	2-20	보수 산정 프로세스	96, 97p
	2-21	연간 총 보수 비율	81p
전략, 정책 및 관행	2-22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대한 성명서	4-5p
	2-23	정책	30, 68, 78, 80, 82, 85p
	2-24	정책 내재화	23, 59, 64, 68, 72, 75, 79, 85, 90, 99p
	2-25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64, 71, 78, 79, 99p
	2-26	자문 요청 및 우려 제기 메커니즘	64, 99, 101p
	2-27	법률 및 규정 준수	101p
	2-28	협회 회원	133p
이해관계자 참여	2-29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	113p
	2-30	단체협약	79p

GRI CONTENT INDEX

GRI Standard		Disclosure	Location
중요 주제			
GRI 3 : 중요 주제 (2021)	3-1	중요 주제 선정 프로세스	107p
	3-2	중요 주제 목록	108p
경제성과			
GRI 201 : 경제성과 (2016)	201-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EVG&D)	13, 16p
	201-2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기타 리스크와 기회	38-57p
간접 경제적 영향			
GRI 203 : 간접 경제적 영향 (2016)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85-91p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영향	32p
반부패			
GRI 205 : 반부패 (2016)	205-2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101p
	205-3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101p, 제 59기 사업보고서 756-759p

GRI CONTENT INDEX

GRI Standard		Disclosure	Location
Material Topic: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GRI 3 : 중요 주제 (2021)	3-3	중요 주제 관리	111p
조직 고유 지표	-	ESG 투자(녹색금융, 지속가능채권)	31p
Material Topic: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			
GRI 3 : 중요 주제 (2021)	3-3	중요 주제 관리	110p
조직 고유 지표	-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현황	73p
Material Topic: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GRI 3 : 중요 주제 (2021)	3-3	중요 주제 관리	112p
GRI 203 : 간접적 경제 영향 (2016)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	88-89p
GRI 203 : 간접적 경제 영향 (2016)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영향	32p
Material Topic: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GRI 3 : 중요 주제 (2021)	3-3	중요 주제 관리	112p
GRI 418 : 고객개인정보 (2016)	418-1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관련해 입증된 민원	78p
Material Topic: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			
GRI 3 : 중요 주제 (2021)	3-3	중요 주제 관리	111p
조직 고유 지표	-	ROE 현황 및 목표	28p

SASB INDEX

<table>
<tr><th>주제</th><th>코드</th><th>지표설명</th><th>단위</th><th colspan="8">NH투자증권 대응</th></tr>
<tr><td>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td><td>FN-IB-330a.1</td><td>(1) 경영진, (2) 관리자, (3) 전문직,
(4) 기타 모든 종업원의 성별 및 인종/민족 구성비</td><td>%</td><td colspan="8">80, 81, 94, 95p</td></tr>
<tr><td rowspan="3">산업 내 ESG 요소 통합성</td><td rowspan="2">FN-IB-410a.1</td><td rowspan="2">산업별 ESG 요소를 고려한
(1) 인수, (2) 자문, (3) 증권 거래 수익</td><td rowspan="2">수, 백만 원</td><td colspan="8"><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건수</th><th>금액</th></tr>
<tr><td rowspan="2">인수·주선</td><td>온실가스 감축</td><td>9</td><td>1,180,100</td></tr>
<tr><td>자원순환</td><td>-</td><td>-</td></tr>
<tr><td rowspan="5">ESG펀드 판매</td><td>뉴딜</td><td>11</td><td>115,900</td></tr>
<tr><td>ESG</td><td>23</td><td>395,473</td></tr>
<tr><td>SRI</td><td>4</td><td>1,464</td></tr>
<tr><td>해외ESG</td><td>11</td><td>5,568</td></tr>
<tr><td>사모ESG</td><td>2</td><td>12,840</td></tr>
</table></td></tr>
<tr><td>FN-IB-410a.2</td><td>산업별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및
대출 상품의 (1) 수와 (2) 총 가치</td><td>수, 백만 원</td><td colspan="8"><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총계</th><th colspan="2">기업신용공여</th><th colspan="2">채권</th><th colspan="2">집합투자증권</th><th colspan="2">ETF</th></tr>
<tr><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
<tr><td rowspan="5">녹색 금융</td><td>온실가스 감축</td><td>98</td><td>1,392,485</td><td>29</td><td>888,824</td><td>7</td><td>120,395</td><td>22</td><td>352,353</td><td>40</td><td>30,913</td></tr>
<tr><td>자원순환</td><td>9</td><td>109,549</td><td>5</td><td>89,689</td><td>-</td><td>-</td><td>4</td><td>19,860</td><td>-</td><td>-</td></tr>
<tr><td>생물다양성 보전</td><td>2</td><td>7,742</td><td>2</td><td>7,74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오염 방지 및 관리</td><td>1</td><td>9,904</td><td>-</td><td>-</td><td>1</td><td>9,904</td><td>-</td><td>-</td><td>-</td><td>-</td></tr>
<tr><td>물의 지속가능한 보전</td><td>1</td><td>0.2</td><td>-</td><td>-</td><td>-</td><td>-</td><td>-</td><td>-</td><td>1</td><td>0.2</td></tr>
<tr><td rowspan="3">사회적 책임</td><td>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td><td>56</td><td>473,780</td><td>14</td><td>391,371</td><td>-</td><td>-</td><td>25</td><td>71,989</td><td>17</td><td>10,419</td></tr>
<tr><td>공공 인프라</td><td>6</td><td>25,295</td><td>1</td><td>2,020</td><td>-</td><td>-</td><td>3</td><td>22,989</td><td>2</td><td>285.63</td></tr>
<tr><td>ESG 우수기업</td><td>27</td><td>27,123</td><td>-</td><td>-</td><td>-</td><td>-</td><td>3</td><td>9,978</td><td>24</td><td>17,145</td></tr>
</table></td></tr>
<tr><td>FN-IB-410a.3</td><td>해당 산업과 ESG 요소 통합 접근법</td><td>N/A</td><td colspan="8">29p</td></tr>
<tr><td rowspan="2">비즈니스 윤리</td><td>FN-IB-510a.1</td><td>사기, 내부거래, 반부패, 시장 조직 등
기타 금융시장법 위반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총액</td><td>원</td><td colspan="8">101p</td></tr>
<tr><td>FN-IB-510a.2</td><td>내부고발 정책 및 절차</td><td>N/A</td><td colspan="8">99p</td></tr>
<tr><td>직업적 성실성</td><td>FN-IB-510b.4</td><td>주의의무를 포함한 직업적 윤리 및 성실성 이행을 위한 정책</td><td>N/A</td><td colspan="8">99p</td></tr>
</table>

SASB INDEX

주제	코드	지표설명	단위	NH투자증권 대응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FN-IB-550a.1	분류별 국제 금융상의 중요 은행 (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점수	Basispoints(bps)	해당사항 없음
	FN-IB-550a.2	자본적정성평가, 장기 사업전략, 기타 사업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 및 결과	N/A	NH투자증권은 정기적으로 매 반기마다 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위기상황 분석은 '시나리오 설정-위험량 산출-손익 분석-자본비율 분석-보고 및 활용'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거쳐 산출된 분석 결과는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보고해 경영·자본·자금·리스크 관리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부담	FN-IB-550b.1	중요 위험 책임자(MRTs) 선임에 따른 총 보수 변동률(인센티브 비율)	%	리스크 담당 임원의 성과보수는 회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연분(50~60%)을 정액(현금)으로 지급[1] 하고 있습니다.
	FN-IB-550b.2	중요 위험 책임자(MRTs)의 인센티브 중 삭감이나 환수 조치 적용 비율	%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성과보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별도 MRTs만의 비율은 없음), 삭감이나 환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FN-IB-550b.3	거래자의 Level 3 자산 및 채권[2]의 가격 책정에 대한 감독, 제어, 검증과 관련된 정책	N/A	NH투자증권은 금융상품 평가기준을 정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3]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 및 리스크 산출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주관부서는 금융상품의 평가에 이용되는 입력변수, 평가모델, 그 외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를 거래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선택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관리합니다. 시장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의 변화 혹은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정도에 따라 평가주관부서의 결정으로 공정가치서열(Level)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 발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부와 합의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Level을 변경합니다.
활동지표	FN-IB-000.A	거래의 수와 금액(인수·자문서비스·증권화 거래별 구분)	건, 억 원	구분 / 건수 / 금액 IPO 주관 15 6,010 일반회사채 대표주관 182 129,026 유상증자 주관 11 36,719 기업 인수/매각 금융자문 1 614

1) 일반임원은 회사 주가에 연동하여 지급
2) Level 3 자산 및 채권: 유동성이 매우 낮거나 상품자체의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치 측정이 힘들기 때문에 회사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결정하는 자산과 채권
3) 트레이딩 포지션: 트레이딩 의도(Trading intent)를 가지고 보유하거나 다른 트레이딩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상품 포지션

UNGC

2025 UNGC 이행현황

NH투자증권은 2011년 9월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원칙에 대한 활동 내용은 지속가능통합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아래 내용을 통해 상세한 보고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원칙	페이지
인권(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79, 80p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79p
노동규칙(Labor Standards)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79p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79p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79p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80, 81p
환경(Environment)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29, 59-61p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59-61p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31, 55, 58p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99-101p

UN SDGS

2025 UN SDGs 이행현황

NH투자증권은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한 사업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7개의 UN SDGs 목표 중 NH투자증권의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원칙	NH투자증권 활동	페이지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사회공헌단 운영 • 재해 복구 및 긴급 지원	85-86p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강화	• 농촌지역 대상 사회공헌 • 중소농가 육성 크라우드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 • 쌀 기부 사업	85-86p
Goal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 가족친화 제도 운영 •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임직원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83-84p
Goal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디지털 융합 인재 육성 및 교육체계 • 은퇴설계 교육 콘텐츠 운영 •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82, 84, 87p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 신장	• 임직원 다양성 확대 노력 • 공정한 채용 및 평가	80-81p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RE100 이행 전략 및 전환 목표	55, 60p
Goal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 고용 안정화와 인재 확보 •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 제공	80-84p

UN SDGS

2025 UN SDGs 이행현황

구분	원칙	NH투자증권 활동	페이지
Goal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 미래농업인 육성 지원 •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디지털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73, 89p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농업·농촌 지원 중장기 체계 • 희망나무 장학사업 운영	88-89p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및 ESG 채권·녹색금융 확대 • 환경경영(ISO 14001), 자원순환 캠페인	29-31, 59-60p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ESG 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 • 환경사회투자정책 기반 투자	29p
Goal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사법 접근성 확보, 제도 구축	• 내부통제 활동 • 자금세탁 방지 활동	99-102p
Goal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글로벌 탄소시장 협력 확대 •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기후금융 확대 • UNGC(UN Global Compact) 가입	58, 127p

제3자 검증의견서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또는 '당사')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H투자증권')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2026 지속가능통합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본 검증의견서의 사용대상은 NH투자증권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입니다.

검증 기준

검증 활동은 당사의 전문적인 경험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1가 제정한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2 등 국제 규격을 반영한 DNV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6.0과 AccountAbility 사의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AA1000AS v3)에 따라 Type 2 제한적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가 AccountAbility 원칙 기준(AA1000APS (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토콜은 당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한적 또는 합리적 보증을 얻기 위해 검증을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한적 검증 업무 절차의 성격과 시기는 합리적 검증 업무 절차와 차이가 있으며, 절차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은 합리적 검증을 통한 보증 수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DNV는 검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위험을 줄였으나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DNV는 이번 보고 기간 동안 보고서 외부 또는 NH투자증권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기타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결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검증 범위

당사는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제한적 검증 업무 및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업무 수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 당사는 NH투자증권의 중대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 주제(Material Topics)와 관련된 GRI 주제 기준(Topic Standards)을 검토하였습니다.
- '특정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간접적 경제 영향) 203-1, 203-2, (고객 개인정보 보호) 418-1 공시항목과 (Non-GRI) 디지털 금융 및 플랫폼 강화와 (Non-GRI)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의 품질 및 신뢰성을 검토하였습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and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revised)

의견, 관찰 및 권고사항

검증 수행 결과, DNV는 AA1000APS(2018)의 4가지 원칙과 VeriSustain의 신뢰성, 완전성 및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 NH투자증권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NH투자증권의 운영 중 관리된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는 NH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중대성 관점에서 GRI Standards의 'in accordance'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검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DNV의 관찰 의견을 AA1000APS(2018) 원칙과 VeriSustain 원칙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포괄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NH투자증권은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실무 부서 대상 설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연계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수집된 의견이 실제 중대 이슈 선정 및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참여전략의 실행 수준과 의견 반영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리스크 및 기회 관리 측면에서 조직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식별 및 보고

NH투자증권은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재무적 관점과 사회·환경적 영향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IRO(Impact, Risk, Opportunity)를 선제적으로 식별, 이슈별 실무 부서 타겟 설문을 진행하고 실질적 영향력을 측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15개 중대 이슈를 분석하여, 이 중 '5개의 이슈'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요주제(Material Topic)로 사회·환경적 및 재무적 영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응성: 중대한 지속가능성 주제 및 관련 영향에 대한 투명한 대응

NH투자증권은 ESG위원회와 지속가능협의체를 통해 ESG 안건의 식별, 성과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의 점검과 중대 이슈와 연계된 성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중대 이슈와 연계된 GRI 기준의 성과 지표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조직 고유의 지표를 활용하여 주요 지속가능성 영향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향: 조직 활동이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 및 설명

NH투자증권은 중대 이슈의 관리를 위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진행사항과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투자 원칙 내재화', '디지털 혁신 및 플랫폼 경쟁력', '농업·농촌 상생 및 지역사회 협력', '정보보안 및 고객 데이터 보호', '중장기 경영 성과 및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 관리 방향을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신뢰성: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비교 가능성 및 기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품질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과정, 근거 문서와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에 의도적 오류나 왜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속가능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완전성: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확인된 모든 정보 중 보고되는 정보

NH투자증권은 식별된 중요 주제의 운영 경계에 대해 적절한 GRI 주제별 기준 공시항목을 사용하여 중대 이슈와 관련된 2025년 보고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NH투자증권의 주요 비재무적 공시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보고서가 조직의 성과에 대해 중립적인 어조로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

NH투자증권은 보고 기간 동안 회사의 성과, 과제, 이해관계자 우려 사항을 중립적이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독립성 및 품질 관리

DNV는 ISO/IEC 17029:20193 적합성 평가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적 기준,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NH투자증권에 대해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보고서 검증에 대한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한계점

검증은 DNV에 제공된 NH투자증권의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며,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한편, 표본추출(샘플링)과 내부 통제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한 기타 내재적 제한들로 인해 중대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불규칙성이 감지되지 않았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NH투자증권의 종속기업, 협력사 및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DNV는 보고된 재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련 정보가 별도의 독립적인 법정 감사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는 법정 공시 및 감사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재무 공개 및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검증은 정의된 보고기간 내의 범위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이외의 데이터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NH투자증권 관리자 및 검증기관의 책임

NH투자증권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집계, 준비, 정보의 공정한 표시, 데이터에 중요한 왜곡이 없음을 보장하는 내부 통제의 설계, 구현 및 유지가 포함됩니다.

DNV의 책임은 '검증 범위'에 기술된 관련 정보가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를 계획 및 수행하고 이를 취합한 증거에 기반하여 독립적 검증의견서 형태로 NH투자증권에 보고하는 것 입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NH투자증권의 경영진과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의견서를 제외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이나 데이터의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판단 기준

본 검증 활동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사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중요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제한적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다음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NH투자증권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피어 리뷰 및 미디어 검토 등
- 중대성 평가 절차와 결과, 주제 기준과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내용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KPI를 통합, 관리 및 보고를 위한 주요 시스템,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보고 원칙 및 요구사항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
- 정보 모니터링, 데이터 집계 및 보고 전반에 책임이 있는 ESG 팀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수행
- NH투자증권 본사(서울) 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지속가능성 데이터 샘플링 및 전략 이행 관련 관리체계 검토

DNV

AA1000
Licensed Report
000-10/V3-F5J1I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6년 5월 26일

김소현 검증팀장	장상례 검증팀원	윤창록 기술검토자

온실가스 검증의견서

서문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NH투자증권(주)(이하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WRI/WBCSD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9 Refinement to the 2006 IPCC Guidelines'에 근거한 온실가스 성명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온실가스 성명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경계 : NH투자증권(주) 본사 및 국내 영업점(인터넷 데이터센터, 인재원, 어린이집 포함)
- 운영경계 :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 - 카테고리 1, 5, 6)
- 보고대상 기간 : 2025.01.01 ~ 2025.12.31

검증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2019'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는 회사가 보고한 온실가스 성명서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검증결론은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적용하여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결론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상기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산정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위: ton CO_2-eq)

구분[1]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기타 간접배출(Scope 3)	총 배출량
지역기반[2]	859	5,316	828	7,003
시장기반[3]		4,980		6,667

1) 이산화탄소 환산톤(tCO_2eq) 배출량은 최신 GWP인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의 값을 적용
2) 지역기반(Location-based)은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전력 사용에 따른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
3) 시장기반(Market-based)은 GHG 프로토콜 기반, 회사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RECs)가 반영된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였으며, GHG 프로토콜에 따른 국가에서 공표된 잔여 배출계수 부재에 따라 최신 승인 국가 전력배출계수 적용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 처리로 인해 ± 1 tCO_2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5년 NH투자증권(주) Scope 1 & 2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on CO_2-eq)

No.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tCO_2-eq)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소계
1	본사	582	1,859	2,440
2	영업점	277	3,457	3,735
총 배출량(지역기반)		859	5,316	6,175
총 배출량(시장기반)		859	4,980	5,839

※ 상기의 '총배출량'은 소수점 처리로 인해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인재원, 어린이집은 영업점 배출량에 포함됨

2025년 NH투자증권(주)의 기타 간접배출(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on CO_2-eq)

카테고리			본사	영업점	소계
업스트림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79	6	85
	5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141	-	141
	6	임직원 출장	545	57	602
총 배출량			765	63	828

※ 상기의 '총배출량'은 소수점 처리로 인해 카테고리별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인재원, 어린이집은 영업점 배출량에 포함됨

2026년 4월 9일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장섭

주요 수상내역 및 협회 가입 현황

주요 수상

수상일자	주최기관	수상부문
2026.03.19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 우수PD 표창 기관표창 (NH투자증권)
2026.02.26	더벨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2026 - 올해의 PBS
2026.02.23	머니투데이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 - 최우수 ECM
2026.01.29	연합인포맥스	제15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 IB대상 베스트딜
2026.01.29	연합인포맥스	제15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 리서치 인사이트상
2026.01.29	조선일보, FnGuide	2025년 리서치 우수증권사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 리서치 고객서비스 혁신 우수 증권사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Equity Deal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Financial Bond House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Rights Offering House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Equity House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Bond Deal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Rights Offering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M&A Financing Arranger
2026.01.27	더벨	League Table Awards - Best IPO
2026.01.22	딜사이트	제 4회 IB 대상 - 인수금융 주선 부문 베스트하우스
2026.01.22	딜사이트	제 4회 IB 대상 - 유상증자 주관 부문 베스트하우스
2026.01.13	한경비즈니스	2025년 하반기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2025.12.23	아주경제	2025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 - 금융소비혁신 부문 대상
2025.12.18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일반 채권 발행 우수 인수기관 수상
2025.12.05	기획재정부	2025년 상반기 우수PD 표창 기관표창 (NH투자증권)
2025.12.04	아시아경제	2025 아시아자본투자대상 - 디지털부문 최우수상
2025.12.03	이투데이	제 15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 해외주식부문
2025.12.01	고용노동부	2025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종합평가 우수사업자
2025.12.01	고용노동부	2025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 업권별 우수사업자
2025.11.24	서울경제신문	2025 대한민국 증권대상 - 글로벌 부문 최우수상
2025.11.12	머니투데이	2025 IR대상 - 금융투자부문(종합) 최우수상
2025.11.07	헤럴드경제	베스트 퇴직연금 어워즈 - 베스트 투자 포트폴리오 수상

수상일자	주최기관	수상부문
2025.10.29	헤럴드경제	2025 헤럴드 투자대상 - 베스트 IB상
2025.10.28	머니투데이	제13회 베스트 MTS 어워드 - 대상
2025.10.24	아시아경제	2025 아시아스마트금융대상 - 기술성부문 최우수상
2025.09.26	아시아투데이	2025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 자본시장부문 리테일강자 최우수상
2025.09.09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	2025 WIN AWARD 다양성 우수기업
2025.07.15	한경비즈니스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 최우수상
2025.06.2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2025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 증권회사 부문
2025.06.26	더팩트	2025 더팩트 ESG 경영대상 - 사회부문 우수기업
2025.06.13	MTN머니투데이방송	제15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 - 종합대상 1위
2025.05.28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 우수PD 표창 기관표창 (NH투자증권)
2025.05.15	뉴스핌	제 13회 캐피탈마켓대상 - 베스트IB
2025.05.14	헤럴드경제	2025 헤럴드 자본시장대상 - 자산관리대상
2025.05.07	매일경제	2025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 특별상
2025.04.30	대한금융신문	2025 지속가능금융교육대상 - 금융투자협회장상
2025.04.23	이데일리	2025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금융투자부문 최우수상(자산관리부문)
2025.04.03	매일경제	2025 매경 증권대상 - 금상(자산관리)
2025.02.26	대한경제	2025 대한경제 IB 대상 - 종합대상
2025.02.25	아시아경제	제 16회 아시아펀드대상 - 베스트판매사
2025.02.18	머니투데이	제22회 대한민국 IB대상 - 최우수 부동산금융 부문
2025.02.18	한국경제신문	제 16회 한국 IB대상 - 채권발행 부문
2025.01.23	조선일보, FnGuide	2024년 리서치 우수증권사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 해외분석 우수상
2025.01.23	딜사이트	제 3회 IB 대상 - ESG 채권 주관
2025.01.22	더벨	2025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 – Best Bond Deal(SB)
2025.01.22	더벨	2025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 – Best Financial Bond House
2025.01.22	더벨	2025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 – Best Right Offering
2025.01.22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2024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종합 3위
2025.01.14	한경비즈니스	2024년 하반기 베스트 증권사 우수상

주요 수상내역 및 협회 가입 현황

협회 가입 현황

주한상공회의소	준법감시협의회	퇴직연금발전협의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감사회	SEOUL IB FORUM	한국감사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빅데이터학회	서울파이낸셜포럼
KOREA FOREX CLUB	UN GLOBAL COMPACT	증권회사 감사실(팀)장 협의회	글로벌금융학회
도산법연구회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중개회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배출권시장협의회	소액채권전담회원협의회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한국IR협의회	경영정보학회	증권금요회	한국거래소(연부과금)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농민신문사	UN SDGs 협회
한국퇴직연금개발원(기관회원)	한국CFO협회	증권사 자금시장협의회	넥스트레이드
금융투자협회			


NH투자증권